

<인사말씀>

2018년 8.15 광복절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붙여

안녕하세요.

올 여름 더위는 유난히도 극심하지요. 이같은 폭염 속에서도 오늘 우리 기념사업회가 처음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사를 해주시는 내외빈 여러분께도)

본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2014년 3월 1일 창립되어 그동안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조사, 발굴, 연구,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수년간 사단법인 등록을 하지 못하여 나름 어려운 점들도 적지 않았으나 뜻 있는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매년 유무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추모헌공차례를 비롯하여 3.1혁명 기념사업과 8.15광복 기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오면서 여성은 물론 일반 사회의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데 일조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2018년 올해 초 드디어 국가보훈처 산하 사단법인 단체로 등록이 됨으로써 그동안의 교육 홍보 등 일체의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3.1혁명정명찾기운동 뿐 아니라 항일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중강좌, 문혀진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및 토론회, 추모대행진 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1혁명 99주년 기념을 위해 “오늘 그들 여기에”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탑골공원 앞)는 다시 7월 2일부터 2주간 서울역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많은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그리고 내년에도 이 전시는 전국 순회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가리라 봅니다.

본 회가 이와 같은 노력을 이어가는 까닭은 남성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아니 그들 못지않게 조국과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항일독립을 위해 쉽 없이 투쟁해온 여성들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그 투쟁 정신, 애국애족 정신은 오늘의 여성들을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더 나가 분단 체제를 허물고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같은 국제심포지엄의 주제,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 항일여성독립운동” 이야말로 3.1혁명에 참여한 조선의 여성들이 이후 임정 수립과 항일투쟁이란 당시의 역사를 이뤄내는 디딤돌이 되었고, 바로 당시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한 실체였음을 천명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역사인식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여성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데 의의를 둡니다.

수레의 두 바퀴나 비상을 위한 양 날개와도 같이 반듯이 남녀가 공히 이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나가야 함을 본 사업회는 늘 잊지 않고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에 참여해주신 기조 발표자 권현익 교수를 비롯하여, 주제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성에 대한 자료 부족뿐 아니라 정말 많지 않은 연구자들 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의 8.15 광복기념행사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내년 3.1혁명 100주년을 더욱 성대히 기념하는 본회의 성장과 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발표자 권현익 교수, 이명화 선생, 김성은 선생, 리광인 선생과 강정숙 선생, 그리고 토론자 장규식 선생, 김형목 선생, 손염홍 선생과 강윤정 선생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신영숙 위원장께도 감사합니다.

2018. 8. 13.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김 희 선

| 목 차 |

<기조강연>

1919년의 세계, 그 속의 여성들	권헌익	1
---------------------------	-----------	---

<발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여자애국단-해외여성의 활동	이명화	9
중국 상해지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	김성은	29
김숙경지사 생애와 활동 - 훈춘애국부인회를 중심으로	리광인	47
3.1혁명 참가 여성독립유공자들의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검토	강정숙	63

<토론문>

중국 상해지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토론문	김형목	87
<김숙경지사 생애와 활동-훈춘애국부인회를 중심으로> 토론문손염홍		91

국제심포지엄

3.1혁명·대한민국임시정부·항일여성독립운동

일시 8월 13일 오후 1시~오후 6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학술회의 진행표

시 간	제 목
13:00-13:30	행사장 셋팅 및 등록
13:30-13:40	인사말 김희선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
13:40-13:50	축사 (보훈처관계자 외 1~2명)
13:50-14:00	기념촬영
14:00-14:20	기조강연. 1919년의 세계, 그속의 여성들 권헌익 (영국 캠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14:20-14:50	발표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여자애국단 - 해외 여성의 활동 이명화 (前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4:50-15:20	발표2. 중국지역의 한국여성독립운동 - 김성은 (대구한의대학교)
15:20-15:30	휴식
15:30-16:00	발표3. 김경숙 지사 생애와 활동 - 훈춘애국부인회를 중심으로 리광인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
16:00-16:30	발표4. 3.1혁명 참가 여성독립유공자들의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검토 강정숙 (성균관대학교)
16:30-16:40	휴식
16:40-17:30	종합토론. (사회: 신영숙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 장규식 (중앙대학교), 김형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강윤정 (경북독립운동기념관), 孫艷紅 손염홍 (건국대학교)
18:00	만찬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조강연

1919년의 세계, 그 속의 여성들

권 현 익 (영국 캠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1919년의 세계, 그 속의 여성들

권 헌 익 (영국 캠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I

오는 2019년은 뜻깊은 해이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히 그러하다. 유럽에서 1919년은 이 지역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세계일차대전이 끝나고 파리평화회담이 열린 해인데 2019년에 이 역사적 사건의 백주년을 맞는다. 근대적 의미의 평화, 세계평화가 공론장에 등장하는 때였고, 약 이천만 명의 희생자를 야기한 일차대전의 엄청난 파괴 이후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기릴 수 있는가 첨예한 논쟁과 더불어 이러한 전면적인 파괴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가 힘을 받을 때였다. 이런 환경에서 주지하듯이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이 형성되었다. 평화란 혼자 지키고 만들 수 없는 것, 여러 주체자들이 함께 즉 만국이 함께 고민해야하는 것이라는 18세기 계몽주의 전통에서(특히 루소와 칸트의 그 것) 제시되는 명제들이 현실로 진입하는(물론 이 진입과정은 불완전한 것, 그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까지도) 과정이었다. 나아가서 1919년은 제국의 역사에서 분기점이다. 일차대전은 어찌 보면 제국들의 전쟁,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기존의 제국들과 제국이 되고자 했던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국의 변방, 식민지들에서 동원된 많은 청장년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었다.

동시에 이 전쟁은 기존의 제국들(특히 영국과 프랑스)이 19세기 말에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이제는 내리막길로 진입하는 사건이었다. 이 과정은 또한 새로운 제국들이 등장하여 기존의 유럽 제국들에 도전하며 새로운 제국의 시대를 형성하는 시간의 시작이었다. 물론 독일과 일본도 이런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겠지만 현재적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미국이다. 유럽현대의 전공자들이 제시하듯이 일차대전은 미국이라는 다민족국가 제국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소위 말하는 ‘미국의 세기’, 아메리칸 센츄리의 시작이다.¹⁾

1) ‘물론 미국의 세기가 과연 언제 시작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시각에 따라서는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곧 이어서 하와이와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19세기 말을 이 시작으로 논하는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William Appleman Williams, *Empire as a Way of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동아시아 역사와 냉전 연구가들에게는 오히려 서양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두 전장에 양 날개를 달고 참전하게 되는 세계일차대전의 후반기를 새로운 제국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전쟁의 기원 연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는 그의 최근 저작에서 시작점을 좀 더 당겨서, 미국의 대서양 접경 동부에서 태평양 접경

여기서는 1917년 미국의 일차대전 참전 결정도 있겠고 1919년 평화회담의 와중에 제시된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도 중요한 요소로 논의된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재까지 연구로는 후자가 더 적절하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은 또한, 하버드의 역사학자 에레즈 마넬라가 논하듯이 글로벌 역사에서 탈식민 역사(디콜로나이제이션)의 전면적인 등장으로 논의되기도 한다.²⁾

1919년이 유럽현대사의 주요한 전환점, 나아가서 글로벌 권력의 지평에 큰 변동이었다면 아시아에서는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기서 한반도의 3.1운동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물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역사적 현실의 자리에 비해서 글로벌 역사 담론에서 주어진 자리가 아직까지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3.1운동은 독일, 미국과 함께 후발 제국이었던 일본 제국의 식민지에서 전개되었다는 특수한 환경적 요소가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일차대전에서도 소위 ‘승전국’의 지위를 획득한 것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일본의 이 지위는 일차대전 연구에서 독보적인 학자인 제이 윈터가 에디팅한 캠브리지대학 출판사의 3권짜리 일차대전 총서에 왜 일본 해군이 캐나다 밴쿠버 해안을 독일의 잠수정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비롯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 잘 기술되어 있다. 물론 3.1운동은 한반도에서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이름은 다르겠지만 동시대에 아시아(베트남, 중국, 인도, 이집트 등) 여러 곳에서 흡사한 움직임이 있었다. 나아가서 이는 아시아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곳에서,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식민주의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여러 모습으로(예를 들어, 팬이스라미즘, 팬아프리카니즘)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었었다. 한반도 3.1운동의 가장 가까운 사례로 베트남에서도 1919년은 그들의 민족해방사, 현대사에서 큰 획을 긋는 시간대였다.³⁾ 한반도의 3.1운동에 상당한 자극을 받은 중국의 5.4운동, 그리고 이 움직임에 있어서 일차대전의 유럽 전장에 동원되었던 귀향한 중국인 노무자들의 역할은 너무나 익숙한 역사적 사실이라서 부연할 필요가 없다.⁴⁾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를 논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다. 첫째, 3.1운동은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그 의의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아시아의 영역에서도 그러하지만 글로벌 영역에서도 다른 여러 수많은 사건들과 함께하는 시대사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이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는 국지적인 여러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교류내지 대화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중국의 5.4운동을 제외하고).

서부로 이주와 내적 점령의 역사를 미국 제국의 기원으로 제시한다: Bruce Cumings,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2) Erez Manela, *The Wilsonian Moment: Self-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 of Anticolonial Nation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 Mark Philip Bradley, *Imagining Vietnam and America: The Making of Postcolonial Vietnam, 1919-1950* (Durham: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4) Guoqui Xu, *China and the Great War: China's Pursuit of a New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그렇지만 한 공유하는 시간의 정점에서 넓은 공간에서 각자의 이슈를 중심으로 하되 행동은 함께하는 동시성(simultaneity)을 함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한 나라가 만국의 구성 요소인 것처럼 3.1운동 역시 만국의 움직임에 동참한, 말하자면, 글로벌 역사 속의 혹은 천하의 일 속에 중요한 사건이었다. 독자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분이었다는 이 말이 그러나 3.1운동이 타 동시대의 사건들과 비교해서 독자적이고 특수한 측면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3.1운동의 글로벌 역사 속의 의의는 함께 했지만 다른 여타의 사건들과 비교해서 무척 특이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과 연결된다. 3.1운동의 이 특수한 측면에 오늘 모임의 대주제인 ‘3.1운동과 여성’이 위치지어진다.

II

3.1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논할 때 종종 ‘남녀노소 모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아주 교과서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평화적 시위’라는 표현도 익숙하다. 시각적으로는 남녀노소가 섞인 군중이 조악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광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의 제스처를 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각인되어있다. 이 역사적 현실에 대한 연구가 점차 심화되면서 서울과 평양 등 당시 한반도의 중앙의 지평에서, 혹은 하와이 한인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초점을 두는 연구에서, 한반도의 여러 지방에서 조직된 행사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한 네트워크에 관심을 둔 연구, 나아가서 3.1운동을 이 운동의 전후 상황과 발달과정을 염두에 두는 보다 시간적으로 두터운 장에서 조명하는 연구들 등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3.1운동의 주체자를 운동의 지도자 층에 집중하는 연구에서 오늘 이 모임이 그러하듯이 특정한 사회 세력, 예를 들어 여성들의 입지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 역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운동의 주체자들이 하나의 행위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집단이 아니었음을, 다양한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자들이 다양한 의식과 지향성을 가지면서 함께 광장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명해서 3.1운동 연구는 중앙에서 변방으로, 엘리트에서 대중으로, 일체성에서 일정한 다양성으로 진화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잠시 지적했듯이 이런 연구 경향들이 앞으로는 민족사의 영역을 넘어서 글로벌 역사의 지평에서 3.1운동의 역사가 세계사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한국사의 중앙/변방 그리고 일체성/다양성이 글로벌 역사의 영역에서도 발현될 가능성을 기대한다.

그런데 ‘남녀노소’와 ‘평화’라는 두 요소는 좀 더 이론적인 조명을 요한다. 3.1운동이 형성한 ‘광장’은 20세기 정치이론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인 한나 아렌트가 그녀의 1958년 저작에서 논한 ‘공공의 세계’와 아주 흡사하다. 남녀노소가 평화적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 행위를 매개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행위, 그러면서 광장을 진정한 의미에서 광장으로 만들면서, 그 공간을 그들의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행위를 통하여 국가와 제국의 점유물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행동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형식은 아렌트가 상상하고 주장했던 ‘정치적 행동’, 악타 폴리티카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다. 여기서 ‘말’, 말을 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때의 말이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인지 능력으로서의 말이 아니다. 소위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말,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사학적인 말과도 다르다. 이때의 말이란 현실을 재현하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말을 함으로써 그 현실을 그 내뱉은 말을 따르고 그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는 지극히 능동적인 의미에서 근대 민주정치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정치적 인간의 기본 조건을 구성하는 ‘말’이다. 손을 드는 몸의 자유로운 제스처와 함께 ‘대한독립만세’ 혹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그 외침이 한사람의 목소리에서 여러 사람, 군중의 목소리가 되면서 그 외침의 말이 현실 세계에 구현될 것, 제국의 점유물이 된 공간을 작가 최인훈이 말하는 자유로운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으로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가 정치인 그러한 ‘말’이다.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의 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정치적 행위로서의 ‘말’이다. 그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이 형성했던 광장의 모습은 집단기억으로 남아서 다시금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기억 속의, 심연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말이다. 내가 내뱉는 말이 곧 내가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광장의 주인이 되며, 그 광장 속에 있는 수많은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인 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말의 잔치가 아니라, 말의 축제이다.

1919년의 시공간에서 좀 더 전진해보면 이 기억이 어떤 모습을 갖는가 볼 수 있다. 글로벌 역사 속의 1919년의 의미는 1917년의 러시아 혁명(물론 이 사건을 ‘혁명’으로 볼 수 있는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는 비유럽, 비서구 세계에 더욱 그러했는데 한반도의 민족해방의 역사에도 그러하다. 주지하듯이 민족해방운동이 소위 ‘자유주의’ 세력과 ‘혁명’ 세력 두 갈래 흐름으로 갈라지는 것은 1919년의 봉기가 폭력적으로 억압, 실패하는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상해임정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북쪽에서는 1919년 소년 김일성이 아버지가 준 총 한 자루를 품에 숨기고 식민지 한반도를 뒤로하고 만주로 떠나는 사건이 그들 국가의 토대를 형성하는 에피소드로 이해된다. 유사한 이야기가 베트남 민족해방역사에도 그 나라의 민족지도자 호치밍의 전기적 역사,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당사의 영역에서 존재한다. 192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붉은 혁명’ 3주기 행사에 조선, 베트남, 중국 세 나라의 대표단들이 각자의 언어로 된 깃발과 휘장을 갖고 참여한 것은 당시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소련은 이 모습을 그림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이후 제3세계 외교에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1919년은 유럽의 평화운동, 국제사회의 평화정치, 제3세계 탈식민 정치의 시작과 함께 제3세계의 탈식민 정치가 좌우로 나아가서 20세기 중반에 고착화되기 시작한 글로벌 냉전의 정치의 기원이었다는 논지가 가능하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 모습은 1947년 3.1운동 기념행사가 서울에서 좌익과 우익 서로 다른 장소에서 따로 진행된 것에 잘 보인다. 동시에 좌익이

주도한 행사가 당시 미군정에 의하여 일정한 제재와 탄압을 받게 된 것도 그러하다. 제주에서는 서울과 달리 1947년 기념행사가 좌우익의 갈라짐 없이 도민연대로 이루어졌는데, 주지하듯이 이 행사가 경찰의 폭력에 직면하여 결국 1년 후 4.3이라는 비극으로 발전하였다. 올해가 제주 4.3 70주년인데 이 비극은 1948년 4월이 아니라 1947년 3.1일, 1919년 3.1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

제주의 1947년 3.1 기념식은 1919년 3.1이 그러했듯이 평화로운 시위였다. 평화의 ‘말’이 폭력의 권력에 대적하는 형국이었다. 이것은 중요한데 1948년 4.3이 폭력의 수단으로 폭력의 권력에 대항했던 것과 차별되기 때문이다. 평화의 요소와 더불어 1919년 3.1이 그러했듯이 1947년 제주의 3.1은 그 역시 ‘남녀노소’가 모두 ‘말’로써 광장에 진입하는 아렌트적인 정치 행위였다. 이때의 국가폭력 희생자가 소년,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이 포함되었음을 상기하면 이는 명확하다.

이 두 요소들은 오늘날 제주 지식인 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듯이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의 대주체에 무척 중요하다.⁵⁾ 1948-1953년에 제주가 겪은 폭력의 역사가 아직 진행 중인 역사라면 1947년 3.1의 역사 나아가서 1919년 3.1의 역사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인 현재적인 역사, 이는 제주에는 말할 나위 없겠지만 한반도의 식민주의와 내전, 냉전의 경험 전체의 역사적 지평에서도 그러하다. 나아가서 1919년에서 1947년으로 이어지는 3.1의 역사는 세계사의 영역에서도 심중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1919년이 글로벌 역사의 지평에서 탈식민 정치의 시작이라면 이 해방의 첫 걸음이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모습으로, 남녀노소 대중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들만의 광장을 이루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사실이다. 이 놀라운 ‘사실’이 아직 글로벌 역사 담론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고 이론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앞으로 역사학뿐만 아니라 한국학 전체의 책임이다. 둘째, 비교사의 영역에서 1919년은 폭력과 평화의 투쟁사이다. 유럽의 환경에서 이는 1914-1918 엄청난 폭력 이후 18세기의 영구평화의 이상이 전면적으로 복구되면서 더는 이런 폭력을 겪지 않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또한 이 노력이 좌절되면서 1939-1945의 폭력으로 진행되는 실패한 평화의 역사이다. 1919년 파리에서 권력 세계의 지도자들이 국제적 평화를 논할 때 한반도에서는 가장 사회적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모습으로 광장을 형성했었다. 베르사이유의 평화와 종로 탑골 공원 혹은 제주 관덕정의 평화는 동시대의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같은 것이 아니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로부터의 평화, 아래로 부터의 평화 혹은 외교 행위로서의 평화와 사회적 실체로서의 평화로 차별할 수 있다. 폭력의 주체자들이 그들의 얼굴을 바꾸어서 이제는 평화를 논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말’로써 광장을 만들고 그 광장을 평화의 힘으로 만드는 18세기 계몽주의 전통(특히 루소의 그것)에 전자와 비교해서 더 가깝고 더욱 그 전통에 적자의 모습을 보이는 평화이었다. 요즘은 국제교육문화과학 조직인 유네스코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세계시민’적

5) 양정심, 1947년 제주3·1기념대회 주도세력에 대한 소고, 4.3과 역사, 17 (2017): 183-236.

평화 혹은 ‘문화의 평화’로서의 평화와 흡사한 평화이었다.

III

1919년 광장의 평화는 열린 광장이기에 남녀노소 모두가 거기에서 자신을 발현했었다. 여성과 남성이 여성과 남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히 자유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존재했던 장소이었다. 반대로 1919년 베르사이유의 평화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로운 말로써 만든 평화가 아니라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의 말을 쓰는 행위자들의 평화 담론이었다. 이 후자의 장에는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1914-1918년의 파괴의 장에 그들의 존재가 부재했던 것의 연장이었다.

그렇지만 1919년의 공간을 좀 넓게 보면 이 공간을 여성을 제외하고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수많은 여성들이 일차대전의 전장에 간호사로 참전했었다. 더 중요하게 이 전쟁의 파괴는 유럽과 북미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쟁을 일삼는 ‘가부장’적인 국가와 정치체제에 대한 저항은 여러 지역에서(예를 들어 보스턴) 여성이 주도한 국제평화운동을 가져왔다. 예술사의 영역에서 독일의 표현주의 예술가 케티 콜위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즉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회화와 조각으로 전후 독일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일차대전 진지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남성이었지만 후방에서 경제를 이끌던 사람들은 전시 경제에 동원된 여성들이었으며, 이 역사가 국제여성운동에 남긴 유산은 크다. 최근 프랑스 국립전쟁박물관과 국가기록원이 진행한 일차대전 초국가적 역사 프로젝트에는 전쟁에 동원된 베트남 노무자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이 중요한 유물로 기록된다. 이 편지를 통하여 이 노무자들의 어머니와 그들의 부인 혹은 연인들 역시, 프랑스의 수많은 여성들처럼, 일차대전의 피해자였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가 베르사이유 평화회담에 아주 작은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었는가? 동일한 질문을 한반도의 1919년에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관덕정, 혹은 안동의 구 조흥은행 앞에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언어화 하면서 그 순간 자신이 세계시민임을 선언한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아주머니들의 말의 세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로 전해져 있는가? 이들의 말 속에 주권의 당위와 함께 평등의 당위가 있었음을, 즉 국가와 제국은 물론 민족의 틀조차도 제대로 답을 수 없는 존재적 지평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그들의 정치적 주체의 지평을 어떤 정치이론의 언어로 자리지움할 수 있을까? 부엌에서 아궁이 불을 지피다 뛰어나와 얼떨결에 광장에 참여한, 그러면서 그 자신이 광장이 된, 또 실천하는 한나 아렌트가 된 그 여인에게 우리는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오늘날 어떤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그 여인의 자유로운 혼, 환희로운 표정을 어떻게 재현하여 이 땅의, 나아가서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할 수 있을까?

발표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여자애국단
- 해외여성의 활동 -

이 명 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전 수석연구위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여자애국단

- 해외여성의 활동 -

이 명 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전 수석연구위원)

1. 머리말

한국은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과 일제의 식민지배하에서 가혹할 정도로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민족분단과 곧이어 전개된 6.25전쟁이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토록 염원했던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비록 반쪽의 국가이지만 대한민국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오늘날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모범적 국가로 평가받고 한국식 국가 발전 모델은 여러 나라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성공 이면에는 고국을 떠나 국외로 나아간 한국 여성들의 치열한 역사 활동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권을 침탈당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정치적 상황에서 한국여성의 신분적 처지는 봉건적 시대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국외로 나간 여성들은 이민생활의 고단함에도 생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이민사회를 구성하는 데 진력했으며, 2세들에게 국어교육을 행하고 민족문화 보존에 힘을 써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어 준 것도 여성들이었다.

남성에 못지않게 부녀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인 독립운동 일선에 나섰으나 사회는 여성들에게 여전히 ‘三從之道’나 ‘女必從夫’나 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순종토록 강요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더 이상 가족의 울타리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들도 조국광복의 주역이 되어 후손들에게 독립된 민족국가를 물려주고자 직접 독립운동에 동참했으며 격변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이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수레바퀴가 되어 역사를 움직여나가하고자 했다. 그러나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많은 여성들은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여교사들과 여학생들, 특히 기독교에 입교한 여전도사들, 근대교육을 받은 소수의 여성들만이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19년 3.1운동으로 여성운동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3.1운동 이전 여성들의 조직 활동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3.1운동 이후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확대되고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여성단체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본 발표에서는 3.1운동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조직운동과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활동, 또한 임시정부와 연계한 해외 각지에서 전개된 여성독립운동의 조직과 활동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한여자애국단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주에서의 여성독립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운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 양상과 함께 해외 한인여성의 독립운동이 한국 독립운동사상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3.1운동 이전 1910년대 여성운동

근대 한국여성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갖지 못한 여성들이 많았다. 19세기 중반, 봉건적 통치의 이완으로 인한 관리의 수탈과 가난에 쫓긴 민중은 고국을 떠나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로 유랑하며 곳곳에 한인사회를 형성했다. 20세기에 들어와 제국주의 침탈과 일제의 침략이 더해져 한국의 국권이 유린당하자 이에 저항하는 항일 의병투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국채보상운동 등 여러 구국운동이 일어나 국민의식을 새로 깨우치고 있었다. 여성들도 당당히 남성과는 별개의 의식으로 국채보상부인회를 결성해 국채보상운동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참여여성이 양반부인들에 한정되었지만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의 참여는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여성의식도 진일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구한말 서양선교사들에 의한 교육 선교활동이 활발해져 새로운 신교육 혜택을 받게 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부터 여성들의 사회참여의식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미션계 여학당과 성경학교 등에서 여성들도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국 기독교 남·북감리교, 장로교 등에서는 포교의 한 수단으로 많은 근대 학교를 설립, 운영해 여성 인재들이 사회로 배출되었다.¹⁾ 남북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구역에서 선교사들의 희생적 전도활동은 지역적 공간을 넘어 신앙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었는데, 가난과 차별, 봉건적 인습과 신분사회의 굴레 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한국여성들은 기독교신앙의 강한 믿음을 통해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개인적 구원의 차원을 넘어 나라와 민족 구원의 확신과 사명감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 교육진흥과 산업진흥을 목표로 한 애국 구국운동과 의병항쟁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한국 병탄을 막지 못했다. 한국여성에게 근대교육의 혜택을 제공한 것은 남북감리교 선교사들이다. 기독교 포교의 일환으로 시작된 여성교육은 한국 여성의 의식화에도 지대한 공헌

1) 1897년 Mrs J. P. Campbell(康夫人)이 파송된 이래 1930년까지 55명의 여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어 교육과 선교사업에 시무하였고 특히 남감리교의 여성 선교사들은 원산과 개성을 거점으로 하여 여자선교사업과 아동교육을 시작으로 전도부인과 여성기독교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일에 전력했다.(河鯉泳, 『朝鮮南監理教會三十年紀念報』 朝鮮南監理教會傳道局, 1930. 3.20)

이 중 여학교로는 이화학당(1886)과 배화학교(1898), 인천 영화여학교(1897), 송도고등보통학교(한영서원, 1899), 원산 루씨여학교(1903), 개성 미리흠학교(1906)와 호수돈학교, 해주 예창학교(1904), 공주 영명학교(1905), 그리고 장로교 학교로 광주 수피아여학교, 정신여학교, 대구 신명여학교, 목포 정명학교, 부산 일신여학교 등이 유명하다.

을 하였다. 비록 강제 병합이 되었지만 여성들의 근대교육의 기회는 확산되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는 한국을 일본으로 완전 동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여성교육이라고 보았다. 여성이 일본화될 때 그 자식들도 일본화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 동화교육 차원에서 여성에게 식민지 교육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던 것이다.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은 구한말 민족주의 여성교육과 조선총독부의 공립학교 보다는 미션스쿨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이 3.1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강제 병합 후, 미션스쿨의 여교사와 여학생에 의해 결성된 비밀 항일단체로 1913년에 평양 승의여학교에서는 교사 김경희와 황에스더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송죽결사대를 꼽을 수 있다. 송죽결사대는 3.1운동 직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되어 1919년 11월에 평양에서 조직된 항일비밀 여성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의 기초가 되었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여성운동

1)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통합과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결성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서울에서는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배화학당 등 서울 시내 여학생들 중심으로 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서울에서 학교가 휴교되자 지방으로 귀향한 여학생들은 만세운동의 지방 전파에 크게 공헌했다. 3.1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일제는 아만적인 성교문을 가했지만 감옥에서도 여성들의 독립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옥중에서도 여성들의 단식 투쟁과 만세 투쟁은 계속되었다.

상해와 미주에 대한여자애국단이 결성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3.1운동임은 물론이다. 그 중에 특별히 강조되는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팔이 잘린 소녀이다.

“三月一日에 左手에 太極旗, 右手에 獨立宣言書로 示威行列의 前頭에 서서 突進하던 一處女는 敵의 칼에 兩手を 끊기었다. 이것이 이번 獨立運動의 첫 피다. 大韓獨立을 爲한 첫피는 大韓女子에게서 흘렀다. 그로부터 大韓의 女子는 獨立運動의 모든 部門에 빠짐이 없었다. 祕密文書의 印刷, 謄寫, 配布와 通信의 大部分은 女子의 손으로 되었다. 昨年 二月 東京과 上海로서부터 飄然히 줄던 故國에 돌아온 幾個 女愛國者는 釜山에서 義州까지 木浦에서 咸興까지 날아다니며 四千年間 沈黙하였던 大韓의 一千萬 女性에게 祖國을 爲하여 일어날 때가 當到하였음을 告하였고 一旦 大韓獨立萬歲 聲이 일어나매 그네는 奮然히 深閨의 門을 차고 太極旗를 두루고 나섰다.

그녀는 獄에 가고 惡刑을 當하고 重罪의 宣告를 受하였다. 그녀의 피와 눈물로 大韓獨立을 부르짖는 소리는 千萬의 大韓男子를 奮起케 하고 世界에 對하여 大韓民族의 義氣를 高聲으로 자랑하기에 足하였다.”

신한민보에도 보도되고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가 발간(1920년 1월)한 『만세 - 한국의 어린 순교자들(Mansei- Little Marthus of Korea)』 에서도 나타났다.

“평양 미션스쿨에 다니는 한 소녀가 우리 외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은밀한 경로를 통해서 독립선언서 한 부를 얻은 후 만세를 외치는 다른 소녀들과 합세하기 위하여 평양시 중심가로 나갔다. 이 소녀는 학교에서 마리아로 알려진 학생인데 나이에 비해 몸집이 좀 작은 편이고 매우 약했다. 그러나 이 작은 여걸이 보여준 그날 용기로 미루어 보건대 그녀는 군인의 심장을 가졌음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신호등 기둥 위에 얼마만큼 기어 올라가서 아래에 있던 군중들을 향해 독립선언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일본 경찰이 즉시 나타나서 그녀에게 기둥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작은 그녀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읽어갔다. 이 건방진 언행에 분노한 일본인은 총 끝에 쏜 대검으로 그녀의 팔을 마구 찔렀다. 그녀의 기둥에서 떨어졌고 한쪽 팔이 얼마쯤 절단되었다.

군인은 감각이 없는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땅에 굴러 있는 선언서를 잡아채려고 했다. 그러나 소녀는 군인보다 훨씬 빨랐다. 왼쪽 손을 내밀어 소녀는 그것을 주워 올렸다. 비틀거리는 발로 버티고 서서 그녀는 약하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다시 낭독하기 시작했다. 또다시 이 야만인은 대검으로 그녀를 찔렀는데 이번에는 왼쪽 팔이었다. 그리하여 이 작은 여걸은 그녀의 귀중한 자료와 함께 자비로운 무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것은 우리 외국인들이 본 많은 광경 속의 하나이다. 피가 끓어오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오, 주여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것 뿐이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 여성들과 해외 여성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일제의 야만성에 분노하고 불굴의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로, 그리고 독립운동의 현장으로 분연히 나가는 여성들이 증가했다.

상해에는 1920년 2월 당시 30여명의 여성들이 있었다. 그녀들 대부분이 대한애국단원이었을 것이다.²⁾ 대한여자애국단 여성들은 돈을 모금해 독립운동에 관한 사진첩 수천 부를 발행하고

2) “.....只今 上海에 在한 三十餘의 婦人은 거의 一刻의 閑隙이 없이 活動한다. 그네들은 대개 女學校 出身으로 昨年 三月 以來로 國內에서 活動하다가 數個月의 獄中生活을 치르고 온 이들이다. 月前 大陸報

서양인과 중국인에게 배포하며 태극기와 그밖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연상할 만한 기념품을 만들어 널리 세계의 同情하는 인사들에게 보내려 계획했다. 이 일이 시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여자애국단원들은 독립운동사료와 선전재료의 모집에 종사하고 임시정부 재무부의 收稅員이 되어 인두세를 거두고, 군무부의 의용병 勸誘員으로 활약했고 또한 인성학교 교사로 복무하고 적십자회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전쟁 준비를 하였다. 당시 송아지³⁾라는 필명으로 쓰여진 『婦人과 獨立運動』이라는 논설에서 “上海에 在한 男子로는 아모 事務 업시 優遊하는 者가 있다 하더라도 女子로는 一人도 그러한 者가 없다.”⁴⁾했다.

한국에서는 3.1만세운동 직후 투옥을 면한 여성들에 의해 여성독립운동단체들이 비밀리에 조직되었다. 3.1운동을 경험한 여성들은 독립된 국가의 국민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깨닫고 여러 결사를 만들었고 이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적 결사 애국부인회로 태어났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에 본부를 둔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평양에 본부를 둔 대한애국부인회, 평남 순천의 대한국민회 부인 향촌회, 강서의 대한독립청년단, 평양의 결백단, 평남 대동의 대한독립부인청년단, 평남 개천의 여자복음회, 서울의 독립여자부 등등이 결성되었다. 이 중에 서울의 대한민국애국부인회⁵⁾와 평양의 대한애국부인회는 전국적으로 지부까지 둔 전국 조직이었고 기독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평양에서 3.1운동을 계획하던 중 1919년 2월에 복경을 경유해 상해로 망명한 손정도 목사로 인해 부인 박신일은 일경의 감시와 압박을 받아야

에 金蓮實氏의 獄中에서 惡刑當하던 告白이 나왔거나와 우리나라에 뜻있는 女子들은 다 그러한 苦難을 當한다고 봄이 마땅할 것이다. 上海에 在한 그네는 愛國婦人會를 組織하였다. (婦人과 獨立運動, 『獨立新聞』 1920. 2.17).

- 3) 송아지는 주요한의 필명이다. 주요한은 1919년 5월 상해로 건너가 8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의 편집을 맡았다. 1920년 2월 흥사단에 입단했으며 1920년 9월 상해 滬江大學 공업화학과에 입학, 1925년 6월에 졸업했다. 남경 東明學院에서 1년간 영어 교사를 지냈다.
- 4) 『婦人과 獨立運動』, 『獨立新聞』 1920. 2.17.
- 5)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조직이 결성된 지 두 달 만에 전국적인 검거 선풍이 일어나 간부 전원이 체포되었다. 경찰의 고문과 검사들의 모욕적 심문에 김마리아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 한국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당당히 맞섰다. 2차 투옥과 3차 검거 당시 일제의 악랄한 고문으로 인해 김마리아의 병세는 악화되어 더 이상 감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정신여고 천부인과 대구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1920년 5월 22일에 병보석을 받고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대수술을 받았다. 병보석중인 6월에 열린 재판에서 5년 중형이 구형되었다가 다시 3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 후 10월에 병원에 다시 입원해 2차 대수술을 받고 그 이듬해 4월에 퇴원해 성북동에서 김근포(金權圃)라는 가명으로 요양을 하고 병세 악화로 다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상해임시정부에서 밀파한 윤웅념(선교사 맥쿤의 제자)의 도움을 받고 6월 30일 인천에 잠입, 7월 6~7일경 중국인 목선을 타고 산둥성의 위해위(威海衛)를 경유하여 8월 10일 경 상하이로 탈출하였다. 김마리아는 1922년 2월 18일 제10회 의정원회의에서 황해도 대의원에 임명되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와해된 이후 여성들은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김마리아는 1923년 6월 21일에 미국유학 길에 오르게 되었다. 1920년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여성들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립자금 마련, 자녀교육, 가족 경제 등을 담당하였다. 임시정부와 함께 했던 여성들은 이러한 역할을 한 반면 서북간도,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한 여성들 중 일부는 남성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

했다. 그러나 낮에는 기흥병원에서 잡역부로 일하고, 밤에는 재봉틀을 돌리면서 가정 생계를 꾸려가면서 독립운동 자금조달을 맡을 조직망을 구축해 나가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한편 감리교계의 손정도 목사는 종파를 초월해 천도교 인사들과도 접촉했으며 임시정부 조직에 필요한 자금을 천도교로부터 1만원, 미국 선교부로부터 1만원을 얻어내고 3.1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중인 4월 10·11일 양일간 상해 프랑스조계 金神父路에 임시독립사무소를 차리고 그곳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를 주최한 주역이었다.⁶⁾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최되던 날인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동시에 첫 헌법인 총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했다. 임시헌장에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임시헌장 제3조에는“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규정으로, 모든 인민은 남녀 불문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똑같이 참여 기회를 갖으며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이튼바 헌법에 제시한 것이다. 임시헌장에서 제시된 '평등주의'에 의거한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인지 분명치 않으나 임시정부 수립 직후인 5월 내지 6월경에 평양에 있는 장로교계와 감리교계의 기독교 여성 신도들은 각각 애국부인회를 결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지와 지원에 나섰다. 그녀들이 임시정부 수립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지지·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 배경에는 임시정부가 만민평등의 민주공화정체를 표방했기 때문이었다.

북장로교계 여성들은 5월경에 여성 반장 직을 맡은 韓永信의 집에서 金寶源·金用福·金信禧 등과 모여, “금일의 시세는 남자에게만 독립운동을 맡기고 부인들은 손잡고 방관함은 동포 의무에 반할 뿐 아니라 남자에 대하여 수치이다. 고로 우리 부인은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조선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한영신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가운데 애국부인회가 정식 출범했다. 이들 북장로교 애국부인회는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된 의무'를 강조하고 민주적 평등주의에 기초한 부인회를 조직했다. 애국부인회는 회원을 규합하고 이들에게 회비를 징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송금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한편 6월경에는 평양 서문 밖의 감리교회의 여성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애국부인회가 조직되었다. 손정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조직망을 통해 평양 紀笏病院 직원인 朴昇—7), 교원인 李誠實,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장인 손정도의 큰 딸 孫眞實과 그리고 崔信德 등이 白東燁의 집에 모였다. 이들은 박승일로부터 임시정부를 지지·지원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모두 찬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 후 6월 중순과 7월 15일 산정현 교회에 모여 임원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6) 4월 11일에 손정도는 임시의정원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의장 이동녕이 이를 만에 사퇴하자 4월 13일에 그의 후임으로 제2대 임시의정원 의장이 되었다.

7) 박승일과 손정도 부인 박신일은 이름이 유사하고 두사람이 평양 기흥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이나 아직까지 밝혀진 사실은 없다.

활동을 밀의했으며 8월 중순에 장로교계 애국부인회와 연합하여 활동할 것을 협의했다. 그 후 양 부인회간의 협의를 거쳐 11월에는 두 단체가 연합을 하고 명칭을 대한애국부인회로 부르기로 했다.

서북지방의 두 부인회는 종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에 합의한 후에 연합했다. 합의 내용은 본부를 평양에 두고 각지에 지회를 설치함과 본부의 임원은 양측에서 공평히 선임함, 이미 설립된 각 부인회는 모두 지회로 함, 각 지방의 부인 유지에 권유하여 지회를 설치함, 그리고 회비 이외에 일반적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함 등의 다섯 가지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평양에 설립된 두 부인회는 중앙 본부로 편성되었고, 그 외의 지방에 설립되었던 지방부인회를 애국부인회의 지회로 편성되었다.⁸⁾ 본부 임원 구성과 지회의 구성 상황으로 볼 때, 감리교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감리교계에서 참여한 오신도와 손진실 등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인 손정도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손정도는 일찍이 1906년 평양에서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부흥운동을 일으킨 역사가 있고 손정도는 감리교목사이나 계파에 상관없이 감리교 선교사 노블(William Arthur Noble)과 장로교계 마펫(Samuel Hugh Moffett)과도 기맥이 통했던 인물이다.

3.1운동 이후 서울에는 血誠團愛國婦人會와 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활동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소식이 전달되자 두 단체는 5월 중순경에 임시정부에 여성단체 대표로 김원경을 파견하고 양 단체를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아 마침내 6월에 통합을 이루었다.¹⁰⁾ 당시 ‘대조선독립 애국부인회’의 명칭을 가지고 임시정부에 독립금을 전달했으나 임시정부는 감사장을 보내 ‘대조

8) 애국부인회 본부의 부서 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재: 吳信道(감리계, 당 61세, 손정도 어머니), 회장: 安貞錫, 감리계, 31세, 大同군수 義妹), 부회장: 한영신(장로계, 34세, 교사), 재무부장: 趙益善(장로계, 30세), 부재무부장: 金世智(감리계, 55세, 전도부인)·김보원(장로계, 33세, 교사), 교통부장: 최신덕(감리계, 23세, 학생)·이성실(감리계, 26세, 교사), 적십자부장: 洪活蘭(감리계 28세)·적십자부원 鄭月羅(감리계, 26세), 서기: 최명실(장로계, 28세)·李兼良(장로계, 26세, 교사)·崔梅智(감리계, 24세, 교사), 부서기: 朱光明(감리계, 26세, 교사), 평의원: 金信喜(장로계, 26세)·姜啓心(장로계, 40세, 상인)·朴蒙愛(감리계, 27세), 교통부원: 宋聖謙(감리계, 44세, 전도부인)·安敬信(감리계, 25세) 등이다. 지회로는 평양 감리교계 지회(지회장: 박승일, 부회장: 朴賢淑 25세, 서기: 손진실 19세, 지회원: 李聖實 외 8명), 평양 장로교계 지회(지회장: 김용복 31세 교사, 부회장: 黃福利 22세 은행원, 재무: 李福錫 23세 교사, 서기: 이경량 26세 교사, 지회원: 崔永寶 외 6명), 진남포 감리교계 지회(지회장: 安愛慈 48세 교회속장, 재무: 李順善 22세 參事의 장녀, 모집원: 梁眞實 46세 전도부인, 지회원: 吳有德 외 21명), 진남포 장로교계 지회(지회장: 崔永保 23세 교사, 재무: 李聖秀 26세 교사, 지회원: 金道敏 외 7명), 강서군 감리교계 지회(지회장: 韓篤信 30세, 부회장: 朴永福 29세, 재무: 안경신 25세, 모집원: 金聖心 38세 전도부인, 지회원: 朴卜女 외 4명), 咸從 감리교계 지회(재무: 康賢實 29세 상인, 모집원: 金明德 37세 전도부인, 지회원: 崔炳祿 외 8명), 甌山 감리교계 지회(지회장: 송성겸 44세 전도부인, 재무: 朴致恩 41세, 모집원: 朴順美 40세, 지회원: 朴淑美 외 8명) 등이 있었다.

9) 孫貞道는 李元益, 金秉祚, 金仁全, 趙尙燮, 宋秉祚, 張德樞, 朴潤根, 趙普根, 朱賢則, 白永燁, 呂運亨, 金泰淵, 鮮于棼, 徐丙浩 등과 함께 上海에서 大韓聯邦敎陳情會를 조직하고 國際聯盟과 萬國長老敎聯合總會, 監理敎百年紀念大會, 미국회 상원의원, 日本萬國主日學校大會 등을 상대로 하여 활발한 선전활동을 수행했다.(不逞團關係雜件—鮮人の部—在上海地方 3, 在上海 不逞鮮人の 宣傳計劃에 관한 件 (高警 제13250호, 1921. 4.27).

10) 兩國體가 打擊을 受함, 『獨立新聞』 1920. 1. 1.

선' 대신에 '대한민국'의 국명을 기재했고 이로써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통합 조직은 총재(오현관)·부총재(김희열)·재무부장(오현관)·재무주임(오현주)·회장(오현주)·부회장(최숙자)·평의장(이정숙)·외교원(지방통신원 ; 장선희, 해외통신원; 경하순·서기(김희옥)·고문 이병철(李秉澈)·회원대표(김원경) 등이었고 평양·대구·개성·진주·기장·밀양·거창·통영·양산·울산·부산·마산·회령·정평·목포·전주·광주·홍수 등의 지부 조직을 통해 회원 모집과 군자금을 모금해 임시정부로 송금했다. 그러나 조직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가 8월 4일에 투옥되었던 김마리아와 황에스터가 출옥하면서 부진했던 여성독립운동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김마리아는 9월 19일 정신여학교 교장 관사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애국부인회의 임원 14명과 함께 참석해 7시간의 회의 끝에 회장에 선임되었다.¹¹⁾ 본부와 지부의 규칙을 새로 마련하고 부서도 대폭 개편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조직의 목표가 항일독립운동에 있음을 분명히 표방하며 항일독립전쟁 준비와 참여에 큰 비중을 두었다. 적십자장과 決死長이란 새 부서를 두고 책임자도 두 명씩 임명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새로이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을 보내고, 통신부를 두어 임시정부와 국내 각 지방과의 연락을 취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상해 임시정부의 여성대표기관으로서 해외 지역을 포함, 19군데의 지부가 결성되었다. 당시 일제 보고서에 의하면 가입 인원은 총 650여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연통제, 교통국의 조직망이 깨져나가고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을 지원했던 적십자회 조직도 발각되어 단원들은 체포되었다.¹²⁾

3.1운동의 결과 중국 상해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부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현장에서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평등함을 밝히고 있듯이 독립 후 새로이 건설되는 국민국가에서 여자들도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 상해로 왔다. 李華淑, 金順愛, 李善實, 姜千福, 朴仁善, 吳義順, 權愛羅, 金元慶 등은 1919년 6월 대한애국부인회를 결성했다.¹³⁾

11) 일본 유학 중에 2.8독립선언에 참여한 김마리아와 황에스터, 차경신 등은 2월 17일 도쿄를 출발해 부산으로 밀입국했다. 김마리아는 신한청년단원의 일원으로 상해에서 국내로 밀파되어 만세운동을 기획하고자 입국한 고모 김순애와 고모부 서병호를 만나 독립운동 사정을 듣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에 여성단체를 통일해 대한민국애국부인회로 발전해가는 중심 역할을 했다. 새로이 조각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會長 金마리아, 副會長 李惠郷, 總務及編輯員 黃愛施德, 書記 辛義敬·朴仁德, 交際員 吳玄觀, 赤十字會長 李貞淑·尹進遂, 決死長 李誠完·白信永, 財務員 張善禧 등이다.(兩國體格 打擊을 受함, 『獨立新聞』 1920. 1. 1).

12) 京城에 근거를 두고 上海大韓民國臨時政府 및 大韓靑年外交團과 긴밀한 연락 하에 各地의 耶蘇教徒를 망라하여 조직된 大韓愛國婦人會(別名 大韓獨立婦人會)는 資金 數百圓을 모집하여 上海大韓民國臨時政府에 送付한 것이 발각되어 京城과 各地의 支部 關係者 44名 중 吳玄洲 이하 23名이 數回에 걸쳐 체포되다.(『高等警察關係年表』 1930, 1919.11.28일자)

13) 대한여자에국단원들의 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3.1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한 여성과 임시정부 요인의 부인과 딸, 유학생 등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대한여자에국단에 가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거주한 여성들의 명단이 완전하게 파악되자 못하고 있다. 1920년 2월 현재 30여명의

1920년에 들어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의 해”를 선언하고 國民皆兵을 목표로 18세 이상의 남성들에 대한 군적등록사업에 착수했다. 그 당시 ‘청년’ ‘소년’이라는 용어는 남성의 용어이지만 양성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여성만의 선명한 아이덴티티로 그 존재를 분명히 부각하고자 했다. 그래서 국민군 편성을 위한 군적 등록에 ‘18세 이상 남자’는 오식이라며 ‘18세 이상의 남녀’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¹⁴⁾

2) 상해 대한적십자회 결성

대한애국부인회 회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전쟁 방략에 의해 1919년 8월에 설치한 大韓赤十字社에도 참여했다. 독립전쟁을 염두에 두고 국내에 조직망 구축과 재정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을 때 여성들도 적극 참여해 적십자운동에 참여했다. 1909년 이래 일본적십자사로 편입되어 한국에서 사라졌다가¹⁵⁾ 임시정부에서 대한적십자회는 부활했다. 8월 29일에 내무부 총장 안창호의 명의로 그 설립이 인가되고¹⁶⁾ 78명의 명의로 선언문과 결의문을 내외에 선포함으로써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¹⁷⁾ 회원모집과 지부 설립을 적극 추진해 국내는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러시아 소왕령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지부를 설립했으며 중국인들과 서양인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¹⁸⁾ 대한적십자회 지부는 임시정부의 교통국과 연통부 등 조직을 이용해

명단 파악 작업을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14) 婦人과 獨立運動, 『獨立新聞』 1920. 2.17.

15) 한국에서는 1904년 12월 21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네바조약의 원칙을 海戰에 적용한 조약인 「적십자 병원선에 관한 국제조약」 협정 체결을 위해 고종황제의 특사로 주불공사인 민영찬(閔泳贊)이 참석하고 국제 적십자 국제기구에 정식 가입한 바 있다. 황제 칙령 47호와 54호로 대한제국적십자사 설립이 공포되어 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

16) 회장에 李喜敬, 부회장 金聖謙(1919년 11월 후임 안정근), 이사 여운형(후임 서병호), 査檢에 안정근·김창세·김순애, 상의원에 이광수·옥성빈·장건상·손정도·김태연·서병호·정인파·이화숙·강태동·고일청·김한·김병조·김철·원세훈·현순·김보연·김홍서·오의선·이춘숙·이기룡 등이 선출되었다. 그 밖에 명예총재에 서재필·고문에 이승만·이동휘·안창호·문창범 등이 선정되었다. 1921년에 새로운 보선이 이루어졌는데, 회장 이회경 대신 안창호가 선임되었고 그 밖에 감사에 김창세, 송병조, 이탁이 선임되었다. 이어 1921년 12월 29일에 새로운 상의원에 대한 보결 투표 결과, 양헌, 한진교, 유기준, 이유필, 김구, 신현창, 조상섭, 주현직, 김규식, 강경선, 김인전, 김명용, 선우 훈, 이규홍, 정애경 등이 선출되었다. 안창호의 회장직 사절로 부회장인 안정근이 회장 사무를 代辦했다. 1922년 2월 23일 총회 임원 선거에서 회장 손정도, 이사장 오연선, 상의원 신창화·김위택 등이 선출되었다.

17) 결의문에는 “1. 일본적십자사에 대하여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고 捐金의 반환을 요구할 것, 2. 국제연맹에 향하여 일본적십자사의 無道無義한 죄악을 성토했는 동시에 우리의 정의적 태도와 독립적 자격을 완전히 표시함으로써 적십자연맹회에 가입할 것, 3. 신성한 독립전쟁에 취하여 생명과 신체를 희생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구제함은 우리 적십자회의 제일의 要務요 급선무라, 고로 자유정신을 가지고 동포의 참상을 슬퍼하는 우리 민족이여! 성심총력하여 본회의 목적을 달할지어다”라고 천명했다.(상해관 『獨立新聞』; 『時報』 1923.11. 4(上海);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三)』, 1970;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臨政篇 II), 1973;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 資料3』(臨政篇 III), 1973; 大韓赤十字社, 『大韓赤十字社 七十年社』, 1977).

자회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간도 安東과 미주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에 지회를 두었고 멕시코쿠바에서,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도 지회가 설치되었다. 대한적십자회는 안정근을 단장으로 하는 구호단을 편성하고 하와이 등지에서 보내온 의연금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1922년 봄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이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상해 교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과 치료 등을 위한 의료 활동을 전개하고 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나 병원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황해도 웅진, 함남 원산 등지에서는 대한적십자회 회원들이 의연금을 모집하다가 일제에 피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1920년 4월 연해주에서 4월 참변과 10월에는 간도 일대에서 경신참변이 일어나는 등 일제의 탄압과 연통제, 교통국 조직망이 파괴됨에 따라 대한적십자회 조직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적십자회는 독립전쟁을 준비하면서 1920년 2월 1일에 간호원 양성소를 설립해 의료 인력을 양성했다. 전쟁 시기에 의사가 부족될 우려가 있고 환자를 구료할 필요에서 간호 인력을 양성코자 했다. 입학자격은 중등교육 이상의 수업을 받은 자로 하고 교육과정은 3개월간 매주 18시간의 수업을 이수하도록 했다. 의료 실습과정은 김창세 박사의 주선에 의하여 상해 시내의 각 병원에 의뢰하여 밟도록 했다. 제1기생으로 남자 3인, 여자 10인이 수업과정을 밟았다. 상해 대한여자애국단원 여성들이 간호원 양성 과정을 1922년 이후 임시정부의 침체와 함께 적십자운동도 점차 약화되어 갔다.

그러나 북미의 대한여자애국단과 하와이에 대한부인구제회 등 여성단체들은 해방이 되기까지 존속하면서 적십자 활동까지를 자신들의 활동영역에 두고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¹⁹⁾ 상해 대한적십자회의 서울 지부는 대한청년외교단과 애국부인회 회원이 주축을 이루었다. 1920년 7월에는 황해도지역의 기독교 청년들에 의해 대한적십자사청년단 및 의용단이 조직되었다. 평양에 본부를 둔 대한국민회는 평양 3.1운동을 지도했던 단체인데 황해도 長淵·松禾·甕津·海州 등지에 지회 조직망을 구축하고 약 200명의 단원을 확보했다. 이들 중에는 면장에서부터 교사·음식점·대서업·상인·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했다. 단원들은 매월 30전을 의연해서 권총을 구입, 형사밀정·친일파를 처단하고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해 독립공채를 구입·판매하고 『독립신문』을 구독하기로 활동 방침을 정하고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구입해 군자금으로 송금했으며 상해판 『독립신문』을 구독하는 등 적극적인 임시정부 지원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1921년 5월 일본 경찰에 탐지되어 대다수 단원들이 체포됨으로써 해체되고 말았다.²⁰⁾

18) 초창기 720명에 불과했던 회원이 1920년 5월 경 통계에 의하면 2,128명(이 중에 중국인 70~80명, 미국인 100여명)이었고 1921년 11월 현재 3,439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19) 815해방과 함께 국내의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는 폐지되고 조선적십자본부로 복구되었다. 그리고 조선적십자사 창립준비위원회에 의해 1946년 7월 27일에 조선적십자사 창설되었으나 미군정청에서 준비 미흡을 이유로 해산시키고 조선적십자사는 1947년 3월 16일에 와서야 창설될 수 있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적십자사로 개칭되었다.

20)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第1卷 分冊(民族主義運動篇), 東京:原書房, 1967.

4. 미주 한인 여성 독립운동과 대한여자애국단

1) 미주 한인 여성 독립운동

한국의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 바로 미주로 이민 온 여성들도 있으나 많은 여성들은 사진신부로 미주에 이주했다. 신랑이 될 남자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미주로 떠난 한국여성들은 사진과는 달리 나이 많은 남편을 맞이해 실망하기도 했다. 사진 신부 여성들은 사탕수수밭 잡역부나 세탁부로 고단한 삶을 살았으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자식교육과 조국 독립에 걸고 손가락에 지문이 달토록 일을 했다. 여성들은 '교육이 바로 생명'이라는 의식 아래 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출세와 영달보다는 '조국 독립'이라는 공적 가치에 더 두어졌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단체를 결성해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사진신부들과의 결혼과 2세가 출생하면서 하와이 이민 사회는 눈에 띄게 안정되어갔다. 남편과 시집에 통고하지 않고 1905년에 딸 강혜원과 아들 강영승, 며느리 강원신과 함께 하와이로 이주²¹⁾한 황마리아는 1913년 4월에 대한부인회를 조직했다. 부인구제회는 국어교육, 교회와 사회사업, 가정용품서 일화배척, 동포구제에 힘쓰고 1914년에 카우아이, 골로아 지역에 지회를 설립하여 국내의 재난당한 동포들을 돕는 활동을 전개했다.

31운동은 미주 여성의 힘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1운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3월 15일에 하와이 각 지방 여성 대표자 41명은 공동대회를 열고 조국 독립운동 후원을 목적으로 한 대한부인구제회를 결성했다.²²⁾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 2달러 50센트씩 매년 수봉하여 경상비에 쓰고 사업경비는 부녀들이 가정 살림을 절약하여 모은 특별의연금으로 마련했는데, 그 모두가 애국 사업에 바친 것이다.

북미에서 결성된 첫 부인회는 1908년 5월 샌프란시스코 한국부인회이고 1917년 3월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 1919년 3월 캘리포니아 다뉴바에서 신한부인회 등이 조직되었다. 3.1운동소식이 미주에 전달된 이후에 결성된 부인회는 L.A. 부인애친회(1919. 3.28), 멕시코의 부인애국동맹단(1919. 4.23) 등이 있다. 도산 안창호는 각자 활동 중이던 부인회에도 전 여성이 일치된

21) 강혜원은 초대 애국부인회단장을, 며느리 강원신은 대한여자애국단 제 3대 총부단장을 역임했다.

22) 대한부인구제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① 조국 독립 운동 후원의 목적으로 하와이 각 지방의 한국 부녀를 규합하여 대한부인구제회를 설립하고 부녀 사회의 운동 역량을 이에 집중함. ② 대한부인구제회는 조국독립 운동에 대하여 부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봉사하되 우선 독립운동 후원금 모집에 착수할 것이며 항일 군사운동이 있을 경우에 출정군인 구호 사업의 준비로 적십자 임무를 연습하며 재난 동포 구제에 노력함 ③ 조국 독립운동과 외교 선전에 대한 후원 방침에 대한인국민회 지도에 따라 진행하기로 함. 회원은 손마리아, 황마리아, 김유실, 박정금, 안정송, 김복남, 손경신, 김보배, 최사용, 백인숙, 안득은, 김복순, 김정환, 정혜련, 김루시, 김마주리, 립마리아, 김살로미, 정마타, 손마타, 김해나, 심영신, 김차순, 광명숙, 박금우, 김엘시, 김로쓰, 홍수산나, 한에스터, 리영애, 최자신, 김숙안, 박엘시, 리마지, 김순화, 김교선, 유광희, 조병선, 유정순, 리월선, 엄수산 등이다.

조직에서 일치된 활동을 해 줄 것을 권면했다.²³⁾ 그리하여 1919년 5월 18일, 새클라멘토 한인부인회와 다뉴바의 신한부인회, LA 한인부인회는 조직합동을 촉진하였고 31운동을 계기로 광복운동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가하고자 8월 2일 합동 발기대회를 개최, 합동결의안을 통과시켰다.²⁴⁾ 이어 8월 5일 다뉴바 한인장로교회에서 역사적인 대한여자애국단 창단식이 거행되었다.²⁵⁾ 대한여자애국단의 활동목표는 “① 조국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대한민국민회와 동심 협력함. ②가정의 일용 사물을 절약하여 독립운동 후원금으로 辦備하며 국내 동포 구제 사업에 노력함 ③가정에서 日貨 배척을 단행함.”에 두었다. 특히 군자금을 모금,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를 경유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했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해 대한여자애국단과 한국내의 대한민국여자애국단, 그리고 미주 여성들의 대한여자애국단은 공히 임시정부 지원의 임무를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역할로 간주하고 독립의연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미주의 대한애국부인회 회원들은 상해 대한여자애국단과 연락했다.²⁶⁾ 또한 국내에서 비밀결사로 결성된 대한적십자회와 여자애국단과도 공동의 활동을 펼치며 조직적 연대를 모색했다.²⁷⁾ 대한여자애국단은 1924년 8월에 '본단의 목적은 대한 여자를 단결하고 문화 준칙과 도덕 원리에

23) 이제까지 대한여자애국단을 처음으로 정리한 성과는 김운하의 『大韓女子愛國團史』(대한여자애국단신한민보사 발행, 1979)이다. 저자 김운하는 초대 애국단장인 김혜원의 아들이다. 백일규가 애국단의 역사를 정리했으나 탈고하지 못하고 서거했으며 이 책은 백일규가 정리한 자료와 원고를 근거로 기록된 것이다. 연구논문으로는 박용욱, 「미주한인여성단체의 광복운동 지원 연구 - 대한여자애국단을 중심으로」(『震檀學報』 78, 1994)가 유일하다.

24) 발기대회에서 다뉴바 신한부인회 대표 : 한성선·이은기·이낸시·이성애·임성실, 로스앤젤레스 한인부인회 대표 : 전그레이스·박애나·최유실·백낙희, 그리고 윌로우 지방 부인회 대표 : 임광명·윤으로쓰의 서명으로 “① 조국 독립운동을 힘있게 후원할 목적으로 각 지방에 분립된 부인회를 합동하고 운동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함. ② 미주 한인 여자 지사회의 통일 기관으로 대한여자애국단을 설립하여 각지의 부인회를 해체하고 애국단 지부를 조직기로 함.”의 합동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5) 매년 8월 5일 창립기념 날은 여성들의 단결을 돈독히 하는 장이 되었다.

26) 상해 여자애국단이 미주 여자애국단에게 보낸 편지

“정계자 상해에 있는 대한애국부인회는 귀회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축사하며 거리에 가깝지 못함을 인하여 우리의 정신이 같고 목적이 같은 동지로 피차에 지금까지 서로 통신과 연락이 없음은 실로 적지않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럼으로 지금 귀회에 통지하옵고져 하는바 상해에 애국부인회가 임의조직되어 회원이 60명이요 그간에 몇가지로 진행되는 일이 있사오며 이 앞으로 더욱 원만히 진행할 방침을 연구하여 우리의 죽었던 국가를 다시 살게 하는데 전심 갈력하고져 하는 중 먼저 다른바에 필요한 것은 우리 애국부인회가 어느 것에 조직되었든지 먼저 서로 연락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무쪼록 같은 목적에 같은 방침을 써서 끝까지 진행하기를 바라나이다. 듣는 바에 대한 애국부인회가 처처에서 여러 곳으로 조직되어 혹 어떤 곳에는 적+자회까지 이미 조직되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반가워하는 바이오며 본회 내에도 적+자회가 조직되어 지금 연습공부하는 중이올시다. 우리 대한부인회 가운데 적+자회가 심히 필요한 것은 임의 짐작하시오 여기 대하여 경영이 많은 줄 아오며 귀회의 진행 방침을 비회에 통지하여 서로 연락하는 때에 많은 유익과 도움이 차에 있을 줄 확신하오고 귀회의 의향을 듣기 바라나이다. 대한민국 元(1919)年 6월 일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장 김순애(『新韓民報』 1919년 8월 14일).

27) “도산선생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나성과 다뉴바에서 여성들을 격려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무어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창단의 산파역을 해주었으며 송종익, 홍언, 백일규씨의 도움이 컸다고 회상했다. (대한여자애국단 초대단장 金惠園 여사, p. 43 ; 「대한여자애국단 초대단장 金惠園 여사」, 민병용, 『美洲移民 100年-초기인맥을 껴다-』 한국일보사 출판국, 1986 p. 43)

기인하여 개인으로부터 가정애, 가정으로부터 사회로의 개량을 힘쓰며, 대한 독립의 기초적 역량을 준비함과 힘쓰에 있음'으로 장정을 수정했다.

1919년 3.1독립운동 소식이 하와이에 알려지자, 3월 15일 한인사회의 여성들은 각 지방 여성 대표자 41명이 호놀룰루에 회집하여 공동대회를 열고 조국 독립 운동 후원을 목적으로 한 대한부인구제회 결성을 결의했다. 그리고 동 3월 29일에 제2차 대회에서 부녀사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회의 지도를 받아 조국독립운동과 외교선전 후원 사업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²⁸⁾ 이와 같이 부녀공동대회 결의에 의해 1919년 4월 1일 대한부인구제회를 결성했다.

회의 제정은 회원으로부터 회비 2달러 50센트씩 매년 수봉하여 경상비에 쓰고 사업 경비는 특별 의연금에 의하였는데, 그 모두가 부녀들이 가정 살림을 절약하여 애국 사업에 바친 것으로 그 액수가 20만 달러를 넘었다. 구제회의 사업은 광범위하여 임시정부와 외교선전 사업과 만주에서 활동한 무장 항일 독립운동 단체와 충청 한국광복군 편성을 위한 후원금도 보냈다. 이상은 주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송금이었으며, 구제 사업으로 3.1운동 때 사상을 입은 애국지사의 가족들에게도 구제금 1천 5백달러를 보냈으며 국내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YMCA와 동아-조선일보사를 통하여 의연금을 보냈었다. 대한부인구제회는 30여년간 꾸준히 조국광복 운동을 후원하고 재미 한인 사회 건설과 구제 사업에 한결같이 봉사하고 있었다.²⁹⁾

2) 북미 대한여자애국단 결성과 독립운동 지원

3.1운동 발발 소식이 미주에 전달되자 당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도산 안창호는 독립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하고 “거룩한 3월 1일에 대한민족 전체를 단결한 조선독립국민단이 선언한 바, 조선독립선언서와 공약삼장을 동월동일에 대한인국민회가 선언함으로 결의합임을 선포하며 동시에 조선독립국민단 대표 33인원은 대한인국민회의 동일한 대표임을 공포”했다.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전역과 멕시코 각 지방에까지 전보를 발송해 독립선언의 소식을 한인사회에 전파했다. 3월 13일에 긴급히 위원회를 개최한 중앙총회는 미주 한인들은 전세계에 한국의 사정을 전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과 전 동포사회가 독립전쟁 준비에 단결해 줄 것과, 특히 북미하와이,멕시코 재류동포들이 재정공급과 선전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결의하였다. 15일에는 재미동포전체대표자대회를 소집해 중앙총회장의 명의로 결의안과 포고문을 발표하였다.³⁰⁾ 이에

28) ① 조국 독립 운동 후원의 목적으로 하와이 각 지방의 한국 부녀를 규합하여 대한부인구제회를 설립하고 부녀 사회의 운동 역량을 이에 집중함. ② 대한부인구제회는 조국독립 운동에 대하여 부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봉사하되 우선 독립운동 후원금 모집에 착수할 것이며 항일 군사운동이 있을 경우에 출정군인 구호 사업의 준비로 적십자 임무를 연습하며 재난 동포 구제에 노력함 ③ 조국 독립운동과 외교 선전에 대한 후원 방침에 대한민국 국민회 지도에 따라 진행하기로 함.

29) 1928년 9월 27일, 이승만과 영남 출신 이극로와의 충돌로 인해 부인계도 영남 출신 부인들이 따로 영남부인회를 설립하였다. 후에 그 명칭을 영남부인실업동맹회라고 고쳤다.

30) 당시 13개조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재미 한인 독립운동 응원의 일체 행사는 전체 대표회 결의에 의하여

의거해 필라델피아에 외교통신부가 설치(임시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통신부로 개칭)되었고 북미·하와이·멕시코 각 지방에 특별위원을 파견해 전 교포사회에서 독립의연금 모금운동이 시작되었다.³¹⁾

도산 안창호는 대한인국민회 전체회의에서 원동 대표로 선정되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파견하기로 결정되었다. 상해로 떠나기 전, 안창호는 각자 활동 중이던 각 지방의 부인회에게 전 여성이 일치된 조직에서 일치된 활동을 해 줄 것을 권면했다.³²⁾ 안창호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미주 여성들은 임시정부 지원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역할로 간주하고 독립의연금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상해 대한여자애국단과의 연대를 모색했다.³³⁾

미주의 애국부인회 회원 대부분은 상해 대한적십자회가 출범했을 때, 상해 대한여자애국단과 연락하고 국내에서 비밀결사로 결성된 대한적십자회와 여자애국단과 조직적인 연대를 꾀하며 공동의 활동을 펼치고자 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연통제·교통국 연락망이 발각되고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면서 어렵게 구축된 적십자회 조직도 소멸되고 말았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상해로 망명한 김마리아와 차경신은 미국으로 유학해 김마리아는 학업에 열중하였고 차경신은 주로 샌프란시스코 국어학교의 교사로 복무하며 교육에 열중하였다.

미주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애국부인회와도 긴밀한 연락을 가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전달할 2천원의 군자금을 송금받았다. 국내외에서 모집해 상해임정에 보낸 군자금만도 활동한 달 만인 11월까지 6천원이나 됐으니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 수 있다.

192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민족의 실력 양성에 있다 하여 독립운동도 민족 문화·민족 역량 향상 운동으로 변형되어 갔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국외 항일 투쟁자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대한여자애국단도 1924년 8월에 장정을 수정하여 '본단의 목적은 대한 여자를 단결하고

이행하며 그 행정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 일임한다는 것과 서재필을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며 필라델피아에 외교통신부를 설치하고 경비는 매월 8백불씩을 지급하며 원동에 대표를 파송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봉사하게 하고 미주와 하와이 각 지방에 특파원을 파송하여 민중 여론을 수습하고 의사를 연락하여서 행동일치를 도모한다 등이었다.

31) 이들 모금된 독립의연금으로 파리강화회의의 대표단 소요경비로 3,500달러를 송부하였으며 3월 29일에 중앙총회장인 도산의 명의로 윌슨 대통령과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중국 등 5국 대사에게 김규식의 출석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2) 이제까지 대한여자애국단을 처음으로 정리한 것은 김운하의 『大韓女子愛國團史』(대한여자애국단신한민보사 발행, 1979)이다. 저자 김운하는 초대 애국단장인 김혜원의 아들이다. 백일규가 애국단의 역사를 정리했으나 탈고하지 못하고 서거했으며 이 책은 백일규가 정리한 자료와 원고를 근거로 기록된 것이다. 연구논문으로는 박용옥, 「미주한인여성단체의 광복운동 지원 연구 - 대한여자애국단을 중심으로」(『震檀學報』 78, 1994)가 유일하다.

33) "도산선생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나성과 다뉴바에서 여성들을 격려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무어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창단의 산파역을 해주었으며 송종익, 홍언, 백일규씨의 도움이 컸다고 회상했다. (대한여자애국단 초대단장 金惠園 여사, p. 43; 「대한여자애국단 초대단장 金惠園 여사」, 민병용, 『美洲移民 100年-초기인맥을 꺾다-』 한국일보사 출판국, 1986 p. 43)

문화 준칙과 도덕 원리에 기인하여 개인으로부터 가정, 가정으로부터 사회로의 개량을 힘쓰며, 대한 독립의 기초적 역량을 준비함과 힘쓰에 있음' 이라고 그 목적을 설정했다.

당시 재미동포는 약 8천 명 가량이었다. 대부분은 고된 노동을 하는 농장노동자들로 한 달에 30-35달러 정도를 벌여 근근이 생활했다. 대한여자애국단원들은 임시정부에 보낸 독립자금을 보내기 위해 빈한한 생활 중에서 절용하며 당시 1시간에 15센트의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절, 한인 부녀자들은 가정보다 조국을 위해서 매월 애국금으로 3달러를 기꺼이 내었다.³⁴⁾ 이 돈으로 상해임시정부, 워싱턴 구미 외교부, 신한민보 등에 후원금을 냈다.

1919년도 대한인국민회의 재정 결산서의 수입금 명세내용을 보면 대표의연, 독립의연, 二十一例金³⁵⁾, 애국금, 공채금, 인구세 등의 명세항목에서 의무금과 의연금 모금에 여성들은 적극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활하기에도 빠듯했으나 한인들은 교회와 학교를 지원했으며 대한인국민회에 인두세 및 각종 명목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연금은 물론 독립의연금을 모금하는데 큰 역량을 발휘했다. 대한인국민회를 지도했던 이들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커짐에 따라 가정에는 그만큼 소홀하기 마련이다. 대한인국민회의 지도자 안창호의 가족도 보면,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부인 이해련은 미국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기도 하고 백인 집에서 세탁물을 받아 빨래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돈벌어서 가족을 생계를 책임졌다. 경제 방면에서 볼 때, 재미 한인 여성들의 처지는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여자애국단은 여성들의 독자적인 정치공간이기도 했다. 역대 대한여자애국단 단장은 김혜원, 한성신, 강원신, 황보석, 양제현, 임메불, 이해련, 박경신, 이화목 등이었다.

5. 1920년대 이후의 여성운동

대한여자애국단원들은 고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YMCA와 동아일보사·조선일보사를 통해 구제금을 보냈다. 특히 독립의연금을 모금하는데 큰 역량을 발휘했다.

생활의 곤궁함 속에서도 한인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2세들에게는 미국사회의 적응보다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을 중요시 하였다. 재미여성들은 “국어는 그 나라의 정신이며 영혼이니 국어가 있고 국권이 없으면 그 국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국권이 있고 국어가 없으면 그 국권을 보존하기 어려운 법이라³⁶⁾”며 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와이와 북미를 비롯해 멕시코 등지에 까지, 한인사회가 형성된 곳에는 어디든지 국어학교를 설립해 운영을 지원하였다. 재미한인사회는 의무적으로 국어, 한국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잊지 않도록 하는 민족교육

34) “농장에서 일하는 부인들은 시간당 15센트씩 받았지만 애국금은 매월 3달러씩 냈어요”(대한여자애국단 초대단장 金惠園 女사, 같은 글, p. 42).

35) 二十一例金은 통상 수입의 20/1을 납부케 하는 의무금이다.

36) 『新韓民報』 1914. 11. 12.

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고자 하였다. 매해 31독립기념일과 경술국치기념일 등 한인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는 날에는 여성들에 의해 다양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망국의 현실에서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민족공동체를 건진 하기에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은 여성들의 몫이자 힘이었다.

미주의 대한여자애국단은 국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1932년 6월 동아일보에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당인 현충사를 중건하기 위한 성금을 모금한다는 소식에 대한인국민회를 거쳐 성금을 한국으로 보냈다.³⁷⁾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하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여자애국단은 후방에서 적극적으로 반일 전쟁을 지원했다. 재미여성들은 미국적십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적십자사에 전쟁 구호로 구제품을 보내는 일에 열심히 참가했고 미국적십자사 휘장과 우표전쟁 공채 등을 판매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방 사업에 앞장서서 공헌하였다. 당시 대한애국부인회는 헐리웃, 페시디아, 퍼싱스퀘어 등지에서 50만 달러어치의 국채를 판매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³⁸⁾

6. 맺음말

식민지시대 한국여성은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고 스스로 자유와 민주주의 역사를 써내려간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다. 여성을 억압했던 봉건적 인습을 벗어던지고 식민지 탄압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다.

여성운동이 대중적으로 꽃을 피우게 된 계기는 3.1운동이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데 여학생들의 활약이 큰 동력이 되었다.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자신을 여성으로서가 아닌 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국민의식을 깊이 자각하고 민족해방의 대열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3.1운동으로 여성들은 서로서로를 일깨우고 협동하여 나라와 겨레를 구하는 일에 동참했으며 조국 독립운동의 일원이 되어 스스로 자유의 권리와 인간 평등의 권한을 성취하고자 했다.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종속된 여자이기를 강요받았지만 스스로는 사회적 존재이기를 원했고 남성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이 아닌 인간적이고 인류애적인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다.

전근대사회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권력지향적인 남성의 역사가 正史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의 그늘 속에 잊혀지고 지워져 여성사는 정당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37) 차경수, 『호박꽃 나라사랑』 p.131.

38) 대한여자애국단은 1945년 12월 31일 미국 재무성으로부터 감사장과 메달을 받았다. (차경수, 『호박꽃 나라사랑』 p.129, p.137)

대립 갈등 보다는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조화를 꾀하고 협동을 추구하는 공정함과 위대함을 보여준다. 수동적인 여자가기를 강요받았지만 여성은 사회적 존재, 독립적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했기에 남성들의 정치적 지향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인간적이고 인류애적인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사의 수준과 지평을 넓혀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망국의 현실에서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 한국문화를 보존하고자 힘을 쓰며 건전한 민족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³⁹⁾

3.1운동은 여성을 억압했던 봉건적 인습을 벗어던져버리고 식민지 탄압으로부터 자기 해방은 물론 조국과 민족 구원의 의무를 함께 짊어지고 여성운동이 대중운동으로 꽃을 피우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이후 여성들은 남녀동등의 권리를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내면에 의식으로 정착하며 자아를 발견하였고 서로서로를 일깨우며 실력양성에 매진하는 한편, 안으로 가정 살림을 물론 자녀양육을 책임졌으며 나라와 겨레를 구하는 일에 동참했다. 3.1운동 과정에서 출범한 각지의 여자에국단과 대한민국의여자에국단의 통합의 과정과 상해와 미주에서의 대한여자에국단원들이 걸은 발자취는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고 스스로 자유와 민주의 역사를 써나간 한국 근대 역사 주인공들의 위대한 여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외로 나간 여성들은 고된 이민생활 속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었음은 눈앞의 개인적인 이익에 연연하기 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 높은 이상의 추구였다. 그리고 모국과 민족의 장래와 미래 세대를 먼저 생각하며 후대에 더 나은 세상을 전해주고자 했던 여성들이 비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인여성들이 추구했던 3.1정신과 독립정신이 오늘날 미주 한인들의 위대한 유산으로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39) 1920년대 후반 한국에서 신간회와 근우회 등 민족전선통일운동에 참가했던 여성들은 단일전선통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1930년대 들어와 일제가 대륙침략을 강행하고 황민화정책으로 민족말살에 나서자 국외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해외로 망명해 중국 동북지역에서 항일유격대에 참여하며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 이청천 장군의 부인 이성실, 신채호의 부인 박자혜 여사 모두는 3.1운동에 참여하면서 독립항쟁의 전선에 투신하여 부인회나 여자에국단 등을 조직하고 '전 한국 부녀 단결, 민족 혁명 전선 무장 참가' 등을 외치며 부녀자의 각성과 단결을 도모했다. 1938년에 결성된 조선의용대는 부대 안에 부녀대를 두었고 여자독립군들은 조국 해방의 임무를 수행하며 항일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발표2

중국 상해지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

김 성 은 (대구한의대 교수)

중국 상해지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

김 성 은 (대구한의대 교수)

1. 머리말

일제강점기 한국여성은 국내외에서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본고에서는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주요 여성단체 조직 및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독립운동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활동했던 여성독립운동가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순애(일명 김문숙)가 있다. 김순애는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회장 및 중경 한국애국부인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후원하며, 교포여성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중심인물이었다. 정신여학교 졸업 후 부산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김순애는 하숙집에 역사책을 감추어두고 주위의 눈을 피해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민족정신을 불어넣어주고자 했다. 그러다 일본인 교사에게 발각되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오빠 장필순(독립운동가, 의사)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였다. 이후 남경에서 형부 서병호(독립운동가)의 소개로 독립운동가 김규식과 결혼하였다. 결혼 직후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파견되어 프랑스로 떠나고, 김순애는 서병호, 이화숙, 백담규 등과 함께 국내로 들어왔다.¹⁾ 한국민족의 독립을 청원하는 목적을 띠고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김규식에게 힘을 실어주도록 국내의 만세시위 쉼기를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국내에서 김마리아, 김필레, 백신영, 김경희 등 여러 주요 여성인물들과 접촉하며 활동하다가 오빠가 있는 만주를 거쳐 상해로 귀환하였다.

2.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상해 대한애국부인회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직후, 임시정부 산하 여성단체로 1919년 4월 11일에 창립되었다. 창립과정에서 김순애의 활약이 컸다.

국내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상해로 돌아온 김순애는 독립운동에 여성들도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로 1919년 4월 11일 이화숙, 이선실, 강천복, 박인선, 오의순 등과 함께 ‘대한애국부인회’를

1)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신구문화사, 1974, 54쪽.

창립하고 회장에 피임되었다. 6월 즈음 대한애국부인회의 회원 수는 60여명으로 확대되었고, 적십자회를 조직하여 적십자 활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한편 3.1운동 이후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애국부인회가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십자회까지 조직된 곳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부인회와 연계해 여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회장 김순애 명의로 교민간의 친목과 정보 교환, 출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한을 작성해, 국내외 각지에 설립된 애국부인회에 보냈다.²⁾ 미주 여자애국단에 보냈던 편지가 남아있는데³⁾ 이를 보면 미국에 있는 한국여성독립단체와 연대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919년 9월 상해 조계지 내 빈창로 어양리 2호에서 ‘대한애국부인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김순애의 뒤를 이어 이화숙이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이 되어 대한애국부인회를 이끌었다. 회장 이화숙, 부회장 김원경, 총무 이선실, 서기 이봉순·강현석, 회계 이메리·이교신, 출판부 조숙경, 교제부 강천복·박인선·이메리, 사찰부 윤숙경·홍관성으로 구성되었다.⁴⁾ 대한애국부인회 조직 초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순애는 대한애국부인회 집사장으로서 측면 지원을 담당했다. 새로 회장이 된 이화숙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고등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 대학과(오늘날의 대학과정) 제1회 졸업생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1919년 3.1운동 이전에 중국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여성의 만세시위 궤기를 촉구하기 위해 김순애와 함께 국내에 잠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화숙은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으로서, 1919년 10월 31일 ‘임시정부의 선언서 및 공약 3장’을 발표할 때 대한민족대표 30명 가운데 여성대표로 함께 하였다.⁵⁾ 11월 3일 임시정부 국무원들의 취임식의 내빈으로 참석해 독창으로 식을 축하하기도 하였다.⁶⁾

1920년 1월에는 대한애국부인회 주최로 고인이 된 하란사, 김경희, 이인순 3명의 애국여성에 대한 추도회를 강녕리 대한인거류민단 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대한애국부인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고 내빈으로 노동국 총변 안창호, 국무원 비서장 김립, 재무차장 윤현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애국부인회 회장 이화숙이 개회사를, 김순애가 김경희 여사의 약력을, 김원경이 이인순 여사(이동휘의 장녀)의 약력을, 이화숙이 하란사(이화학당 총교사, 사감) 여사의 약력을 낭독하였다. 하란사, 김경희, 이인순은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회원들과 간부들이 지향하는 애국여성상이자 선진적 여성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학교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교사로 활동하는 한편, 여성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에

2) 최은희, 『조국을 찾아가는: 1905-1945 한국여성 활동비화』, 257~258쪽; 강영심, 「김순애(1889년~1976년)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3, 2012, 20쪽.
 3) 『신한민보』 1919년 8월 14일자, 「상해여자애국단이 미주 여자애국단에게」.
 4)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이화사학연구』 30, 2003, 348쪽.
 5)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2).
 6) ‘임시정부 신내각 성립시의 국무원 임명건’,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2).

헌신했던 인물들이었다. 일생동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대교육과 조국독립에 대한 열정을 여성들에게 전파하며, 조국독립과 여성계몽을 자각하고 실천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이었다. 애국여성 추도회는 대한애국부인회 회원들이 독립운동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⁷⁾

1920년 3월 8일부터 김순애, 김원경(당시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회장), 김연실은 중국청년남녀에게 한국문제와 한중관계를 가지고 총 7회의 연설을 실시했다. 중국어(한어)와 영어에 능한 김순애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두드러져, 중국청년여자계에 한국의 상황과 한국인의 처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김순애, 김원경, 김연실은 중국학생들에게 연설과 함께 《신한청년》을 판매하여 한국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알리면서 판매 수익도 거둘 수 있었다.

대한애국부인회에서는 각지의 부인계와 연락하여 독립운동을 크게 전개하고자 했으나, 이에 필요한 재정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회원들은 가무극연주회를 개최하고 1원의 입장권을 발매하여, 그 수입으로 대한애국부인회 활동비를 충당하였다. 또한 독립운동 경비를 마련하고자 지수제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헌납하고, 이를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1925년경에는 현마리아(현순의 딸)가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상해에 온 천진 대한애국부인회 간부들과 여러 날 동안 회견하고 조선 안의 여성계에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자 밀사를 보내기로 하고 여러 대의 선전반을 조직·파견했다.⁸⁾

3. 대한적십자회 및 인성학교 지원활동

여성독립운동가들은 대한애국부인회 회원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항일독립전쟁에도 대비하여 1919년 7월 이회경, 김성겸, 서병호, 여운형 등과 함께 대한적십자사를 재건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독립전쟁으로 인한 전상병의 구호'를 목적으로 재건된 구호단체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조직이었다.

대한적십자사 임원진은 회장 이회경, 부회장 김성겸, 이사 여운홍, 사감(감사) 김창세, 김순애, 안정근, 상의원 이광수, 손정도, 정인파, 고일청, 김철, 현순, 김홍서, 이춘식, 옥성빈, 김태연, 이화숙, 김한, 원세훈, 김보연, 오의선, 이기룡, 장건상, 서병호, 강태동, 김병조로 구성되었다.⁹⁾ 대한적십자사 여성회원으로는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던 김순애, 이화숙, 오의

7) 『독립신문』 1920년 1월 22일자, 「삼 애국여사의 추도회」.

8) 『독립운동사자료집』 14(대중투쟁사 자료집).

9) 『신한민보』 1919년 9월 6일자.

선, 이신실, 김원경, 이봉순 등이 활동하였다. 이 여성들은 상해 대한적십자회 회원 대표의 일원으로서 ‘대한적십자회 재건선언문’ 발표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¹⁰⁾

김원경은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면학을 명분으로 상해로 건너가 프랑스 조계에서 거주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당시 상해 독립운동계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앞두고 청년외교 단원이었던 이병철을 국내로 파견하여 부인회 대표를 상해로 파견해줄 것을 국내 여성계에 요청했다. 국내로 들어온 이병철은 김원경을 도와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회장 김원경)를 조직하는 한편, 부인회 대표로서 김원경을 상해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후 혈성부인회와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가 통합되어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고문 이병철, 총재 오현관, 회장 오현주)가 되었다가 이름이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로 변경되었다.¹¹⁾ 이러한 연고로 김원경은 1919년 상해로 건너가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원경은 고려공산당 여자청년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1년 러시아 모스크바(露京莫斯科)에서 국제공산당대회가 열렸을 때 김규식, 여운형 등과 함께 상해로부터 모스크바로 파견되었다.¹²⁾ 1922년에는 김원경, 권애라가 모스크바 극동인민대표대회에 대표로 파견되었다.¹³⁾ 1930년 결산안 제출과정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 김원경의 활동은 꾸준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대한적십자회 회장 이회경은 경성에 대한적십자회 총 지부를 설치하고 동지를 규합하고자, 통신원 이종욱, 신한청년단 총무이자 애국부인회 고문을 맡고 있던 이병철을 국내에 파견하였다. 이병철은 적십자 간사 겸 명예회원으로서 각 도에 적십자회 지부를 설치하고 의연금 모집을 위한 역원(役員)을 임명하고 적십자회 선언서 500매를 나누어주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 때 대한적십자회 회원 김원경도 상해에서 경성으로 파견되어 이병철 등과 함께 활동했다.¹⁵⁾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적십자회 지회 조직과 의연금 모집을 요청받은 국내 여성계에서는 독립운동을 목표로 조직된 기존의 부인회들을 통합하고 적십자회 조직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로 재건하고 김마리아를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독립전쟁에 대비해 기존의 조직에 적십자회를 추가하고 간호사들을 대거 참여시켜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여성독립운동단체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상해에서부터 밀파된 독립운동가들이 전달하는 새 소식, 독립전쟁에 대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대한적십자사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대한적십자회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선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할 독립전쟁이 발발할

10) 대한제국 때 대한적십자사가 조직되었으나 한일병합으로 국권이 상실되면서 일본적십자회와 합병되어 없어진 것을 다시 복원하였다는 의미로 “대한적십자회 재건”이라고 표현하였다.

11) 이옥수, 『한국근세여성사화』 상, 규문각, 1985, 283쪽.

12) 류광렬, 「상해와 조선인」, 『동광』 31, 1932;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용의조선인명부』); 「상해에서의 공산당의 상황」, 『해외항일운동자료-선인과 과격파(1915-1926)』.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479쪽.

1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1) 대한민국 12년 11월 18일.

15) 『고등경찰요사』, 192~195쪽,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 3), 국사편찬위원회.

경우 생겨날 부상자와 병자를 구호할 수 있는 병원의 설립과 간호사 양성이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을 많이 모집하고 회원들에게서 회비를 많이 모금하는 것이 필요했다. 1919년 대한적십자회는 회원들을 자유대, 독립대, 십자대, 삼일대로 나누어 대장을 임명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회원 모집 경쟁을 벌여 각 대원의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다득점자에게 시상하며 적십자회 회원 모집을 독려했다. 김원경, 이메리, 이화숙 등 여성대원들도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¹⁶⁾

1920년 1월에는 대한적십자회 부설기관으로 간호원양성소를 설립하여 독립전쟁에 대비한 간호인력 양성을 시작하였다. 《신한민보》(1920.4.16.)에 게재된 ‘상해 대한적십자회 간호부양성소’ 사진은 여성회원들의 활동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신한민보》는 미주에서 발행되어 교민들에게 배포되었던 한글신문으로 “대한적십자회 본부에서 활동하며 재중동포를 위한 학교교육에도 애쓰고 있는” 김순애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¹⁷⁾ 1920년에 상해대한인거류민단 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본구의원으로 김순애, 서구의원으로 김원경이 당선되었다. 그러데 김순애의 득표가 김구, 여운형, 이광수, 최창식 등보다 조금 많이 나온 점으로 미루어 상해 교민들 사이에 김순애에 대한 인지도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¹⁸⁾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에서는 교민 2세의 교육을 중시하여 정애경, 김연실 등 회원들이 ‘인성학교’ 교사로 복무하며 구국교육을 담당했다. 이화숙은 학교에서 남경으로 수학여행을 갈 때 학생들을 인솔하기도 했다.¹⁹⁾ 김순애는 인성학교 유지원으로서 인성학교의 교사 건축비와 기본금 모집을 위한 취지서 발표에 동참하는 등 인성학교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1920년 상해로 건너온 권기옥(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 독립운동가)도 인성학교 교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²⁰⁾ 인성학교는 일제강점기 상해에 거주하던 한국인 자녀의 초등교육을 전담하던 교육기관이다. 1917년 2월, 상해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교회 소속의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 1919년 6월, 교민친목회에서 인수해 1920년, 한국인의 의무교육 실시를 목표로 한 모범학교로써 상해 ‘대한인거류민단’ 소속의 공립학교가 되었다. 인성학교 출신 여학생 가운데는 해방 후 김규식이 주도하는 민족자주동맹 산하의 자주여성동맹(고문 김순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김규식을 따라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북행(1948년)에 함께 했던 ‘김일사’라는 인물이 있었다.²¹⁾

16) 대한민국 임시정부 편, 『독립신문』 1919년 11월 27일, 12월 27일자.

17) 『신한민보』 1920년 5월 28일자.

18) 대정9(1920) 10.16 高警 제32824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3) 김순애 29표, 김구 27표, 여운형, 이광수, 최창식 26표; 『조선민족운동연감』, 1920.11.9 (『일제참략하 한국 36년사』).

19) 『독립신문』 1920년 1월 10일, 3월 25일자.

20) 지나츠크의 선인에 대한 군사교육에 관한 건(고경 제3642호).

21) 『동아일보』 1971년 10월 26일자.

4. 국민대표회의와 여성독립운동가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이동회의 사임, 5월 12일 노동국 총판 안창호 등 주요 국무위원의 사퇴, 같은 해 5월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하와이로 돌아감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해 갔다. 독립운동계에 임시정부를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독립운동의 최고 통솔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이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안창호는 노동국 총판을 사퇴한 1921년 5월 12일, 상하이 3·1당에서 열린 유호(留滬, 상해)동포 연설회에서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그 축성기관으로 ‘국민대표회기성회’를 발기했다. 6월 6일 정식으로 국민대표회기성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국민대표회의의 소집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1921년 여름, 상해에서 조직된 국민대표회기성회에서는 위원 30인을 선거해 준비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즈음 태평양회의의 개최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상해는 물론 만주·노령·미주 등의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태평양회의’에 참여했다. 이에 대항해 1922년 1월부터 모스크바에서 ‘극동피압박민족대회(극동인민대표회의)’가 개최되어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1922년 2월 초 두 회의가 한국독립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나자, 국민대표회의의 개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²²⁾ 1922년 4월 20일 오후 7시 30분 모이당(慕爾堂)에서 총회가 개최되어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하고 결원된 위원을 보선했다. 이때 김순애가 ‘국민대표회기성회’ 신입위원으로 선출되었다.²³⁾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과 위상을 고민하며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 1월 31일 오후 2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의 개막식에서는 김마리아(김순애의 조카, 국내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 회장)가 참석해 개막연설을 했다.²⁴⁾ 개회식에서는 국민대표회의의 주최로 ‘순국선열을 위한 추도제’가 거행되었다. 김순애, 정학수 여사가 추도가를 병창해 추도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국민대표회의에는 김순애, 김마리아, 정학수, 윤보민 등 각지 여성계 대표들도 참석해서 활동했다. 김마리아는 국내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 대표 자격으로, 김순애는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연해주 소녀단 대표 정학수, 연해주 애국부인회 대표 윤보민도 참석했다.²⁵⁾

김마리아는 김순애의 조카이며, 첫째 오빠 김윤방(아버지의 첫째 부인 소생)의 막내딸이었다. 1919년 3.1운동으로 투옥되었고, 출옥 후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를 재건하고 회장으로 추대되었

22) 김마리아,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채순희 사무관.

23) 『독립신문』 1922년 5월 6일자, 「국민대표회 기성회총회 소집」. 尹●海, 金科奉, 鄭光好, 白南俊 千世憲, 南公善, 張德震, 羅●愚, 김순애.

24) 『독립신문』 대한민국5(1923) 2월 7일자;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2).

25) 『독립신문』 대한민국4(1922) 11월 8일자;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2).

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조직 확대 작업에 들어가, 서울, 대구를 비롯하여 부산, 전주, 진주, 평양, 원산 등 남북한 15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였고, 2,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국권회복을 목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략으로,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그 해 11월까지 6,000원의 군자금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성과를 올렸다. 조직원의 배신으로 11월 28일 김마리아를 비롯한 임원진 등 52명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대구의 경상북도 경찰국으로 압송되었다. 대구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아 1921년 6월 21일 경성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회장 김마리아는 여성 독립운동의 핵심인물로 지목되어 일본경찰의 고문과 악형을 당했다. 병보석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으면서 중국 망명을 계획했고, 1921년 7월 10일 동지와 선교사의 도움으로 탈출해, 약 1개월 간의 여행 끝에 8월 초 중국 상해에 도착했다. 김마리아는 상해에서 첫째 고모 김구례(서병호의 부인), 셋째 고모 김순애(김규식의 부인)의 도움으로 고문 후유증을 치료하며 건강 회복에 힘썼다. 몸이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 애국부인회에서는 김마리아의 건강상태로 인해 환영회를 연기하다가 11월 25일에야 비로소 환영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 기간에도 몸이 심하게 아파 양한나(의정원 경상도 대의원)의 거처 침대에 누워 심하게 앓았을 정도였다.²⁶⁾

김마리아는 우리 동포를 구하는 길이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남경 금릉대학(성경사범학교)에 입학해 일본에서 못 다한 공부를 계속하였다.²⁷⁾ 1922년 2월 18일 제10회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황해도 선출의원으로 임명되었으나, ‘의원이 무고히 개회 후 7일까지 등원치 않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의정원법 제8조에 따라 의원 자격을 상실하였다.²⁸⁾ 김마리아가 의정원 의원으로 임명되었으나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의정원 의원은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주목할 점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여성들이 의정원 의원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마리아가 황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양한나가 경상도 대의원으로 활동한데 이어, 최혜순이 의정원 회의에서 전라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1931년 12월). 그러나 최혜순은 1년 뒤 1932년에 스스로 의정원 의원을 사직했다.²⁹⁾

양한나는 부산 동래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산 일신여학교 고등과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한 뒤 마산 의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학교에서 일본 왕 즉위를 기념해 떡을 돌리자

26) 박용욱, 『김마리아』, 흥성사, 2003, 287-298쪽.

27) 김마리아,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채순희 사무관.

28) 『독립신문』 대한민국 4(1922) 3.1 / 3.31,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2) : 회의 제4일 2.28

29) 제23회 의회회의록(2),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회의록(대한민국13-19년,1931-193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1); 「국무위원 의원 보선 관계 서류(대한민국 12-21,1930-193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1); 제25회 의회 회의록,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회의록(대한민국13-19년,1931-193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1).

먹을 이유가 없다며 학생들에게 항일의식을 심어주었다. 1917년 일본에 건너가 요코하마신학교에서 수학하며 영친왕 이은의 정략결혼 반대 운동을 벌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쑤저우여자사범대학[蘇州女子師範大學]에 학적을 두고 독립운동을 하였다. 이 때 안창호가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내 나라를 길이 보존하도록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호적 이름 귀념(貴念)을 한나(漢拿)로 개명하여 주었다고 한다. 1922년 임시정부 특사로 밀입국하던 중 잡혔으나 곧 석방되었다. 이듬해인 1923년 다시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였다.³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경상도 대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파의 입장을 취했다.³¹⁾

국민대표회의에서는 기존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독립운동의 최고 영도기관을 재창출하자는 창조파(創造派)와 현재의 임시정부를 확대 개편하자는 개조파(改造派)로 나뉘어 논쟁이 거듭되었다. 이 논쟁에서 김순애는 창조파였던 반면, 김마리아, 양한나와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다수 회원들은 개조론을 견지했다.³²⁾ 김순애는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대표로 국민대표회의에 파견되었음에도,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의 공론인 개조론에 따르지 않고 창조론을 지지했다. 이에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에서는 임시총회를 열어 국민대표회의에 파견할 자신들의 대표를 김순애에서 오의순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을 거쳐 결국 대표를 바꾸기로 가결하고, 자격심사위원의 보고 후 김순애를 대표에서 사면시키고 오의순을 후계 대표로 선출, 인준하였다.³³⁾ 이로써 상해 대한애국부인회는 오의순이 대표가 되어 개조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³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미래와 독립운동 방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상해 한국여성계 다수가 임시정부를 옹호하며 개조론을 지지했다. 그러나 김순애는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직 사임을 각오하면서도 창조론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국민대표회의에서는 대표들이 모여 시국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애국부인회 대표로 참석했던 김순애와 김마리아도 각자 발언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마리아는 3월 8일 국민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고수하고 유지할 것(개조론)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³⁵⁾

... 국내의 일반 인민은 상해에서 정부가 설립되었단 말을 듣고 소수인의 조직이거나

30) 이송희, 「양한나(1893-1976)의 삶과 활동에 관한 일고찰」 『여성연구논집』 13, 2002, 9쪽.

3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 5, 高警 제1350호, 上海情報, 발신자 朝鮮總督府 警務局, 수신자 亞細亞局, 발신일 1923년 04월 28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 5, 高警 제1505호, 上海情報, 발신일 1923년 5월 8일, 발신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수신자 아세아국 외무차관;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32) 『동아일보』 1923년 6월 25일자;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3).

33) 『독립신문』 1923년 5월 2일자, 「국민대표회의의 기사」.

34) 『독립신문』 1923년 4월 4일자, 「부인회 대표 경질」; 『독립신문』 대한민국 5(1923) 5월 2일자: 회의 제45일(4월 11일); 『신한민보』 1923년 5월 24일자.

35) 김마리아,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채순희 사무관.

인물의 선·불선을 물문하고 다 기뻐하며 금전도 아끼지 않고 적의 악행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설혹 외지에서 정부를 반대하던 자라도 국내에 입하여 금전을 모집할 시는 정부 명을 파는 것을 보아도 국내 동포는 정부를 믿는 증거이다. 정부를 안 팔면 밥도 못 얻어먹는다. 적은 가끔 정부 몰락을 선전하여도 인민은 안 믿는다. 소수로 뒀은 혁명시의 불가면의 사요 인물은 변경할 수도 있다. 수만의 유혈로 성립되어 다수 인민이 복종하고 5년의 역사를 가진 정부를 만일 말살하면 소수는 만족할지 모르나 대다수는 슬퍼하고 외인은 의혹하겠다. 잘못된 것 있으면 개조하자.’³⁶⁾

반면, 김순애는 국민대표회의 시국문제 토론에서 창조론을 주장했다.³⁷⁾

...통일하려고 선서한 일이 장쾌하다 목적은 같으나 방법이 다르다. 나는 계통을 주장하려다가 창조라도 할까 하였다. 개조도 어렵고 창조도 어려우나 딱 기관을 또 세우면 좋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독립운동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통일 조직을 다시 창설하자는 주장이었다. 애국부인회 여성동지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김순애와 김마리아처럼 한집안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시각과 독립운동 방략에 대한 견해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국민대표회의는 6월 7일, 개조파 대표 50여명이 불참한 가운데 창조파 대표 40여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33인과 집행위원을 선정하고 폐회했다. 이에 대해 개조파는 57명 연서로 성명서를 내고 창조파의 국무위원 선정과 새 기관 조직에 반대를 표명했다. 결국 국민대표회의는 독립운동 제 세력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서로 상처만 남긴 채 끝났다. 김마리아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직후인 1923년 6월 미국으로 떠났다.

5. 한국여자구락부 및 한인여자청년동맹

1923년의 국민대표회의가 결론 없이 끝나면서, 여전히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이어갔지만 경제적 지원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 그 활동은 미미하였다.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은 고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준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자, 안창호가 나서서 임시 정부를 경제적으로 돕는 경제후원회 조직을 제안하였다.

상해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200여명은 1926년 7월 19일 삼일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6) 『독립신문』 國民代表會議記事 대한민국 5(1923) 4.4: 회의 제36일(3월8일).

37) 『독립신문』 대한민국 5(1923) 4.4: 회의 제37일(3월9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제후원회를 조직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의한 후 위원을 선출했다. 여성으로는 김순애, 조마리아(안중근의 어머니), 이의순(이동휘의 차녀, 오영선의 처)이 경제후원회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순애는 총회에서 경제후원회 위원회(위원장 안창호, 9인 위원)의 유일한 여성위원으로 선출되어 임시정부 재정 후원에 힘을 보태었다. 김순애가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시정부의 해체와 새 조직의 결성을 주장하는 창조론을 지지하였다 할지라도, 임시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실제적으로 돕는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상해 교포사회에서는 대한애국부인회 이외에 여러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1928년 상해 한국여성들 일부가 '한국여자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위원장에 김희원을 선임하고, 서무, 음악, 운동, 선전·조직의 부서를 둔 것으로 보아 좀 더 오락적인 부문을 첨가하여 호응도를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⁸⁾ 인성학교에서 제1차 대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회원은 10명이었다. 회장 김희원, 서기 이운선, 위원장 이운선, 서무부 정옥실, 운동부 김희원, 음악부 박영봉, 선전조직부 박용봉, 이운선이 간부였다.³⁹⁾ 이들은 1929년 한국여자구락부 집행위원회 이름으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며',⁴⁰⁾ '3.1운동 1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를 발행하였다.⁴¹⁾ 1929년 3.1 독립선언 기념식이 프랑스 조계 법화민국로 침례교회에서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때 한국어로 된 6종의 전단과 2종의 중국어 전단이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었는데 한국여자구락부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전단을 배포하였다.⁴²⁾

한국여자구락부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⁴³⁾

- (ㄱ) 아등은(필자 주: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을 기함
- (ㄴ) 아등은 신생활의 개척을 위해 실천적인 학술을 연구함
- (ㄷ) 아등은 정신의 수양과 신체의 단련을 도모함

강령으로 미루어 한국여자구락부는 정치적으로 독립운동과 함께 생계와 독립운동 자금을 필요한 경제력 향상도 중요시하며, 여성들의 활동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면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의순(이동휘의 차녀, 오영선의 처), 조봉원(김두봉의 처) 등은 기존의 한인부인회를 보다 급진적인 조직으로 개조해 한인여성동맹을 만들자는 논의를 했다. 그런데 상해지역 여성조직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김구 등이 중재에 나섰다. 이에 1930년 8월 16일

38) 『동아일보』 1928.5.24.,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8.

39) 『조선민족운동년감』 (1928.7.20.),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8.

40) 「출판경찰개황 - 불허가 차압 및 삭제 출판물 목록(5월분)」, 『조선출판경찰월보』 9.

41) 「출판경찰개황 - 불허가 차압 및 삭제 출판물 목록(3월분)」, 『조선출판경찰월보』 7.

42) 「상해공동조계공무국경무처 한인독립운동관계문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0(임정편 5).

43) 『조선민족운동년감』 (1925),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7.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인여자청년동맹’이 조직되었다.⁴⁴⁾ 한인여자청년동맹은 한국독립당 산하의 여성독립운동단체로 좌파 여성운동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 단체는 본래 고문제였으나 1932년 말 위원합의제로 변경되었다. 한인여자청년동맹 위원장에 김구경,⁴⁵⁾ 위원에 김순애, 연충효(엄항섭의 처, 일명 연미당), 박영봉, 이운선이 선임되었다.⁴⁶⁾ 김순애는 상해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이끌었던 인물이고, 박영봉, 이운선은 한국여자구락부를 조직해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연충효는 이때부터 독립운동 전면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로, 정정화(김가진의 며느리, 김의한의 처)와 함께 임시정부 요인들의 뒷바라지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1932년 윤봉길 의거로 독립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조직이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1933년 한인여자청년동맹에서는 ‘제14주년 3.1기념에 제하여’라는 제목으로 ‘친애하는 혁명동지 각위에게’라고 시작하는 한글 전단을 배포했다.⁴⁷⁾ 이시기 ‘혁명’은 ‘독립운동’을 의미했다.

1931년 중국 만보산사건(중국인 농부와 한국인 농부 사이에 일어난 분쟁)으로 만주에서 중국인의 한국인 배척과 일본인 배척, 국내에서 조선인의 중국인 배척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간에 적대적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에 상해 한국인들은 당시 국내에서 발생한 중국인 배척이 일본에 의해 고의적으로 사주된 것임을 중국 여론에 호소하고자 ‘한인조직연합회’를 결성했다. 한인조직연합회에는 한국혁명당, 한인거류민회, 한이자원단, 한인학생회, 한인소년단, 한인부인회, 한인애국부인회, 흥사단이 참가했는데, 여성대표로는 ‘한인부인회’의 강영파(유진동의 처), ‘한인애국부인회’의 오의순이 참가했다.⁴⁸⁾

한편 1931년 만주사변에 대하여 중국을 후원하고 일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선전 공작과 대책 협의를 위한 상해 한인 각 단체대표회의가 소집되어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를 조직하였다.⁴⁹⁾ 여성대표로 여자청년동맹 대표 연충효(엄항섭의 처), 애국부인회 대표 최혜순(김철의 처)이 참가했다. 연합회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회비 징수를 위해 상해를 3구로 나누어 애국부인회, 여자청년동맹, 독립청년동맹이 연합회 명의로 의연금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이로 미루어 여성단체들이 의연금 모금활동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⁰⁾

44) 이의순 공훈록, 1995 애국장.

45) 김윤경의 오기로 보인다. 김윤경은 1930년 상해에서 항일운동을 위해 젊은 여성들을 모아 여자청년동맹을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공훈록 참조.

46) 소화7년(1932) 12월 8일부 석사총영사발신 내전외무대신완 보고 요지 재상해 조선인 각종단체일람표 민족주의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 3); 소화9(1934) 6월 19일부 재상해 석사총영사 발신 내전외무대신완 보고적록 상해급 동관계 불령선인단체의 건, 상해 독립운동단체일람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 3).

47) 소화9(1934) 6.19부 재상해 석사총영사 발신 내전외무대신완 보고적록 상해급 동관계 불령선인단체의 건, 상해 독립운동단체일람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 3).

48) ‘만보산 사건 관련 한인 소요에 대한 임정 및 한인 단체의 성명서’, 상해공동조계공무국경무처 한인독립운동관계문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0(임정편5).

49) 논의 결과 자신들의 모임을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로 칭하고 만주사변이 해결될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했다.

50) 소화6(1931) 10.5 재상해총영사 발신 폐원외무대신완 보고 요지,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 3), 국사편찬위원회.

최혜순이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의 회계로 활동하면서, 11월부터 오의순이 애국부인회장을 이어받았다.⁵¹⁾ 1932년 애국부인회는 집사장 오의순, 집사 최서경, 최덕행, 김현숙, 정리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⁵²⁾ 1932년 2월 상해사변이 발발하자 대한애국부인회 차원에서 중국군에 사람을 파견하여 약품(옥도정기)과 탈지면 등을 전달하고 부상병을 위문했다. 1933년 3.1기념일에는 민족적 역량을 집중하여 독립운동을 완성하자는 내용의 '3.1기념'이라는 전단을 배포했고, 8.29기념일에는 '국치기념'이라는 제목의 전단을 발행·배포해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⁵³⁾

6.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금 모금의 일례

(1) 정정화의 경우

정정화(일명 정묘희)는 상해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시아버지 김가진과 남편 김의한을 찾아 나서 1920년 상해에 도착했다. 이후 해방을 맞이하여 조국에 돌아오기까지 남편과 함께 중국 망명생활을 했다. '임시정부 정청에 나가 일선에서 직접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독립운동 현장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회고처럼 그녀에게는 독립운동가 웃어른을 모시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독립운동이었다.⁵⁴⁾

1920년의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힘들게 연명하는 형편이었다.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유지되어야 했다. 때문에 정정화는 국내로 들어가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얻어 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신규식에게 의논을 했다. 친정에서 돈을 얻어 오려던 사적인 계획이 임정 법무총장 신규식의 지시에 따른 공적인 임무로 바뀌게 되었다. 임무는 자금조달이었고 상해 출발부터 국내 잠입, 상해 귀환의 모든 경로 및 절차는 임정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었다.

당시 국내 잠입 요인들이 지니고 있던 것은 국내 인사들에게 보내는 통신수단으로 한지에 백반 물로 글씨를 써 아무것도 쓰지 않은 백지 같지만 종이를 불에 갖다 쪼이면 글씨가 뚜렷하게 살아나 읽을 수 있게 된 일종의 암호 편지와 종이에 직접 글을 써서 그 종이를 노끈 꼬듯이 꼬아서 물건을 묶어 놓아 편지를 끈으로 위장한 끈 편지였다.

국내 잠입 경로는 연통제를 따랐다. 연통제는 임정 초기 국무원령 제1호로 공포되어 실시된 비밀통신연락망으로 임정 내무총장의 지휘 감독 아래 국내와의 통신 업무 및 재정 자금 조달

51) 「중국인 사건에 대한 상해 한국인 동정」,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3).

52) 소화7년(1932) 12.8부 석사총영사발신 내전외무대신환 보고 요지 재상해 조선인 각중단체일람표 민족주의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 3); 소화9(1934) 6.19부 재상해 석사총영사 발신 내전외무대신환 보고적록 상해급 동관계 불령선인단체의 건, 상해 독립운동단체일람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 3).

53) 소화9(1934) 6.19부 재상해 석사총영사 발신 내전외무대신환 보고적록 상해급 동관계 불령선인단체의 건, 상해 독립운동단체일람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 3).

54) 정정화, 『늑두꽃 - 여자독립군 정정화의 낮은 목소리』, 미완, 1987, 44쪽.

등을 위해 교통국과 함께 이원화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상해에서 안동현(지금의 단둥)까지는 영국 상인 George Show가 운영하는 이룡양행의 배를 이용했고, 안동에 도착해서는 최석순⁵⁵⁾을 만나 그의 누이동생으로 가장하여 무사히 압록강 철교를 건너 신의주에 도착했다. 신의주에 도착해서는 세창양복점을 찾아 양복점 주인인 이세창의 도움으로 서울까지 갔다. 서울에서는 서울역 건너편에 있던 세브란스병원(당시 남대문에 병원이 있었음) 관사에 있는 신규식의 조카 신필호 의사를 찾아가 그 집에서 머물렀다. 세브란스 병원이 외국인 경영이라 일본 경찰의 출입이 뜸했고 감시도 소홀해서 국내의 인사들과 연락을 취하기는 적당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 자금 모집이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1차 모금한 자금을 전대에 소지하고 열차로 서울에서 신의주로 가서 세창양복점에서 묵었다. 신의주에서 안동으로 빠져 나가는 것은 배로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밤이 되기를 기다려 3시간 정도 걸어서 강변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지만 이세창의 도움으로 안동 최석순의 집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상해행 배를 기다리는 동안 최석순 부부가 번갈아 정정화를 돌보아 주었는데 최석순의 부인 역시 독립운동가들을 숨겨 주고 도와주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동에서 이룡양행의 상해행 배를 타고 3박 4일이 지나서 상해에 도착했다.⁵⁶⁾

정정화는 상해의 악화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1921년 공적인 자금모금의 임무를 띠고 다시 국내로 잠입했는데 안동현과 신의주의 비밀거점에서 활동하던 이들 덕분에 안정하게 내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그 거점이 탄로 나는 바람에 그 경로를 다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2) 차경신의 경우

차경신은 1919년 2월 요꼬하마신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김마리아가 차경신을 찾아와 함께 한국에 돌아가 민족계몽과 독립운동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김마리아와 차경신은 부산을 거쳐 대구에 가서 상해 신한청년단에서 파견된 김순애와 서병호를 만나 장래의 일을 의논했다. 이후 김마리아와 차경신은 상해에서 온 서병호와 김순애 등 독립운동가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의 모임 이후 김순애와 김마리아는 광주로 차경신은 영천으로 갔다. 이후 차경신은 평양에서 김순애, 김경희를 다시 만나 장래의 일을 의논했다. 이로 미루어 상해에서 국내로 파견되어 독립운동을 진행하던 김순애와 이화숙, 일본 유학 중 귀국한 김마리아와 황애시덕, 그리고 김경희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차경신은 대구에서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선천에서는 신한청년단의 이름으로 회원을 모집했으며, 보성여학교 동창들을 중심으로 대한여자애국단을 조직하고 군자금을 모금했다. 전국 각지

55) 당시 안동에는 최석순이 임정의 연락 업무를 띠고 상주하고 있었고 신분보장을 위해 왜경의 형사로 있으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내왕을 도왔다.

56) 정정화, 『늑두꽃 - 여자독립군 정정화의 낮은 목소리』, 46-53쪽.

를 다니며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며 애국금을 모았는데 부녀자들은 돈 대신 은비녀, 은가락지, 은장도를 독립운동에 써달라고 내놓아 그것을 팔아 운동자금으로 보냈다.⁵⁷⁾

선천에서의 3.1운동 이후 차경신은 어머니 박신원과 함께 평안도 일대를 무대로 독립자금 모으는 일에 전념하여 만주와 상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과의 연락 책임을 맡았다. 한 번은 선교사가 운영하는 선천 미동병원에서 약 처방하는 책을 얻어 상해로 보내라는 임시정부의 명령을 받았다. 어머니 박신원이 미동병원의 의사 김학연을 찾아가 협조를 부탁하여 약 처방책을 받아왔고 차경신이 그 책을 가지고 압록강 국경을 넘어 상해임시정부에 전달했다. 차경신은 시루떡을 구해 채반 광주리에 넣고 시루떡 밑에 책을 감추고 신의주로 가서 압록강 다리의 검문을 통과해 무사히 안동(단동)에 그 책을 전달했다. 그 책 속에는 독립단들이 쓰는 암호가 있었다고 한다.⁵⁸⁾ 일경의 체포를 피해 차경신은 어린 여동생 차경수를 데리고 만주로 피신하여 어머니 없이 만주 독립단 가족들 사이에서 2년 동안 생활했다. 그러다가 만주 지역에서 일경의 습격과 정탐꾼들의 압약으로 독립단의 본부였던 만주 후투거우 지대가 점점 위험하게 되자 만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⁵⁹⁾

1920년 8월 차경신은 독립운동의 구심체인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한없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향했다.⁶⁰⁾ 그러나 이 시기 상해 임시정부의 경제적 상황은 별로 좋지 못했다. 상해에 도착해서 차경신은 당시 상해에 살던 부자 친척집에서 식모로 지냈다. 선천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쫓기어 온 남자들을 위해 음식장을 보러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기에 힘이 들었고 삼시 밥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도 밥이 넉넉지 않아 술훅이(누룽지)만 먹어서 배가 항상 고팠다고 한다. 결국 만주 산 속에서의 험한 도피생활과 상해에서 무거운 장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식모생활 등 모든 괴로움이 쌓여 늑막염에 걸려 않아 누워 고열에 시달리며 울기도 했다. 1921년 늑막염을 앓는 중에 받은 안창호의 편지는 극도로 쇠약해지고 낙심해 있던 차경신에게 새로 시작할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안창호의 주선으로 안식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퇴원하였다.

상해 망명 뒤 차경신은 도산 안창호와 임시 정부 요인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 조직과 접선하면서 계속 군자금 모금과 연락망 구축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국내의 향촌회 조직이 일경에 의해 탄로 나고 회원들이 구속됨으로써 모금운동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⁶¹⁾ 임시정부의 재정은 분국 동포들의 비밀 捐納과 미주·하와이 한인동포들의 세금 명목 상납으로 충당되었는데, 일제의

57) '애국자의 생활 - 차경신 여사의 답', 『독립신문』, 1921.1.27. 차경수, 『호박꽃 나라사랑 - 대한여자애국단 총무 차경신과 그의 가족 이야기』, 기독교문사, 1988, 36-38쪽.

58) 차경수, 『호박꽃 나라사랑 - 대한여자애국단 총무 차경신과 그의 가족 이야기』, 42-43쪽.

59) 만주 관전현 후투거우는 독립단들의 근거지로 국내외와 상해 임시정부와 통신 연락하는 본부였다. 차경수, 『호박꽃 나라사랑 - 대한여자애국단 총무 차경신과 그의 가족 이야기』, 55, 77, 93쪽.

60) '애국자의 생활 - 차경신 여사의 답', 『독립신문』, 1921.1.27. 차경수, 『호박꽃 나라사랑 - 대한여자애국단 총무 차경신과 그의 가족 이야기』, 96쪽.

61) 차경수, 『호박꽃 나라사랑 - 대한여자애국단 총무 차경신과 그의 가족 이야기』, 105쪽.

강압과 독립운동의 퇴조로 1919년보다 1920년의 액수가 감소했고 그 후 점점 더 감소하였다. 이 같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임시정부의 직무도 정지되고 아랫사람들뿐 아니라 총장·차장들 중에서도 투항하거나 귀국하는 자가 생겼다.⁶²⁾ 차경신이 상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면려청년회를 조직, 신앙을 통하여 흩어진 교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 애쓰기도 했다⁶³⁾는 회고로 미루어 당시 상해의 분위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동포 사회의 분열의 조짐과 상해 임시정부를 떠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3년 미국에 가 있던 김마리아에게서 ‘형도 미국에 오면 돈 벌어 공부할 수 있다.’는 편지를 받고 중국 국적으로 여권을 받고 하와이에 있던 여동생 경순에게 여비를 청구해 1924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건너갔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김마리아와 상봉했다.⁶⁴⁾ 이렇게 동경에서 맺은 인연이 중국 상해를 거쳐 다시 미국에서 이어졌다. 이들은 국내와 중국에서처럼 미국에서도 애국부인회 일을 주관해 독립자금 모금을 통한 독립운동을 계속해나갔다.

이순승 역시 상해 망명 독립운동가 조용원(조시원)과 결혼하여 남편을 내조하며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1930년 군자금 모집을 위해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다가 인천에서 일경에 피체되어 구류되기도 했다.⁶⁵⁾

7. 맺음말

이상에서 상해 지역 한인여성들의 독립운동단체 조직과 함께 주요 인물들의 면모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주목한 인물은 김순애,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이다. 형부와 언니, 오빠 등 가족들이 만주와 상해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형부의 소개로 독립운동가 김규식과 결혼하며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신한청년단원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여러 지역의 주요 여성인물들과 접촉하며 여성계의 만세시위를 독려했다. 상해로 귀국한 뒤에는 상해 한인여성들과 함께 대한애국부인회 조직을 주도하였다. 회장을 다른 이에게 넘긴 뒤에도 지속적으로 대한애국부인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지점은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다양한 독립운동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단체 또는 정부조직을 구성하자는, 창조론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에서 물러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대표회의가 무산되고 난 뒤에도 대한민국

62) 김구 저,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297쪽.

63) 차경수, 『호박꽃 나라사랑 - 대한여자애국단 총무 차경신과 그의 가족 이야기』, 105쪽.

64) 차경수, 『호박꽃 나라사랑 - 대한여자애국단 총무 차경신과 그의 가족 이야기』, 105-108, 115쪽.

65) 이순승 공훈록 참조.

임시정부가 어려울 때나 독립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해 한인여성독립운동계의 주축으로 활약하였다. 이에 상해 독립운동계에서 김순애의 비중 있는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상해 독립운동의 현장을 거쳐 갔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여성인물들을 조명하였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으로 국내 여성독립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김마리아는 일제에 체포, 수감 중 갖은 악형을 당하였다. 병보석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던 가운데 상해로 탈출, 요양하며 미국으로 건너가기 직전까지 상해 독립운동계에서 활동한 족적을 살펴보았다. 김마리아는 김순애와 같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김순애와 달리 개조론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국내와 만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차경신을 조명하였다. 차경신은 미국에서 대한여자애국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차경신의 삶에서는 안창호의 격려와 김마리아와의 인연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도미를 감행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한나를 조명하였다. 양한나는 상해 독립운동계에 잠시 활동했는데, 의정원 경상도 대의원으로서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론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양한나 역시 상해에서 안창호, 김마리아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었다. 1922~23년 의정원 여성의원으로 김마리아가 선출되고 양한나가 활동했다는 점은 한국여성의 입법부(국회의원) 진출에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 번째로 가족, 친척, 고향, 친구, 단체 등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네트워크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상해 한인여성들이 조직한 여러 독립운동단체에서 유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개별 여성들의 활약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개별 이름을 서술함으로써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호명되지 않았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존재를 조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정정화와 같이 상해 임시정부 시기에는 어떠한 여성단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인물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정정화는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가정주부로서 임시정부 요인들을 모시며, 임시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 번 국내에 잠입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타지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독립운동가의 생계와 의식주 일상생활은 독립운동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하게 독립운동가들을 뒷받침했던 여성들의 역할에도 주목하고자 하였다.

발표3

김숙경지사 생애와 활동
- 훈춘애국부인회를 중심으로

리 광 인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 동방언어학원 전임교수)

김숙경지사 생애와 활동

- 훈춘애국부인회를 중심으로

리 광 인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 동방언어학원 전임교수)

1. 머리말

20세기 초엽 일제를 무장으로 항격하는 성스런 우리 겨레의 항일독립운동이 연변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동북 각지에서 거세차게 번져갔다. 구춘선을 선두로 하는 간도국민회와 국민회군이 그러하고, 서일을 총재로 하는 북로군정서와 산하 무장부대가 그러하고, 봉오동 최진동이 거느린 군무도독부가 그러하고 홍범도와 안무, 최진동의 연합부대 북로독군부가 그러하고, 여러 항일단체와 무장단체들인 신민단, 도독부, 의군부, 혈성단... 등이 그러하다. 이 같은 항일단체나 무장단체들의 주체는 남성들이라지만 여성들도 남성들에 못지않게 이 시절 거창한 항일독립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여 나섰다. 그 가운데서도 훈춘애국부인회 회장인 김숙경(金淑卿, 1886~1927) 여사가 특히 그러했다. 여사는 20세기 초엽 우리 겨레의 저명한 항일여성운동가이며 여성사회활동가였다.

본문은 이미 정리한 김숙경 인물전기에 토대하여 여사의 인물전기를 펼치면서 항일여성운동가 김숙경의 생애, 즉 발자취를 추적, 연구하려고 한다. 김숙경의 생애를 추적하노라면 항일여성운동가 김숙경의 발자취를 들여다 보게 되고 여사에 대한 숭엄한 감정과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된다.

2. 여사의 어린 시절과 혼사

김숙경여사(1886—1927)는 1886년에 함경북도 경원군(오늘의 새별군) 량하면의 한 빈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1). 애명을 귀인녀라고 했다지만 재지게 가난하다 보니 애명과는 무관하게 철모르는 시절에 벌써 집안팎 일에서 한몫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들 또래들이 책보를 안고 서당으로 갈 때면 그는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여사가 11살이 되자 여사의 장래를 걱정하던 부모님은 이해 여사보다 한살 위인 이웃집 천금(후날의 저명한 항일독립

운동가 황병길의 애명)이와 약혼(2)시켜 주었다.

생활은 운명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내리막재주만 피웠다. 여사가 약혼하던 해 본가집은 살길을 찾아 러시아 연해주 땅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여사가 따라 나서자 부모님들은 남의 집 사람으로 되었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고 타일렀다. 멀어져가는 본가집의 행렬을 이윽도록 바래는 여사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본가집이 이사간 후 여사는 외할머니의 집에 홀로 떨어졌다. 여사는 집안팎 일을 이악스레 해제끼는 것으로 외진 마음을 달래다가도 자기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때론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소녀의 어진 마음에도 살פות히 머리드는 그 무엇이었다.

13살 나던 해 1898년, 여사는 첫날옷—베저고리에 베치마 입고 길할 천으로 앞을 가리우고 혼사날을 맞이하였다. 천을 내리고 큰상을 받을 때 겨우 10대 초반의 여사는 병풍의 호랑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본가집 식솔들에 대한 그리움, 다른 사람과 살게 된다는 서글픔은 울음에 서글픔의 색채를 더 해주었다. 남편이 될 천금이는 일순 어쩔바를 모르다가 그래도 남자노라고 “네가 더 울면 병풍의 산범이 달아나와 잡아먹는다”며 무서운 소리를 쳤다. 그 서슬에 여사는 더는 울지 못하였다(3).

혼사를 치른 후 나어린 부부는 남의 사랑방을 빌어서 새 살림을 꾸리었다. 그러던 남편, 여사보다 한살 위인 남편은 돈벌러 간다며 러시아 등지로 나돌기 시작하였다. 시아버지 되는 황병길의 아버지가 몽둥이찌질을 해도 대수로워 하지 않았다. 15살까지는 그래도 집으로 오기도 하고 러시아 딸도 꽤나 하더니 16살부터는 아예 집으로 얼씬하지도 않았다. 시아버지가 연해주땅을 일주하며 찾아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여사가 19살을 잡았을 때 연길현 수신항 투도구 부근으로 갔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4).

이해 1902년 2월에 여사는 불원천리하고 남편을 찾아 떠났다. 천신만고 끝에 그 시절 두만강 건너 북간도라 불리우는 중국 경내 연길현 투도구에 이르렀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5). 다행히 남편의 이름자를 안데서 남편이 양아들질 하는 중국집을 겨우 찾아냈다. 이국 땅에서 만나게 된 남편은 뜻밖이라는듯 안해의 손을 꼭 쥐고 어떻게 찾아왔는가고 성급히 물었다. 여사는 설음이 북받쳐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주인집에서 내여 준 방에서 새 살림을 시작하였다.

3. 다시 사라진 남편과 경찰의 횡포

그해 1902년 여름에 이르러 러시아군대, 일본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뒤숭숭한 소문이 돌리었다. 소문이 파다하자 여사의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종무소식이였다. 여사는 중국집에서 해준 옷을 벗어놓고 꾸레미를 든채 고향땅 경원군 량하면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6). 고향으로 간 후 녀사는 독수공방으로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근면하게 살아갔다.

세월의 흐름속에서 여사는 20대의 고개에 올라섰다. 그러던 이해1905년 어느날 말발굽소리가 요란하더니 세 필의 말이 여사의 집 앞에 와서 멈추어섰다(7). 찰나 여사는 가슴이 섬쩍해났다. 밖에 나간 남편이 무슨 일인가 저지른 것만 같았다. 그런데 말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오매불망 그리던 남편이었다. 러시아 옷차림을 하고 동료 둘과 함께 들어서는 남편이 전에 없이 돋보이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러시아에 간 뒤 겨레 항일지사들과 손잡고 북간도 땅과 연해주 땅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즐기치게 별리고 있었다. 그만큼 일제침략자들은 여사의 남편 황병길을 붙잡으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남편의 그번 행차 후 여사는 태기가 있더니 구토가 심하였다. 몇 달이 지나자 경찰서에서 번질나게 달려들며 남편의 행방을 대라고 못살게 굴었다. 하루는 까닭 없이 데려다가 때리며 야단을 부렸다. 이듬해 1906년에 여사가 첫 아기를 낳은 후에도 소구유에 엮드려놓고 치고 박으며 사정을 두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너무 맞아서 허리를 펴지 못하였다. 그래도 여사는 죽을지언정 남편의 행방을 실토하지 않았다(8). 집안에서 토지문서와 가산을 탕진하면서 여사와 그의 시아버지를 빼냈을 때 갓난 아기는 절명하고 집안은 썩하기만 했다. 여사는 땅을 치며 목놓아 울다가 두 주먹을 부르쥐었다. 일제놈들을 갈갈이 찢어 놓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4. 러시아 연해주땅

1906년 어느 날 밤중에 낮 모를 세 사나이가 찾아왔다. 여사가 낯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남편이 파견한 동지들이었다. 그들은 여사와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두만강을 건너섰다(9). 러시아 연해주땅에 들어서니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닿은 곳은 바다가의 연추란 고장이었다. 연추란 러시아 이름으로 노오끼엡스크로서 1864년에 벌써 조선 이주민에 의해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후에 조선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고 호적방비를 위한 자위대 사포영까지 조직되었다. 여사의 남편은 이런 고장에서 안중근, 이범윤 등 동지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의병대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여사는 무릉도원에 들어선 것만 같았다. 종일 웃음이 가실줄 몰랐다. 연추땅을 조선의 고향과 비기면 확연히 다른 새 세상이었다. 남편은 말끝마다 “숙경씨”라고 부르며 끔찍이도 아껴주었다(10).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여사는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남편이 그지없이 고마웠다. 이듬해 1907년 포동포동한 딸애—정선이가 태어나자 집안은 보다 화기로 넘치였다. 여사는 남편의 고무 하에 우리글을 열심히 배운데서 우리글로 된 신문과 책을 마음대로 읽고 쓸 수 있었다. 우리 역사와 문화도 많이 알게 되고 중국어도 적지 않게 배워냈다.

1907년에 홍범도가 조선 땅에서 의병을 일으켜 무장으로 일제놈들을 항거해 나섰다. 이 소식에 접한 연해주의 항일지사들은 부글부글 끓었다. 1908년에 이범윤, 안중근 등이 지도하는

의병대— 산포대(山炮隊)가 조직되고 두만강도하 작전(11)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독립투쟁의 근거지를 새로 건설할 문제가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황병길은 1910년 음력 2월에 오병목 등 20여 명 항일지사들과 함께 가족을 이끌고 중국 훈춘땅 연통라자의 서굴에 들어갔다(12).

5. 중국 훈춘땅 연통라자

그 시절 훈춘땅 연통라자 서굴은 나무로 짝 찬 한적한 고장이었다. 서굴 10킬로미터 안팎의 연통라자 후루베, 마천자 등지에 흑간 1세대, 2세대의 만족이 살고 있었을 뿐 조선사람이란곤 없었다. 황병길과 그의 일행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황무지를 일쿠면서 분주히 돌아쳤다(13). 그리곤 지체없이 어디론가 떠나가곤 하였다.

한달 후 둘째 딸 정신이 태어났다. 때는 만물이 바야흐로 소생하는 봄철이지만 식량난이 극심하였다. 여사는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너무도 배고파 밭머리 햇풀을 뜯어 먹을수 밖에 없었다. 갓난 애가 젖없어 울며 바둥거릴 때면 가슴이 쓰라렸지만 자기들의 농사질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한길과 이어졌다고 할 때 크나큰 위안과 고무를 받았다. 아무리 어려워도 러시아 연해주와 북간도라 불리우는 연변의 여러 지방들에서 자주 찾아오는 항일독립지사들의 식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연통라자 서굴로 오기 전에 남편 황병길은 안중근 등과 함께 의병대를 이끌고 두만강 너머의 경흥, 회령, 부령, 종성, 온성 등지에서 신출귀몰하며 일제침략자들과 피어난 전투를 벌리었다. 그러다가 회령전투에서 큰 좌절을 당하고 연해주로 물러갔다. 1909년 새해 첫날에 연추부근의 카리란 마을에서 남편이 안중근 등 11명과 함께 단지혈맹(斷脂血盟)을 맺고 왼손무명지의 첫째 관절을 잘라 피로써 항일독립을 결의(14)해 나섰다는 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다.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 동방의 모스크바로 불리운 할빈역두에서 조선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을 격사한 후 여사는 남편과 더불어 이해 첫날 단지혈맹 시 사용한 조막도끼와 목데기, 손가락마디, 12명이 혈서로 물들인 태극기 등을 정히 보관(15)하면서 항일의 뜻을 굳히었다.

훈춘땅 연통라자 서굴에 온 후 여사의 생활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남편이 민중계몽운동을 벌리고서 동지들과 손잡고 현내 각지에 가서 서당을 학교로 고치면서 사립학교설립에 몰두하자 여사는 물심양면으로 받들어 나섰다. 한편 서굴과 하다문 등지를 돌며 학교교육의 좋은 점을 애써 선양하였다. 결과 짧디짧은 몇 년 사이 연통라자 서굴과 하다문 신평, 마천자 전선촌 등지에 10여 개의 조선인사립학교가 설립(16)되었는데 여사의 숨은 노력이 컸다.

그때 남편 황병길은 훈춘땅에서 길다란 외태와 늙은이 상투베기 운동(17)을 벌리었다. 이 운동이 현내 각지에서 맹렬히 일어나자 송사가 뒤에 뒤를 물었다. 늙은이들은 여사의 남편을 “대대손손이 욕할 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상투를 쥐고 땅치며 녀두리를 했다. 그러면

여사는 로인들을 찾아 “조상이 물려준 상투라 해서 끝까지 뭘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시대를 따라야지요. 남들은 비행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며 달리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상투를 매고 별별 기어셔야 말이 안 되지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복(18)시키곤 하였다.

연통라자 서굴에 자리 잡은 몇 해 사이 여사는 딸 정선, 정신 밑으로 또 셋째딸 정일외와 막내아들 정해를 보았다. 아이 기르기, 살림 꾸리기, 남편의 일 돕기—여사는 해종일 뱅글뱅글 돌았지만 손에서 책만은 놓지 않았다. 그는 신문과 여러 가지 책들을 애써 읽으면서 시야를 넓히고 항일독립의식을 키웠다. 또한 무궁화 세 그루를 애지중지하며 여름에는 시내가에서, 겨울에는 집안에서 정히 키웠다(19). 여름과 가을 사이 무궁화꽃이 피어 날 때면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기리면서 애뜻한 감정을 기탁하였다.

6. 선언서 8명중의 한사람

당년 훈춘땅 연통라자 서굴에서 한 고개 넘어가면 산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엔 두 채의 집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 두 채의 집은 저명한 항일독립운동가 이동휘와 그의 처남 오병목의 집이었다. 이동휘와 황병길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이고 막역한 지기로서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여사는 가끔 이 산골로 다니며 식생활 도움은 물론 현안의 반일동태를 요약하여 알려드리고 이동휘의 지시를 남편에게 전하기도 하였다(20).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사는 남편 황병길을 뒤받침하면서 남편과 남편의 동지인 이동휘의 유력한 조력자로, 훈춘과 그 주변을 활무대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로 자리를 잡아갔다. 여사로 말할 때 남편 황병길은 물론 이동휘 그리고 이동휘한테서 익히 들은, 연해주에서 활동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이며 사회주의자인 김알렉산드라는 존경해마지 않는 숭배의 대상(21)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여사는 조선민족(한민족)의 역사 속 임진왜란 시절 진주의 논개, 평양의 계월향 등 후생의 모범이 될 빛나는 인물들을 알게 되면서 여성의 역할을 잘 알게 되었다.

1919년을 잡으면서 여사와 훈춘, 연길, 화룡, 왕청 등지에서 활동하는 김인중, 김옥경, 고순경, 김숙원, 최영자, 박봉희, 이정숙 등 8명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은 한 굽으로 흘러갔다. 이들은 거의가 이동휘, 구춘선, 황병길 등의 영향 하에 있는 기독교 계열의 여성독립 운동가들이었다. 이해 2월 이들 8명은 의기투합되어 “대한독립여성선언서”를 작성, 발표(22)하기에 이르렀다.

선언서에서 그들은 “슬프고 억울하다. 우리 대한 동포시여.” 라는 부름으로 서두를 때면서 남자사회는 “처처에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 소리” 커 가는데 우리 여자들도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하다가 “동포 동포여 때는 두 번 이르지 아니하고 일은 지내면 못하나니 속히 분발할지이다. 동포 동포시여,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고창하기에 이른다. 이는 중국 동북 경내에서 활동하는 항일독립운동가 39인이 1918년 11월 발표한 대한독립선언과 1919년 2월 일본에 간 거래유학생

들이 발표한 “2.8독립선언”과 더불어 나라적인 위대한 3.1운동이 일어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니 김숙경의 사람 됨됨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지금부터 30년전 1988년 12월 4일과 5일, 필자는 훈춘에 가서 황병길과 김숙경 부부의 딸인 황정일 여사를 이틀간 현지 취재할 때 어머니 김숙경이 그젯날 북간도서 발표된 “여자선언서”요 뭐요 하는데 참네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23). 그때는 선언서에 대한 이해가 따르지 못하여 보다 깊이 있게 취재하지 못한 것이 깊은 후회로 남는다.

7. 훈춘 3.20집회와 훈춘애국부인회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위대한 3.1운동이 폭발한 뒤 중국 땅 용정에서도 천지를 진감한 독립만세소리(3월 13일)가 터져 올랐다. 이 소식이 훈춘에 전해지자 훈춘의 항일독립운동가 황병길 등도 3월 20일에 현성의 서문 밖 광장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한 반일독립집회와 시위를 가지었다. 여사는 연통라자 서골 등지의 부녀들을 휘동하여 이 집회에 참가하였고 집회사회자인 남편의 격양된 연설을 들으며 솟구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여사는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기운껏 불렀다(24).

집회 후 여사는 동지들과 함께 사타자, 구사평, 투도구 (하다문향 경내) 등지를 다니며 설득력이 강한 항일연설을 하면서 많고 많은 조선이주민들을 투쟁으로 궤기시켰다. 한데서 3월 28일부터 4월1일에 이르는 사이 상술한 지구들에서 여성들을 망라한 몇천 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떨쳐 나섰는데 구사평에서 있는 반일집회 참가자만 해도 4000여 명에 달했다(25).

3월과 4월의 반일집회와 시위에서 김숙경 여사는 조직된 군중의 위력을 보아냈다. 특히 녀성들의 궤기에서 받은 계시가 컸다. “국내에서 애국부인회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훈춘에서도 통일된 조직체를 내올 수 없을가?” 여사는 이 생각을 3월 31일에 설립된 훈춘대한국민회의의 지도자 이명순, 황병길한테 털어놓았더니 즉각 준비사업에 착수하라는 지시(26)를 받았다.

1919년 9월 29일, 현안의 여성대표 200여 명이 훈춘현성 동문내 박봉식의 집에 모여 “훈춘애국부인회” 설립대회(27)를 성황리에 가지었다. 대회에서 김숙경 여사를 회장(활동의 편리로 대외로는 부회장으로 출현하기도)으로, 주신덕을 부회장으로, 권정숙을 총무로, 오신애를 회계로, 김순희, 황영은을 서기로 하는 지도부를 내왔다(28). 조직 취지는 여성들의 힘을 합쳐 항일독립무장투쟁을 지지, 성원하고 여성교육과 여권확립을 도모하며 군인부상자들을 구호, 간호하는 것이었다.

훈춘애국부인회가 결성된 후 여사는 의연금모집활동에 큰 힘을 기울이었다. 그가 앞장서 독립군부대들이 우릴 위해 고생한다며 선전을 앞세우자 회원들이 분분히 일어나 은비녀, 은가락

지, 옷감들을 내놓았다. 어떤 회원들은 자기의 긴 머리태를 잘라 돈을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결과 6000루블의 거액이 짧은 기간 내에 모아질 수 있었다(29).

의연금모집과 함께 독립군후원을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그들은 회원들의 힘으로 군인용 철띠, 버선, 각반, 장갑 등을 만드는 한편 흰 강목을 사다가 참나무껍질과 같이 삶아서 군복색이 나게 하였다. 밤이면 연통라자 서골의 몇 집에 보초를 세우고 문에 보를 친 다음 손마선을 돌리며 부지런히 군복을 지어냈다(30).

당년 훈춘현 연통라자 서골은 수십 세대의 인가가 들어앉은 고장으로서 모두가 후날의 간도국 민회 계통 사람들이었다. 하기에 황병길 계통의 독립군부대 100여 명이 늘 주둔(31)하면서 여사의 집 앞에 펼쳐진 조련장에서 군사훈련을 다그쳤다. 저저마다 군복을 가끈히 차려 입고 철띠 두 개씩 두르고 각반까지 치니 그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남편 황병길은 훈춘대한국민의회와 산하 군정후원회 책임자이고 지도자였다.

여사의 역할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부인회 회원들을 조직하여 돼지 20여 마리, 닭 100여 마리를 사양(32)하여 독립군의 식생활에 돌리었으며 부대의 옷 깃기와 빨래 등을 도맡아 나냈다.

8. 여사의 바깥활동과 사람 됨됨이

여사는 또 남녀평등을 극구 제창하였다. 그러면서 남녀평등이라 하여 먹거나 입는 등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권리에서의 평등이라고 덧붙였다. “권리가 없으면 죽은 목숨과 같다, 권리가 있어야 사람 값에 간다, 권리를 쟁취하자면 남편을 존경하고 시부모를 존대하며 아이들 앞에서 쌍스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들은 밖으로 돌기에 학교교육, 가정교육을 취세우자면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사의 주되는 주장(33)이었다.

그 만큼 여사의 남녀평등 연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당년 여사의 연설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 훈춘현 춘화진의 한 로인(34)은 이렇게 말했다.

“그이는 말이 변설이었소, 우리 마을에 와서 일본놈들의 죄악을 말하고는 ‘수레는 두 바퀴가 다 돌아야지 한 바퀴만 돌아서는 못갑니다. 남녀평등도 같은 도리입니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손잡고 싸워야만 일제를 몰아내고 조선을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요.”

실로 여사의 연설실력은 뛰어났다. 여사가 연설한다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남녀평등과 더불어 야학교운영에도 발 벗고 나섰다.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과 아동들은 야학교에서 글을 익히며 계급의식을 터웠는데 서골의 여성들 중 우리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여사는 보통 키에 늘 흰 저고리, 흰 치마를 입고 다녔다. 겨울에는 흰 보선에 러시아 네귀수건이

늘어났는데 태도가 온순하고 겸손하며 말씨가 곱고 유순하였다. 이러한 여사기에 온 마을이 존경하고 따랐으며 집집이 화목하고 온 동네의 말씨와 태도가 여사를 닮아갔다.

여사의 사람됨은 남편과 자식들을 대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남편이 여사를 숙경씨라고 부르면 집의 딸들은 신기하듯 어리광을 부렸다.

“어머니, 우리도 이름 불러 안 되나요?”

“안 된다. 너희들은 별이 안 되기에 대등한 관계로 부를 수 없단다.”

여사는 차근차근 일깨워 주었다. 어머니가 말끝마다 남편을 “황선생”이라고 부르자 딸애들은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아버지는 선생이 아닌데 왜 선생이라고 불러요?”

“존경해서 그런단다. 아버지는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잖아!”(35)

여사의 말씨는 여전했다. 하기에 그의 세 딸들은 자라면서 여자를 비하해서 욕하는 지방 사투리 “간나”란 말 한마디 듣지 못했고 성을 내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딸애들이 여느집 애들이 부모들과 “양, 양”거리는 것을 부러워 할 때면 그래서는 못 쓴다고 타이르며 어른들과 꼭 존경어를 쓰게 했다. 어려서부터 이런 어머니의 교양 밑에서 자랐기에 자매간에도 말이 온화했으며 어른이 된 후에도 말씨가 곱고 목소리를 높여보지 못했다. 더구나 남들과 다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교양의 힘은 이토록 컸다(36).

여사는 집 안팎 일이 바쁜 가운데서도 부인회의 사업을 한 시도 늦추지 않았다. 처처에서 비범한 조직능력과 활동능력을 과시한데서 부인회의 활동은 눈부시게 진척되어 갔다.

9. 남편의 최후

1920년 음력 4월 초순의 어느 날(37), 웬 개가 앞밭로 정주 문을 허벼댔다. 급기야 문을 열고 보니 언제나 남편을 따라 나서던 집의 세빠트였다. 세빠트가 문을 비벼대면 남편이 왔다는 암호이다. 그러면 여사는 한밤중에라도 일어나 문에 보를 대고 밥을 지어드렸다. 헌데 오늘 세빠트가 혼자 와서 킁킁거리며 목을 암시하는 것을 보면 필시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개의 목을 만져보니 병이 위독하다는 남편의 편지가 나졌다. 편지에는 지금 마적달 뒤골의 아무개 집에 있으니 급히 와달라는 사연이 적혀있었다. 여사는 속이 철렁하였다. 그는 집을 동네에 부탁한 다음 지기 한 사람을 데리고 지체 없이 각기 말에 뛰어올랐다. 목적지 마적달 뒤골의 한 집에 가니 남편의 온몸은 불덩이 같았다.

“숙경 씨 왔구만!”

남편은 안해를 보자 나지막히 말하며 무척 반기었다.

“황선생, 어째서 이렇게 됐어요?”

여사는 막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현내 춘화 일대에 나갔다가 연해주 주둔 일본군의 불의습격을 당해 밤도와 50킬로미터 산길을 달려오던 중 비옷도 없이 내내 봄비를 맞고 급성촉한에 걸렸었다(38). 남편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을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해의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숙경씨, 아무래도 틀린 것 같소. 숙경 씨는 시아버지를 모실라, 아이들을 기를라, 회장질을 할라 고생을 많이 했소.”

“필요, 모두가 제가 할일이지요.”

“아니요, 고생하는 건 고생한다고 해야지, 헌데 족바리(왜놈을 가리킴)들을 조선 땅에서 몰아내지 못했으니 먼저 가는 이 마음 괴롭기 그지 없구만, 애들을 잘 키워서 나라 위해 힘쓰게 해주오”

그러면서 남편은 3호짜리 싸창 한 자루를 내놓으면서 어린 정애가 한 10년이 지나면 쓸 수 있겠으니 그 전엔 절대 내놓지 말라고 신신당부(39)하였다. 그것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말이다. 여사는 싸창을 품에 간직하며 머리를 끄덕였다. 눈물은 두 볼을 흥건히 적시며 흘러내렸다. 이해 남편은 36살의 한창 나이였다.

10. 남편의 유지를 받들고

남편 황병길의 사망으로 하여 여사는 일순 눈앞이 캄캄해 났지만 맥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는 농사질 하는 한편 현내의 하대문 쌍신(그때는 신평학교), 춘화, 리수구 등지를 찾아다니면서 애국부인회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었다. 활동의 주체가 반일계몽이었다. 학교와 마을들에서 연설할 때면 가정교육이 첫째고 그 다음 학교교육이라면서 모두가 공부를 잘하고 계급의식을 높여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사는 남편이 남긴 3호짜리 싸창과 태극기보따리 등 유물을 목숨처럼 아끼었다. 어중이떠중이들이 느닷없이 달려들어 3호를 내놓으라고 핏박하다가 아래 마을 나무에 달아매고 때렸지만 허사였다(40). 여사는 죽을지언정 말하지 않았다. 맹랑한 자들은 집까지 살살이 뒤졌지만 나질리가 만무하였다.

1920년 10월, 일본제국주의는 근 2만 명에 달하는 정규부대를 연변 등지의 조선인 집거구에 파견하여 전대미문의 피비린 대살륙을 감행하였다. 토벌대놈들은 훈춘현 연통라지에도 달려들었다. 이해 음력 9월 4일 녀사는 만일을 넘려하여 남편의 유물을 탄 데 옮기자고 꺼내놓았다가 토벌대놈들과 맞닥뜨렸다. 이 위급한 찰나 여사는 남편의 유물을 제격 집안의 돼지물통에 넣었다(41). 유지(기름종이)로 싼 데서 젖을 리가 만무했다. 뒤미처 집안에 들어선 놈들은 아무 것도 뒤지지 못하자 황병길이 죽지 않았다면서 무덤까지 파헤쳤다.

이날 놈들은 여기저기서 붙잡은 10여 명의 남자들을 연통라자의 한 학교(지어놓고 문을 열지 못한 빈 학교)에 넣고 불을 달자고 서둘렀다. 이 위급한 시각에 녀사가 놈들 앞에 척 나서서 “저 사람들은 무고한 군중들이다. ‘죄’가 있다면 나에게 있으니 전부 내놓아라.”고 소리쳤다. 적들은 과연 여사를 제외한 전부 사람들을 내놓았다(42). 최현숙이라고 하는 30대의 한 사나이가 내닫다가 총에 맞아 죽었을 뿐이다.

여사는 마적달 아래의 한 마을에 끌려갔다. 그까지 36명이였다. 놈들은 그들더러 자기로 구덩이를 파게 하고 구덩이 앞에 세워놓았다. 기관총의 검은 총구가 그들을 겨누는 순간 위쪽에서 말발굽소리가 나더니 한 장교가 소리치며 달아왔다. 이 장교가 현지의 우두머리와 뭐라고 지껄이자 웬 일인지 36명 사람들을 모두 풀어놓았다(43). 허나 시달림을 받을대로 받은 여사는 지탱할 힘조차 없었다. 부근의 중국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여사와 그의 남편의 위인됨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여사를 데려다가 미음과 닭즙을 대접 한다, 약을 달인다 하며 분주히 돌아왔다. 차도가 보이자 그네들은 여사를 마차에 싣고 밀가루음식을 가득 실은 채 연통라자 서굴까지 모시고 갔다.

옅근 17일만이다. 집에서는 언녕 잘못된 줄로 알다가 뜻밖에 여사를 맞이하니 꿈만 같았다. 시아버지는 락루하고 딸 정신이와 정일, 아들 정애 셋이 울며불며 어머니를 붙들고 놓질 않았다. 여사는 세 자식들한테 인자한 중국인들을 소개하고 절을 올리게 하였다(44). 그네들이 아니었으면 여사가 살아서 서굴로 돌아온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동네 여인들이 와서 같이 자면서 여사와 여사의 식솔들을 위로해 주었다.

11. 여사와 여사의 자식들

그 시절 맏딸 정선이는 훈춘현 하대문 신평학교를 졸업하고 용정의 명신여고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다. 정선이는 인물도 잘 나고 공부도 월등하였다. 영국사람인 이 학교 여교장은 영국에 보내여 박사공부를 시키겠다면서 전부의 비용을 자기가 담당한다고 말하였다. 후에 정선이가 집에 갔다가 이 사실을 여쭙자 숙경여사는 딸을 만류하였다.

“정선아, 망국노신세에 박사가 다 뭐냐, 우박사면 뭘 하겠니. 먼저 일제놈들을 내쫓아야 한다. 아버지가 채하지 못한 뜻을 이어 받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45)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으려만 나라와 자식의 미래란 갈림길에서 나라를 찾는 큰 일을 앞자리에 놓은 김숙경여사.

정선이는 결국 절호의 영국 류학을 단념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뜻에 좇아 훈춘현 서굴, 남별리 등지의 어린이 40여 명을 모아 놓고 글을 가르치면서 항일사상을 고취하였다. 1924년경에 용정 은진중학교 졸업생이며 대황구 혁명가인 김규봉과 결혼하고 대황구의 3.1학교에 가서

교원사업(46)을 하였다. 반일 정서가 폭 배인 이 학교의 교원들은 모두가 반일지사들이었다.

1920년 10월 경신년 대토벌 후 사립학교가 폐교되자 여사는 셋째딸 정일이의 공부를 맡아 나갔다. 어머니의 꾸준한 가르침 밑에서 정일이는 우리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며 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못지않았다. 여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는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아 세 딸과 외동 아들을 항일의 한 길에 내세우리라 작심하였다.

그러던 여사의 가정에 불행히 닳치였다. 1927년 음력 7월 27일경, 김숙경 여사는 식물중독에 걸려 그만 인사불성이 되었다. 후에 정신을 차려도 말할 수 없었다. 급작스레 닳친 불행이라 집에 남은 정일리와 정혜(둘째딸 정신이는 이미 출가했음)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쩔 바를 모르다가 동네 분들을 부르며 치료방도를 댔지만 효력이 없었다. 여사는 최후를 예감하고 3호짜리 싸창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였지만 자식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여사는 4일 간이나 말 못하며 모진 고통에 모대기다가 42세를 일기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47).

너무나 급작스레 닳친 불행이었다. 허둥지둥 달려온 큰딸 정선리와 둘째딸 정신 그리고 정일리와 정혜—그들은 어머니 곁에서 울고 울었지만 여사께서 깨어날 리 만무하였다. 할아버지는 곁에서 락투하실 뿐이었다. 동네분들은 여사를 남편의 곁에 고이 모셔 주었다. 연통라자의 한 산기슭에 두 개의 봉분이 가지런히 나타났다.

12. 비통 속에서 일어난 가족과 4남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를 잃은 후 4남매는 비통 속에서 일어섰다. 외지로 출가 간 둘째딸 황정선은 어머니가 사망된 후 본가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모시며 그 후의 훈춘현 연통라자 항일유격근거지에서 눈부신 투쟁을 벌리었다. 1934년 음력설 날 근거지에 달려든 적 토벌대놈들과 싸우다가 비장한 최후를 마쳤다. 외동아들 황정혜는 항일유격근거지에서 아동단 단장으로 활약하다가 동북항일련군 패장으로 되었으며 1941년 항일련군 제1로군 위증민부사령원의 경위 임무를 집행하다가 24살을 일기로 장렬히 희생(48)되었다.

셋째 딸 황정일(1913년 생)은 1929년경에 결혼한 후 1930년도에 항일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대황구 항일근거지와 연통라자 항일근거지에서 부녀사업에 종사하였다. 1935년에 북만의 동녕현에 가서 활동하던 중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이 기간 역사로 하여 그는 1945년 광복 후 훈춘진에서 복장업에 종사했으나 줄곧 영향을 받다가 1973년도에 퇴직휴양하였다. 1987년 1월에 역사문제가 풀리고 항일노간부대우를 받았다(49). 1988년 3월부터 퇴직휴양간부대우를 받다가 1990년 3월 1일에 질환으로 사망(50)하였다. 필자가 황정일 여사를 방문한 후 15개월 만이다.

김숙경여사의 시아버지 황오섭은 아들, 며느리의 반일투쟁을 지지성원하다가 1928년에 병으

로 세상을 떴으며 아들, 며느리의 곁에 묻히었다(51). 이렇게 여사와 남편 황병길, 시아버지 황오섭은 연통라자의 한 산기슭에 주인 없이 쓸쓸히 묻히었다. 1992년에 황병길의 묘소는 한국 대전국립묘지로 이장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구체 사실을 필자는 잘 모르고 있다.

13. 맺음말

본문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김숙경 여사 개략적인 인물전기 형식으로 여사의 생애를 전방위적으로 돌이켜보았다. 중국 훈춘을 중심으로 하는 김숙경 여사의 걸음걸음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여사는 우리 전체 조선민족(한민족) 미더운 딸이며 저명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라는 것을 깊이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는 안해와 며느리, 어머니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한복판에 나선 여성영웅이었다.

지난 30여년 세월 속에 필자는 김숙경 여사와 그의 남편 황병길을 하나의 연구과제로 하고 하나 또 하나의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연구를 거듭하여오며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필경은 자료와 연구의 제한으로 적지 않은 면에서 김숙경 여사의 진실한 모습을 잘 밝혀내지 못하였다.

대한독립여성선언서 발기와 작성, 참네과정이라든지, 훈춘애국부인회의 조직과 그 구체활동이라든지 모두가 그러하다. 이러한 면은 앞으로도 서로간의 사심없는 긴밀한 연계와 공조, 뜨거운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를 거치면서 꾸준히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몸과 마음 다 바친 여사는 아까운 만 41세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겨레를 위한 그의 삶, 그의 형상은 영원할 것이다.

【부록】

그제날 나라를 찾기 위하여 일제와의 싸움에 나선 독립지사들을 상기하면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진다. 그때마다 우렁이 떠오르는 이는 황병길, 김숙경 부부간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따끔 지상에서 보이는 이들 부부간은 한국의 자료범위를 별로 벗어나지 못하는 풍만치 못한 인물들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할 때 필자는 이들 부부의 자식 4남매 가운데의 셋째딸 황정일이 혼춘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자료들을 익숙히 터득한 뒤 혼춘으로 달려갔다.

때는 연변력사연구소 시절 1988년 12월 4일이다. 오전 9시 쫓하여 황정일 항일노선배의 집을 찾으니 황정일여사가 반가이 맞아주었다. 집은 새로 지은 2층집 1층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여사의 안색은 그닥 맑지가 못하였다. 도리대로 말하면 1935년에 동녕현에서 적에게 체포된 이른바 력사문제도 그 전 해인 1987년 1월에 풀리어 항일노간부대우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리직휴양간부대우도 받게 되었으니 안색이 맑아야 했었다. 알고보니 여사께서는 여러가지 질환으로 투병중이었다. 항일의 피어린 나날 산속에서 시달린 후유증도 후유증이고 76살 고령이니 그럴 만도 하였다. 필자가 송구스러워 하자 여사께서는 괜찮다면서 필자를 떠나면 그제날에도 끌고가시었다. 시간은 정각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로부터 오후 3시반까지 장장 다섯시간 반동안 필자는 흘러간 역사의 나날에 푹 취하였다.

그래도 할머니의 이야기는 멈출 줄 몰랐다. 이튿날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필자는 또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었다. 만약 여사님께서 질환에 시달리지 않으셨다면 며칠이고 더 들었을 것이다. 여사는 진작 피로를 느끼셨겠지만 안색은 보다 명랑해 지셨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취재를 오는 분은 가담가담 있어도 이렇게 시름놓고 장시간 속셈을 다 터놓은 적은 없었다는데야. 아버지, 어머니를 뗏뗏이 내세우는 일에 나서지 못할 일이 뭐냐는 여사님이셨다.

하나 여사의 신상이 우려되어 아쉬운 대로 후일로 미루고 취재를 접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수확이 엄청나게 컸다. 장장 이틀간의 품을 들여 필자는 김숙경 여사와 남편 황병길을 둘러싸고 많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대부분이 생소한 것이어서 우리의 두 반일독립지사는 제한된 역사자료에 의한 빈약한 인간이 아니라 피도 있고 살도 있는,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필자에게 안겨들었다.

지금 황정일 여사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번 처음이자 마지막인 취재에서 필자는 여사께서 건재하는 기간 부모님을 꼭 인물전기로 써서 발표하여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필자는 그 약속을 지켜 드리지 못하였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필자는 김숙경 여사 부부와 그들 4남매의 피어린 항일을 둘러싸고 단독 책으로 묶어 여사와 그의 부모님을 기념하려고 또 한 번 마음 다잡아본다.

주해:

- (1)(2)(3)(4)(5)(6)(7)(8)(9)(10)(12)(13)(15)(17)(19)(20)(21)(23)(26)(30)
(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
(49)(51) 이상 연변력사연구소 리광인 방문자료: “황정일할머니”(1988. 12. 4—12.5)
(11)리광인 저. 겨레 항일지사들(3). 민족출판사, 2007년 10월 출판, 제44페이지
(14)(16)리광인 저. 겨레 항일지사들(3). 민족출판사, 2007년 10월 출판, 제45페이지
(22)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25)훈춘시 정협문서관공실 자료: “훈춘조선족소개”(1988. 12)
(27)(28)(29)김상헌 정리. 황정일 담화기록(1980년 7월 20일). 연변력사연구소 자료: II C44
(48)조선혁명렬사전 제1집. 료녕인민출판사, 제370페이지, 1983년 11월 출판
(50)황정일 묘소묘비에서. 훈춘시 대항구항일유격근거지 현지답사, 2018년 5월 23일

【주요참고자료】

- 연변력사연구소 자료: “황정일방문기”(1960. 4.9—12)1980. 9. 16 력사연구소 부소장 김상헌 다시 정리
연변력사연구소 자료: II C44 “황정일의 담화기록” (1980. 7. 20) 김상헌 정리
훈춘시 정협문서관공실 자료: “훈춘조선족소개”(1988. 12)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안관자료: 3064 “김영방문기록” (1960. 4. 27)
훈춘시 정협 문서관공실 자료: “훈춘조선민족주의자들의 반일무장투쟁개황”(김동준)
연변력사연구소 안화춘 정리자료: “황병길”
“지부생활”잡지(1985년 제5호) “혁명의 요람 <3.1> 학교”(석승)
연변력사연구소 리광인 방문자료: “황정일할머니”(1988. 12. 4—12.5)
한국: “한국여성독립운동사” (3.1운동 60주년 기념) 261—262쪽, 300—301
항일독립지사 황병길과 그의 안해 김숙경(리광인)—“문학과 예술”, 1993년 제5호와 제6호
황병길, 김숙경 전기—리광인 저 “겨레 항일지사들”(3), 민족출판사, 2007년 10월 출판

2018년 7월 13—14일, 중국 위해 석도에서

발표4

3.1혁명 참가 여성독립유공자들의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검토

강 정 숙 (성균관대)

3.1혁명 참가 여성독립유공자들의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검토

강 정 숙 (성균관대)

I. 머리말

내년 2019년은 3.1혁명 이후 백년이 되는 해이다. 3.1혁명은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3.1운동에 대한 연구성과는 7월 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68,829점에 달한다.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3.1운동 때 여성들의 활동상에 대해서도 3.1여성동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단체, 박용옥·윤선자·윤정란·심옥주 등 여성연구자,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관심과 접근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 하려는 작업은 특별한 새로운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3.1혁명에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하였는가는 중요한 연구과제이지만 이미 중요한 연구들이 있고 여기서는 3.1혁명에 참가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간단한 소개와 특징을 언급하는 정도만 그친다.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것은 젠더사의 접근방식을 취한다면 3.1운동 참가 여성독립운동가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보훈이나 표창 등의 행위를 통해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할 수 있는 정부는 3.1운동, 여성독립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판단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의 공훈전자자료관¹⁾에 등재되어 있는 여성독립운동유공자의 공훈록과 공적조사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판결문²⁾ 등을 토대로 3.1운동 참가 여성독립유공자들의 활동과 인식, 그리고 3.1혁명 여성독립유공자들의 구성, 포상현황 등을 다룬다. 이를 통해 연구 및 독립운동 표창방식 등에 대한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2018년 7월)까지 국가보훈처에서 표창한 전체 독립유공자 수는 14,879명이고 그 중 여성은 299명으로 2.0%이다. 이 글에서 다룰 3.1혁명 참가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3.1운동'으로 분류한 독립운동가는 전체 4,965명, 그중 여성은 95명(1.9%)이다. 여기에 공훈록이나 관련

1)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List.do?goTocode=20001>(2018.7.)

2)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2018.7.)

인물 연구에서 3.1운동에 참가한 것이 확인될 경우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그 외에도 3.1운동 유공자는 아니지만 1919년에 20세 이상이었던 여성독립유공자, 즉 3.1운동 때 뭔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 독립운동가들을 관심범위 내에 두고 검토하였다. 3.1운동 참가자로 분류된 여성들이 3월 1일 활동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3.1운동과 관련된 이들은 1919년 1월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지역에서 활동도 적어도 5월 말까지 움직임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1919년 1월에서 5월까지를 분석범위로 삼았다.

이 글은 아래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 연구이다. 우선 3.1운동 독립유공자는 3.1운동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아니고 3개월 이상의 형을 산 이들을 중심으로 삼고 점에서 전체 상황을 보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언급해 둔다. 두 번째로는 자료가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공훈록과 국가기록원 판결문 등 몇 자료를 통해 본다는 점에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3.1운동여성유공자 등을 통해서 당시 3.1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의미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이 글은 3.1혁명과정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표창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299:14580으로 표창 전체 독립운동가 14879명 중 여성은 2.0%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를 과제로 삼아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1919년 기미년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부르자는 의견³⁾이 있다. 필자도 취지에 동의하지만 여기서는 두 용어를 병용하기로 한다.

II. 3.1혁명의 여성사적 배경

일본과 청의 내정 간섭과 구미제국의 이권침탈 속에서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미영등 구미 열강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러일전쟁이 끝난 1905년 이후부터는 대한제국을 강점하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난국을 타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나, 처음엔 계몽운동을 하던 측은 의병운동을 백안시하고 의병운동 측도 개화운동이나 계몽운동 측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국운이 다해 갈 시점에 이르러 점차 통합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외에서는 의병과 계몽운동이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3.1운동을 경험한 여성독립유공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시대적 대응을 잘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으로 여성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 규방을 벗어나지 못하던 여성교육이 개항 후 구미열강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여 여성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886년은 이화학당

3) 이준식, 「운동'인가 '혁명'인가-‘3.1혁명’의 재인식」, 『역사와 책임』, 7, 2014. 김삼웅, 「‘3.1혁명’ 정명 회복의 의미」, 『내일을 여는 역사』, 2016.3.

이 미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1887년에는 정신여학교(처음에는 연동)가 미 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한국정부는 여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1898년 9월 李召史, 金召史 등은 <여권통문>을 발표하고 한국최초의 여권단체인 찬양회를 조직하여 관립여성교육기관 설치와 남성과 동등한 직업을 가질 권리 등에 대해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노력은 1900년대 국권탈취위기 속에서도 국권회복운동과 함께 꾸준히 확산되고 실천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이후 갑갑한 조선 현실의 타개책을 새로운 신념이나 종교, 교육을 통해 찾으려는 시도가 대한제국시기에는 합법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여기에 천주교나 개신교가 그 요구의 일부를 만족시키면서 영향력을 확산시켰고 특히 잦은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생명을 잃던 시기였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 등이 습득한 의료지식은 당시 한국사회에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도 기독교 선교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의 의병, 1907년 군대해산으로 인한 정미의병 등은 무력항쟁을 통해 국권을 유지회복하려 하였고, 계몽운동측은 식산흥업 문명개화 부국강병을 하려고 교육과 국채보상운동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1910년 일제 강점 하에 들어가자 국내에서는 물론 많은 이들이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만주, 중국, 러시아, 미주 등지로 망명하기 시작하였다. 일반 민중들도 다수 월경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낮은 외국땅에서 다시 모여지며 이후 독립운동의 귀중한 토대가 되었다.

의병은 여성들과 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의병활동은 여성의 지원없이는 존속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의병에 직접 투신한 여성들도 있었다, 1908년부터 1909년 전라남도 일대에서 남편 강무경과 함께 정미의병의 일원으로써 의병활동을 한 양방매(1890-1986), 강원도에서 활동한 윤희순(1860-1935), 황해도에서 의병지원 및 군자금 조달하였던 이석담(1859-1930, 국내항일), 남자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윤희순과 남자현을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윤희순은 화서학과 의암 유인석이 제천을 기반으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시부 유희석과 함께 종군할 뜻이었으나 시부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윤희순은 어렵게 얻은 아들을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아서였다(기록에 의하면 아들 1894년생). 더구나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화서학과 집안이었다. 정미의병시기에는 그는 춘천에 기반을 둔 시가와 그 지역민을 기반으로 의병활동을 하여 을미의병 때의 뜻을 성취하였다.

윤희순은 “안사람의병가”등을 만들어 주위 여성들의 항일정신을 고취하고 나아가 여자의병을 조직하고 자신은 의병장을 하였으며 군자금 모금에도 힘썼다. 나아가 일제 강점 직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활동을 지원하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가족원들과 망명하여 독립군 활동 혹은 그 지원활동을 하였던 것은 그 한명이 아니었다. 단 그와 같이 정미의병부터 독립군까지 긴 시간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활동한 강원도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대응은 미약하였다. 강원도에서 단체로 여성들이 참여하

지 않았고 개인 19명만이 참여하였다.⁴⁾ 다른 계몽운동도 3.1운동시기까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그의 의병가사에서 ‘안사람 의병가’라고 한 점이나 ‘왜놈 잡아 임금 앞에 꿇어앉혀 우리 임금 분을 푸세⁵⁾’ 등은 위정척사 존화양이를 정신을 내세운 의암의 영향하에서도 전통적인 여성들의 위치를 역이용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펴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희순 일가를 포함한 의병가족 40-50가구가 국외로 이주하면서 독립군운동만이 아니라 노학당(老學堂) 등을 통해 인재양성도 함께 하였다. 국외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상적 영역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의 삶을 기록한 <일생록>에는 자신이나 남편과의 이야기 보다 시부와 아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설명한 것은⁶⁾ 시대적 한계이기도 하며 친정이나 시가 모두 화서학풍 속에 있었던 까닭이 아닐까. 하지만 그가 열여섯에 시집와서 1894년인 서른네 살이 되던 해에 장남 둔상을 두었고⁷⁾ 그 귀중한 첫 아들을 두고 을미의병에 나서려 했다. 그가 이러한 활동을 한 것이 124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시대 한계를 논할 수준이 아니다.

한국인 여성독립유공자로서 가장 높은 훈격 대통령장을 받은 남자현(1872⁸⁾-1933)도 의병과 관련된다. 영양에서 출생한 그는 역시 이 지역 출신이며 아버지 남정한 문하의 김영주와 19세에 결혼하였다. 결혼 6년 정도 후 김영주는 남정한의 문하생 등으로 구성된 의병(을미의병)으로 전투 중 1896년 7월 순국하였다, 이후 남자현은 시부모를 모시고 유복자를 키우며 있다가 아들이 크고 시부모를 모두 잃은 1915년을 지나 1919년 3.1운동 시기에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군정서 등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는 교육운동, 군자금 모집 활동, 의열활동, 독립운동가 위무활동 등을 하였는데 주목할 것은 그가 동만주 12곳에 교회와 예배당을 세워 전도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남자현과 교회와의 관계는 1906년 이후로 추정된다. 그리고 1910년 대에는 만주에 독립군을 하던 이들과 교류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였다.⁹⁾

일본의 침략야욕을 일찍부터 통찰하고 무력으로 일본에 맞서려는 의병과 달리 계몽운동 측은 실력양성, 부국강병, 식산흥업 등을 통해 국력 강화하여 국권을 지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일제의 한국 강점 앞에 수포로 돌아갔고 두 운동계열은 서로 교류하고 통합되어갔다. 특히 국내에서의 활동의 제한을 느낀 층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목표가 먼 실력양성이 아니라

4) 최창희, 강원여성의 항일민족운동, 한국여성예림회 강원지부 주최, 강원도 여성의 항일민족독립운동 윤희순여사기념학술대회, 2000(유희정, 『강원여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원여성독립운동』,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도서출판 정인, 2013, 42쪽에서 재인용)

5) 심옥주, 『독립운동가 윤희순과 조화벽의 독립활동과 그 상징성』, 『강원여성독립운동』,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도서출판 정인, 2013, 63-65쪽

6) 정금철, 『항일투사로서의 윤희순의 삶과 여성적 담론 연구』, 『강원여성독립운동』, 106-109쪽 참고

7) 정금철, 위 글, 105쪽. 그러나 위 글의 필자도 윤희순의 『일생록』에서 항일투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윤희순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위 글, 109쪽

8) 위 생몰년은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한 것이고 이상국(『나는 조선의 충구다』, 세창미디어, 2012, 18쪽)은 1873년이라 보았다.

9) 이상국, 위의 책, 69-70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필요한, 구체적인 무장투쟁을 통한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군 양성 및 독립군투쟁으로 나아갔다.

한편 국내의 계몽운동계는 학교, 종교단체 설립 등을 통해 여성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다. 그리고 강점 직전 무장투쟁, 의혈투쟁의 대표명사인 안중근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1862-27)는 1907년에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하였다. 평남 삼화향 은급폐지부인회를 통해 국채보상의 연금을 납입하였다고 한다.¹⁰⁾ 조마리아는 3.1운동시기에는 안중근 가족을 추적하는 일제의 감시망이 그래도 약한 중국으로 이동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1910년대 3.1혁명 이전 무단통치시기의 가장 큰 탄압사건은 ‘105인 사건’으로 한말일제초 국권회복 나아가 독립군 기지 개척을 준비하던 비밀결사 신민회가 해체되는 원인이 되었다. 위 관련자들은 애국계몽운동계열로 신민회에 가입활동하였던 여성으로는 평북 선천 사람인 김순도(1891-1928, 중국방면)가 있다. 그는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11년 11월 피체되어 일년 이상 경찰의 고문 등으로 고초를 당한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 이를 도와 교육, 문서와 무기 배포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외에도 1910년대 국내에서 송죽회와 같은 비밀결사활동도 한말 계몽운동과 관련되어진다. 일제 강점하에 들어가서도 국내에서는 이 계열은 꾸준히 활동하여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역량을 키워 갔다. 3.1운동 시기에 이러한 조직과 활동경험이 토대로 작용하였다.

Ⅲ. 3.1혁명 여성독립유공자들의 활동과 인식

제1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세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하여 식민지반식민지 민족에 대한 해방에 적극적인 소련정부가 들어섰고, 미국에서는 윌슨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는 신한청년당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파리강화회의를 기하여 일제의 학정과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알릴 것을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방법은 파리 강화회의 참가로 보고 김규식 파견을 결정하였다. 김규식의 활동을 돕기 위해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내외에서 독립선언을 하는 등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¹¹⁾ 이것은 곧 다양한 선을 통해 국내외 독립선언 혹은 청원의 방식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만이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곳에서 독립에 대한 요구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3.1 독립선언 직전 일본 수도 동경에서 남녀유학생을 중심으로 <2.8독립선언>을 발표한 것은

10) 국가보훈처 공훈록 참고. 이하 이 글에서 각주 등으로 특별히 참고자료를 달지 않은 경우 대부분 공훈록에 의거하였다.

11) 이명화, 『김규식의 생애와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53-55쪽

그 시작이었다. 여성비밀결사 송죽회 활동을 하거나 중국 등지에 있던 독립운동가들과 다양한 선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 있었다.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 활동을 하였던 인물들도 그러하였다. 회장 김마리아와 황에스터(황애덕, 황애시덕), 노덕신, 유영준, 박정자, 최청숙 등 6명의 여학생들은 2.8독립선언의 장에 참석하고 30원을 운동비를 자진 제공하였다.¹²⁾ 그러나 당시 2.8독립선언을 준비하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는 조직적 연결하려 하지 않아서 황에스터가 항의한 바도 있었다.¹³⁾ 3.1운동을 준비하는 측에서도 여성들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¹⁴⁾ 전민족적인 만세시위운동에 여성들은 음으로 양으로 참가하고 주체적으로 다음의 활동방향까지 모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 게다가 고종의 갑작스런 승하 등은 3.1혁명운동을 불러오는 촉매들이었다. 천도교·기독교·불교 대표로 구성된 민족대표와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각 지역으로 취지와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한 이들 덕분에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3월 1일 2시부터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에서는 민족대표가 자리를 이동하여 태화관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일본 경찰에 체포당하였지만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시간에 평양에서도 밀도있게 진행되었다. 3.1운동은 33인 등이 이미 연결해 둔 조직선을 따라 학교, 종교조직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¹⁵⁾

여기서는 3.1운동시기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여성독립유공자를 중심으로 1) 중앙과 지역의 조직적 연결을 통해 만세시위를 한 사례 2) 여성들이 만세시위를 주도적으로 한 사례로 나누어 보고 3) 3.1만세운동 이후 여성들의 중요한 움직임인 비밀결사운동, 4) 3.1운동 참가여성들의 특징과 참가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앙과 지역의 직접적인 연결 하의 만세시위

서울에서는 운동의 발원지이므로 33인외 48인 49인이라고 하는 운동의 핵심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의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시작한 학생들 주도의 만세시위는 서울에서도 거둬되었다. 서울의 각 여학교에서는 박희도, 이갑성, 김원벽, 강기덕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이화학당,

1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삼일운동 4』 14, 1991, 26쪽. 박용옥, 『여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2쪽에서 개인용
 13) 박화성, 『송산 황애덕선생의 사상과 생활: 새벽에 외치다』, 휘문출판사, 1965, 78쪽. 박용옥, 위의 책, 123쪽에서 개인용
 14) 3.1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던 시기 한성임시정부의 30인 민족대표 중에 이화학당 교사였던 이화숙이 참여하고 있었다.
 15) 3.1운동의 참가자의 수, 희생자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있던 켄달은 시위가 시작된 이후 3개월 동안에 3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피살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보았다. 켄달(1919), 맥켄지(1920), 『한국독립운동의 진상/한국의 독립운동』, 신복룡 역, 평민사, 1986, 44쪽.

정신여학교, 경성여고보, 숙명여고보 등에서 참가하였는데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음으로 양으로 관여하였다. 세브란스 간호사들도 참여한 것도 이러한 조직선이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직접 33인 혹은 48인으로 불리우는 이들과 연계한 사례 중 하나가 대구이다. 대구는 2월 24일 경상도 독립만세운동의 연락책임자였던 이갑성이 대구에 내려와, 제일교회에서 기독교계의 유지, 이 지역 출신 재경유학생, 현지 학교교사나 학생을 통해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것이 신명여학교 여교사인 임봉선이였다. 그는 계성중학교·대구고보(大邱高普)·성경학교(聖經學校) 학생들과도 연락을 취하여 3월 8일의 서문의 장날을 이용하여 연합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50여명의 신명여학교 학생들을 인솔하고 시장에 나아가, 1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약속된 날 연합시위를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시위 방식은 직접 33인이나 48인과의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재경유학생이나 서울에서 내려와 지역의 학교 교사나 학생, 종교단체를 통해 만세시위를 조직하고 서울에서의 시위를 직접 접하거나 시위소식을 듣고도 만세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 일신, 광주 수피아, 전주 기전여학교 등이 참가한 만세시위도 대부분 연대시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여성 주도의 만세시위

개성은 서울과 인접하여 독립선언서가 2월에 이미 기독교 남성들에게 전달되었으나 선언서 배포와 만세시위는 3월 3일에야 일어났다. 그것은 개성의 기독교 남성들의 주저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에 기독교 남감리파의 전도사인 어윤희 등 여성들이 먼저 나서서 활동함으로써 뒤이어 남성들도 만세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3월 3일 개성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서 주도자로 검거된 이들은 호수돈여고보 학생과 교사들이었다. 징역 2년 형을 받고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한 어윤희는 경찰의 심문에 “새벽이 되면 누가 시켜서 닭이 울디까? 우리는 독립할 때가 왔으니까 꺾기를 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했다.

만세운동에 참가한 이유가 민족적 과제와 남편을 이어 한다는 인식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북 영덕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윤악이와 신분금이 그러하다. 이들이 기독교인인 것은 명확하게 기록에 서술되어 있지 않으나 남편들이 모두 장로교 교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3월 18일 영덕에서의 만세시위로 검거되었다. 1919년 3월 24일 장날 원전동 시장에서 윤악이가 앞장서 “우리는 여자인데도 한국독립을 희망하고 한국의 만세를 부르짖는다”고 연설하고 신분금은 이에 호응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여자인데도”라는 표현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여성이 주동한다는 주위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면서 남편을 이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 주위 사람들을 만세시위로 끌어들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동에 참여한 것은 의병활동을 하였던 윤희순, 남자현 역시 이러한 방식을 써 독립운동에 관여하였다.

유관순(1902~1920) 등이 주도한 천안 병천 시위, 동풍신(1904~1921)이 주도한 함북 명천시위는 10대 여성들이 주도하였다. 동풍신이 주도한 시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3월 14일, 15일 명천 화가면 일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동풍신의 아버지 동민수는 병상에 있었음에도 시위군중에게 일본군에 의한 사격으로 5명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15일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본헌병의 무차별 사격으로 순국하였다. 다른 시위 군중들이 멈칫한 상태에서도 동풍신이 독립만세를 외치자 헌병의 발포로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던 시위군중은 크게 감동하여 그녀와 함께 다시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이 시위로 잡혀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목숨을 걸고 시위에 참가한 그때 동풍신은 만14세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10대 소녀들의 열렬한 만세시위운동 참가는 3.1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3.1운동이 1910년대 폭압을 뚫고 터져 나온 전민족적인 요구의 분출이지만 진행과정에서 따라 냉온의 차이가 있다. 그 중 여성들이 주도적인 만세시위를 보면 가족원의 희생 등으로 시위가 더욱 강력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경우 일제의 만세시위 진압방식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점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가족원의 희생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호소가 지역민들이 공감하여 강력한 시위대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순과 동풍신 등이 주도한 시위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표 1> 3.1운동 참가 기생출신 독립유공자

성명	한자명	생몰년	본적	형량	포상연도	포상훈격
김향화	金香花	1897~미상	경기 수원	보안법위반 징역 6월	2009	대통령표창
이소선	李小先	1900~미상	경남 통영	보안법위반 징역 6월	2008	대통령표창
정막래	丁莫來	1899~1976	경남 통영	징역 6월	2008	대통령표창
김해중월	金海中月	미상~미상	황해 해주	징역 4월	2015	대통령표창
송금희	宋錦姬	미상~미상	황해 해주	6개월여 옥고	2015	대통령표창
김성일	金聖日	1898~(1961)	황해 해주	보안법위반 징역 5월	2010	대통령표창
김화용	金花容	미상~미상	황해 해주	해주감옥 6개월 옥고	2015	대통령표창
문응순	文應淳	1900~미상	황해 해주	보안법위반 징역 6월	2010	건국포장
문재민	文載敏	1903~1925	황해 해주	징역 4월	1998	애족장
옥운경	玉雲瓊	1904~미상	황해 해주	보안법위반 징역 4월	2010	대통령표창
이벽도	李碧桃	1903~미상	황해 해주	보안법위반 징역 4월	2010	대통령표창

3.1운동 여성독립운동가 중 주목할 만한 계층이 기생이다. 기록으로 확인되어 표창된 독립유공자로는 해주 8명, 통영 2명, 수원 1명이나 이외에 진주 등지에서도 3.1운동에 참가하였다. 기생들은 다른 사회 관계망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시위할 것을 결정하여 집단적인 만세시위운동을

하면서 지역민의 만세를 견인하였다.

해주는 아래 8명이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았는데 신문자료만 확인되고 판결문은 없다. 해주에서 기생 문재민(1903-1925)을 비롯한 기생들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고, 티끌 모아 태산도 이룩한다하거든, 우리 민족이 저마다 죽기 한(恨)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독립을 외치면 세계의 이목은 우리나라로 집중될 것이요, 동방의 한 작은 나라 우리 조선은 세계 강대국들의 동정을 얻어 민족자결문제가 해결되고 말 것이다.”라며 (별도의) 독립선언서를 써서 만세운동에 동참했다.¹⁶⁾

통영은 이소선, 정막래가 주도하여 다른 5명의 기생과 함께 기생단을 만들고 정막래(莫來)는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맡겨 그 돈으로 상장용(喪章用) 핀과 초혜(草鞋)를 사서 다른 기생에게 나누어 주며 같은 복장을 하게 한 후 기생 조합소에서 기생이 앞장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약 3000명의 군중이 모여 함께 만세시위를 하였다.¹⁷⁾ 수원에서 활동한 기생출신 독립유공자는 김향화 1명 뿐이지만 당시 수원기생이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하였다.

왜 기생들이 3.1운동에 참가하였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기생의 지위, 기생의 특징과 관련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생제도는 한말에 그 사회적 위치나 역할 등이 변화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철폐는 되었지만 각지 감영이나 이전에 각지의 관기들은 선상기로서 기회가 있을 때 서울로 올라와 기예를 펼치곤 하였다. 그리고 궁중의 관기도 장악원 소속으로 변동되었다가 1907년 폐지되었다.¹⁸⁾ 이것은 수도 궁궐에 없었던 관기와 이와 관련되었던 기생들이라도 고종의 승하는 남다르게 느껴졌을 수 있다. 기생들은 이전에도 국가와 민족의 위기에 처하자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한 바 있었고,¹⁹⁾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에도 활동하였고 이들은 또 현금동원력을 가진 여성층이기도 하였다.

3. 3.1만세운동 중 조직되는 여성비밀결사운동

3.1만세운동에 10대의 활동이 활발하였지만 이들의 뒤에 선배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3.1운동 시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 활동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배출해 있었다. 서울이나 평양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은 학교나 종교단체 등을 통해 이미 독자적 활동에 익숙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삼엄한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대중적 활동의 여지가 적었기에 한말에 활동범위가 넓었던 이들을 제외하고는 3.1운동시기 인적 관계망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직적 배경, 인적 관계망 파악은 더욱 중요하다. 여기에 기독교계통은 종교(교회)와 또 이와 관계깊은 학교 등의 사회기관과도 연결되어 있어

16) <http://www.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07136> 2018.7.20.

17) 통영지청 1919년 형공 제81호 판결문(국가기록원 홈페이지)

18) 이동근, 「의기(義妓) 수원 기생들의 3.1운동」,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2008

19) 대구 기생 앵무가 100원을 낸 이후 대구 평양 등지의 기생들이 의연금을 내었다. <http://mpva.tistory.com/3996>

당시 기독교 인구수에 비해 기독교계통의 여성들이 한 역할은 매우 컸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김마리아와 황애스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학생층보다 5세 혹은 10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이들로 학교 교사나 다른 독립운동단체들과 연계고리를 가진 인물들이다. 이들 중에도 물론 3.1운동으로 수감되어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3.1만세시위에 직접은 참가하지 않거나 잡혀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²⁰⁾ 그것은 이미 4월 13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다른 쪽에서도 이에 준하는 조직체들이 생겼는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인 인력과 자금 조달이었고, 이 때문에 이미 1919년 4월부터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구국민단, 혈복단, 애국부인회, 다양한 이름으로 비밀리에 비밀결사들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조직사업은 3.1만세시위운동에 공개적인 참가를 저어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세시위란 대중만이 아니라 일제경찰에 그대로 노출되는 방법이므로 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마리아는 우리의 독립요구와 의식을 만세시위 등으로 대내외에 표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만세시위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1919년 3월 초 계속된 만세시위 중에서 서울에서 3월 5일에도 학생만세시위가 계획되어 여학생들 모두 시위에 참가할 것인가에 대해 서울에서 논의할 때 김마리아는 “5일에 나가서 한 번 만세를 부른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제히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세 부르러 나가고 싶은 사람은 개별로 나가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²¹⁾라고 하였다.

당시 그는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항일여성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리강화회의에 우리의 상황과 요구를 알리기 위해 김규식(김순애와 결혼하여 김마리아에게는 고모부가 됨)이 파리로 떠났고, 김마리아는 동경에서 2.8독립선언에 참가한 이후 국내에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2월 말에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왔다. 마침 중국에서 온 김순애와 서병호(김마리아의 고모 김구례의 남편)를 만나 대구와 언니 고모 등이 있고 전에 교사로 근무하던 수피아여학교가 있던 광주를 거쳐 서울로 왔기에 김마리아는 독립운동의 방략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거쳐 방향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누구에 의해 이끌려가기 보다 자발성을 강조한 까닭에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김마리아가 표명한 만세시위에 자율적 참가를 언급한 것은 다양한 활동방법이 있음을 또 비밀결사활동에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일제경찰로서는 김마리아와 같은 인물이 분명히 3.1운동에 관여했을 것인데 증거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더욱 가혹한 고문을 가하였다. 김마리아의 언니인 김함라의 구술기록에 의거한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김마리아는) “일본 동경여자학원 대학부에 입학하여 1919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삼월 일일에 독립선언과 소요가 일어나매

20) 김마리아, 황애스터 등 1890년대 이전에 태어난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이 아니라 국내항일, 만주, 임시정부, 미주 등지 독립운동가로 분류되어 있다.

21) 박용옥, 『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홍성사, 2003, 162쪽(원자료는 「김마리아 제2회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4: 삼일운동 4, 25쪽)

마리아는 잡히어서 다섯 달 동안을 총감부와 서대문감옥에 가서 있다가 칠월에 보석을 하고 나왔는데 총감부에 있을 때 어떻게나 몹시 맞았던지 가뜩이나 쇠약한 신경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쇠약할 뿐 아니라 (중략) 채 치료도 다하지 못하고 작년 9월에 대구로 잡히어 왔으니까...(후략)²²⁾ 여기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김마리아는 귀국 후 3.1운동과 직접 관련하여 일제에 의해 조사수감되었다가 다시 애국부인회 등과 관련하여 다시 잡혀 수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백신애 등도 대구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3.1운동이 아니라 애국부인회의 동일사범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1운동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 활동이나 3.1운동 다음의 운동발전을 위해 목숨을 건 활동을 하고 있었다.

3.1운동에서 구속된 이들을 보면 서울의 경우 두드러지는데 지방출신자가 다수이다. 이들은 대부분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 흐르는 정보를 아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층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3.1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교사나 친구들의 영향은 있었겠지만 부모와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이들과 달리 오로지 자신이 그 판단을 내렸다는 특징이 있다. 일제시기 민법이나 형법으로 미성년자 및 여성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지만 가족이나 나이에 규제받지 않고 자신의지로 만세시위나 비밀결사 활동, 망명을 결정하고 수행하고 있었다.

나이생년이 이상인 이들은 3.1만세시위운동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거나 참가하더라도 바로 시위가 아닌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선명히 나타나는 데 1890년대생들은 1919년 이 시점은 이미 학교 교사나 다양한 사회적 활동만이 아니라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되기 쉬운 만세시위운동은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이 읽혀진다. 아직 국내에 3.1만세시위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 1919년 4월 13일 정식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대한국민의회?만주, 한성정부 등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외의 움직임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이동한 인원도 상당하였다. 당시 일제의 폭압 하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한 여성독립운동가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어 선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운동가들의 동선이나 지향 등을 통해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운동계열로 분류되었으나 3.1운동과 임시정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활동한 이들에 대해 살펴보자. 김연실(1898 ~ 미상, 미주방면)은 평북 회천 출신으로 평양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3.1운동시기에 태극기를 만들고 혈성가를 부르며 행진하고 반세를 불렀다. 이일로 평양경찰서에 붙잡혀 보안법 위반 및 제령7호 위반으로 6개월 옥고를 치렀다.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개국부인회, 홍사단, 인성학교, 적십자회간호부양성소 등에서 활동하고 도미하여 1924년 대한여자애국단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와 유사한 과정을 보이는 것은 앞에 언급한 이화숙이다.

22) 『동아일보』 1920. 6. 6. —記者, 病床에 누운 김마리아 (五) 『나해석연구』 제7집, 142쪽 현대어로 수정. 1919년 9월에 대구로 이감되어 보석상태에 있었던 김마리아에 대해 가족들이 구술한 것을 1920년 6월 동아일보에 수록한 것이다.

그도 3.1운동 직후 한성정부 대표로 이름 올린 이후 상해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주 방면 독립운동가들 역시 다양한 구성을 보여준다. 미국은 지금과 시간이나 거리감이 더 컸지만 당시 국내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던 독립운동가의 광범한 활동망 등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언론 등을 통해 미국동포만이 아니라 국내나 중국으로 정보 등을 수집전달하고 국제여론에 한국독립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독립자금 모집을 하였다.

4. 3.1운동 참가여성들의 특징과 이들의 인식

3.1운동 참가여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10대 소녀들의 열렬한 만세시위운동 참가이다. <표 2> 한국여성독립유공자 및 3.1운동유공자 생년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41.0%가 넘는 10대가 3.1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표 2> 한국여성독립유공자 및 3.1운동유공자의 생년 분포도

전체여성운동가 생년	수	%	3.1운동 생년	수	%
1850년대(1851-60)	5	1.7	1850년대(1853)	1	1.0
1860년대	8	2.7	1860년대	3	3.2
1870년대	14	4.7	1870년대	4	4.2
1880년대	32	10.8	1880년대	7	7.4
1890년대	88	29.7	1890년대	36	37.9
1900년대	72	24.3	1900년대(1901-06)	39	41.0
1910년대	41	13.9	-	0	0
1920년대(1921-29)	19	6.4	-	0	0
미상	17	5.8	미상	5	5.3
	296	100		95	100

비고 :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받은 299명 중 3명의 외국인²³⁾을 제외한 296명의 분포
<http://e-gonghun.mppva.go.kr/user/ContribuMeritList.do?goTocode=20002>(20118년 7월 현재)

3.1운동의 특징으로 당대에도 어린 10대 소녀들이 많이 참가하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위 표를 보면 3.1운동유공자²⁴⁾는 생년분포가 1853-1906년에 이를 정도로 광범하였지만 당시 10대(그것도 1901년부터 1906년 생년)가 95명 중 39명(41.0%), 20대(1890년대생)이 36명(37.9%)에 이른다. 이 점은 전체 여성독립운동가의 분포도와 비해서도 월등히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독립유공자의 생년 분포를 보면, 1890년대생이 29.7%로 가장 많고 다음이 1900년대생 29.7%이다. 이것은 3.1운동 이후 활동가들이 포함하였고 다양한 활동영역

23) 299명 중 외국인 세 명이 포함되어 있다. 미네르바 루이즈 구타펠 두진웨이(두군혜 杜君慧), 송메이링(송미령 宋美齡)이다.

24) 국가보훈처 분류방식대로 통계낸 것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으나 3.1운동이 아닌 운동영역으로 표창받은 경우는 위 수에 빠져 있다.

을 총합한 것이다.

3.1운동에 10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학생들이 활발하게 참가한 것과 관련이 깊다. 3.1만세운동의 최연소자는 당시 만12세인 한이순(1906.12)으로 천안 광명학교 학생이었다. 같은 광명학교 학생 민옥금(1905년생), 황금순(1902년생)도 만13, 16세에 불과하였다. 당시 광명학교 교사 강기형(1868년생)도 함께 참가하였는데 교사나 어린 학생 모두 보안법 위반으로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학생들의 나이가 매우 어린데도 불구하고 같은 형량이었고 다른 학교의 여학생에게 적용된 형량보다도 더 긴 1년이었던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어렸지만 이들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독교계 여성들의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다. 이것은 10대 여성들의 참가가 대부분 기독교계 학교가 시위만세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고 학교 교사나 졸업생 등 학교관계자들이 학생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 <표 3>는 3.1만세시위로 투옥된 학생과 교사가 있는 학교를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와 천안 광명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 학교이다. 여성들은 3.1운동에서 기독교계가 압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3.1운동시기 여성들의 활동은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서 교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교통이나 통신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만세시위 운동이나 비밀결사조직은 확산되어 갔을까. 비밀리에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중요하게 작동하지만 여기에 학연과도 밀접한 교파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3> 참고).

3.1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한 여성들과 관련 깊은 학교와 교파를 살펴보면, 서울의 이화, 공주 영명, 개성 호수돈, 평양 정의여학교 등의 공통점은 기독교 감리교 계통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서울의 정신, 전주 기전, 광주 수피아, 대구 신명여학교 등은 장로교계통이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각각 같은 교파 학교 사이에서 학생이나 교사교류 등이 이루어졌다. 유관순은 공주 영명학교를 거쳐 이화학당에 입학하였고, 공주출신 김현경은 아펜젤러와 유관순 옥사 후 유해인수 작업을 하였다. 이어라는 이화학당에 공주 영명여학교와 평양 정의여학교에서 교사가 되었다. 이처럼 학생교류만이 아니라 교사 교류도 대부분 같은 교파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화나 정신여학교 등 졸업생들은 동일계통의 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사 등으로 취업하였다. 때문에 선후배 관계도 밀접하고 정보도 이러한 계통으로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3.1운동이나 이후 비밀결사운동도 이러한 관계망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와 교회, 혹은 병원 등도 연결되어 활동의 장이나 은신처를 찾을 때 중요하게 작동하였고 학교는 교사나 여러 방면의 활동가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파를 떠나 함께 활동하였지만, 대부분 기독교 교파별로 선교영역도 분리되어 있었고 같은 교파끼리의 관계가 훨씬 밀접하였다. 이 부분은 만주 등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다음의 과제로 삼는다

<표 3 > 3.1운동 여성독립운동가 관련 학교와 교파

학교명	3.1운동 및 독립운동 관련자	교과	비고 함께 한 학교 교회 등
이화학당	김원경, 노예달, 신태실 유관순, 유점선, 교사: 김독실, 이화숙, 황애시 덕, (황애시덕)	미 감리교	유관순은 영명학교 를 거쳐 이화학당 에 입학, 이애라 졸업 (교사 황애시덕)
정신여학교	박순애(전주)	미 북장로교	김마리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최은희 최정숙	-	-
공주 영명여학교	(유관순, 교사 이애라)	미 감리교	
천안 광명학교	민옥금, 한이순, 황금순	사립	
전주 기전여학교	김공순, 김나현, 김신희, 김인애, 최요한나, 함연춘	미 남장로교	
광주 수피아여학교	김덕순, 김안순, 박성순, 박우말 레, 양순희, 윤형숙, 이태옥, 임 진실, 조옥희, 최수향, 하영자, 홍순남, 교사 박애순, 진신애	미국 남장로교	(교사: 김마리아, 김 필례)
대구 신명여학교	교사 임봉선	미국 북장로교	이갑성(33인), 장로 교
함흥 영생여학교	교사 전창신	캐나다 장로교	
평양 승의여학교	(권기옥, 김경희, 김은순, 박현 숙, 안정석, 황애시덕)	미 북장로교	송죽희
평양 양무	교사 이효덕		
평양 정의		미 북감리교	이애라 교사
개성 호수돈	심정식, 어윤희(졸)	미 남감리교	조화벽
철원 정의여학교	여교사 김경순(호수돈 졸)	교회 부설	
부산 일신여학교	김난줄, 김반수, 김복선, 김봉 애, 박연이, 박정숙, 송명진, 심 순의, 이명시	호주 장로교	

비고: '(인명)'으로 표시된 것은 3.1운동 이전에 교사였거나 학생이었음을 표시함.

IV. 3.1혁명 여성독립유공자들의 구성

여기서 다른 3.1혁명 독립유공자는 3.1운동으로 정부로부터 포상받은 95명을 중심으로 삼았다. 하지만 3.1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관련되지만 다른 운동으로 분류된 여성독립운동가들은 별도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3.1운동계열로 분류된 여성들만 3.1운동으로 처리하였다.

<표 4>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포상자 수 및 비율

2018년 7월 현재 국가보훈처 자료 기준

운동계열	전체 수	전체비율	여성포상자수	여성 중 이 운동비율	같은 계통 중 여성비율
의병	2,588	17.39%	2	0.67	0.77
3.1	4,965	33.37%	95	31.77	1.91
국내항일	2,330	15.66%	66	22.07	2.83
학생운동	412	2.77%	24	8.03	5.83
문화운동	101	0.68%	1	0.33	0.90
계몽운동	133	0.89%	0	0	0
의열투쟁	129	0.87%	2	0.67	1.55
임시정부	372	2.50%	13	4.35	3.49
광복군	567	3.81%	31	10.37	5.47
중국방면	265	1.78%	22	7.36	8.30
만주방면	2,277	15.30%	13	4.35	0.57
노령방면	124	0.83%	1	0.33	0.81
일본방면	234	1.57%	0	0	0
미주방면	301	2.02%	25	8.36	8.31
인도네시아방면	12	0.08%	0	0	0
독립운동지원	69	0.46%	4	1.33	5.80
총수/비율	14,879	100.00%	299	100	2.01%

위 표를 보면 여성독립운동가 중 3.1운동으로 표창받은 분들은 여성독립운동가의 31.77%로 가장 높다. 그런데 3.1운동 참가자는 3.1운동으로 표창받은 분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를 생각하면 양형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3.1운동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클 것이다. 그리고 국내항일이 22.07%, 다음은 의외로 광복군이 3.81%이다. 그러나 남녀를 합한 같은 계통 중 여성 비율은 3.1운동이 1.91%에 지나지 않는다.

3.1운동유공자 여성을 직업별 신분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 3.1운동유공자의 직업별 구성

직업	수	비율
학생	43	45.26
교사	11	11.58
간호사	5	5.26
기독교관계	4	4.21
기생	11	11.58
일반 여성	21	22.11
	95	100

자료: 국가보훈처 공훈록, 국가기록원 판결문 등

비고: 위 기독교 관계자는 전도사와 구세군을 합한 것이고,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일반 여성) 중 기독교 관련 직업이나 관계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봄.

3.1운동유공자의 직업은 판결문이 없거나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제한된 것이나 살펴보면 학생이 45.26%, 교사 11.58%, 기생 11.58%, 기독교 관련자 4.21%, 일반 여성(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22.11%였다. 이러한 통계로 보아서도 3.1운동 여성유공자 중 학생들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유공자 중 학생은 광주 수피아여학교 학생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 10명이었다. 교사들은 11.58%인데 교육현장에서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3.1운동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생은 11.58%로 이들은 다른 연결망을 별로 갖지 않으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면서 지역민을 이끌었다. 간호사는 당시 의료인으로 3.1운동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의료관계자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 부가하여 언급한다면 3.1운동 시기 여성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 그것은 독립전쟁, 독립군운동을 하면 반드시 필요한 간호 의료인에 대한 관심때문이었다. 일반여성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 내에는 제암리·천안·안주 등지의 순국자, 남편이 교회관련자로서 남편이 구속된 이후 이어 만세시위를 주도한 경우 등이 주목되는데 이들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외에도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

<표 6 > 3.1운동여성유공자 중 도별 분포

도	수	현재 지역
강원	4	
경기	13	서울 경기 인천
경남	15	부산 경남 울산
경북	4	경북 대구
전남	15	전남 광주 제주
전북	5	
충남	11	충남 대전 세종
충북	0	
평남	4	평남 평양
평북	3	
함남	2	
함북	1	
황해	18	
	95	

비고: 도는 일제시기 분류대호이며 현재 달라졌을 경우 포함지역명을 병기하였고 출신지 미상자 3명은 활동지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음. 출신지와 활동지가 차이나는 경우는 출신지로 처리함.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3.1운동여성유공자가 가장 많이 나온 도는 황해도 18명, 경남·전남 15명, 경기 13명, 충남 11명이다. 서울의 비중이 다소 낮아 상식과 다르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출신지로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황해도가 3.1운동독립유공자 출신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황해도가 김마리아 등 출신지이며 기독교의 영향도 많지만 기생의 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황해도 지역 출신자를 발굴하려는 특별한 노력이 있었던 결과로 추정된다. 위 숫치는 현재 수에 근거한 것일 뿐 좀더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질 것이다.

*<표 > 3.1운동유공자 일제 적용형법과 형량

V. 3.1혁명 여성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을 통해 본 과제

앞에서는 독립유공자의 활동을 중심에 두었다면 이 장에서는 필자가 중심에 두고 분석한 여성독립유공자 특히 3.1운동 참가 여성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포상 수준, 분류에 대해 몇 가지 다루고자 한다.

우선 여성독립유공자의 수와, 운동계열별 비중, 또 여성독립운동가 중 3.1운동 참가자의 비율 등을 통해 현황 파악과 더불어 과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앞의 <표 >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포상자 수 및 비율 참고.

여기서 제일 주목할 것은 독립유공자 중 여성 비율이다. 전체 14,879명 중 여성독립유공자의 수는 2.0%이다. 같은 운동계열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방면, 미주방면, 학생운동 등인데 모두 10% 미만이다. ‘독립운동지원’이라는 운동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한 이유를 좀더 과학적으로 찾아보아야 하고 혹 여성을 배제할 수 밖에 없는 기준에 의해 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젠더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표에서 전체 여성 중 여성유공자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3.1운동(31.77%)이다. 이것은 전체 유공자를 통틀어 보아서도 비슷하다. 다음이 국내항일계열인데 여기에는 ‘3.1운동’ 관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독립유공자의 운동계열의 분류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윤선자의 글 등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²⁵⁾ 여기서 3.1운동 참가한 독립유공자들이 3.1만세시위운동만 참가한 경우가 운동계열 3.1운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일단 언급해 둔다. 그러니까 3.1운동 만세시위 등에 참가하였다고 해도 다른 방면 운동에 형량이 크다든지 자료가 있으면 다른 운동으로 분류되어져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3.1운동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편의에 의한 것이라 해도 기준점을 좀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1919년 11월 김종진 등이 포함된 대동단계열의 만세시위, 1919년 12월 노순경, 김효순, 박덕혜, 이도신 등이 함께한 훈정동 대묘 앞에서의 만세 시위, 1920년에 3.1운동 1주년에 동맹휴학과 상인철시를 주장하는 경고문을 전달하다가 체포된 박자선도 3.1운동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의 분류에 의하면 1919년 3.1운동과 더불어 조직되기 시작한 각종 비밀결사는 대부분 국내항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3.1운동 결과 혹은 그것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3.1운동이라는 분류 항의 기준 등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일단 보훈처 분류법에 따랐으나 이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3.1운동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표 7>은 독립유공자 중 훈격별 수 및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여성유공자의 훈격별 분포는 특별히 애족장(43.14%), 대통령표창(28.43), 애국장(12.38)으로 나온 것은 전체 독립유공자가 애족장(37.65%), 애국장(28.73%), 대통령표창(19.01%)으로 나온 것과는 다르게 낮은 훈격에 더 많은 비율을 점한다. 특히 여성독립유공자는 수형기간 1년 이상, 활동기간 2년 이상일 때 포상하는 애족장의 비중이 큰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는 대부분 낮은 훈격이고 특히 3.1운동유공자 훈격은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여기서 3.1운동을 중심으로 보면, 독립장은 유관순 1인인데 애족장은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거나 현장에서 절명한 이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3.1운동 여성유공자의 연령대가 상당히 어렸기 때문에 처벌형량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며 또 이에 근거하여 훈격에도 반영되었다

25) 윤선자, 「판결문 해제」,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1 3.1운동편, 2016, 56쪽

고 하겠다.

<표 7> 독립유공자 훈격별 수 및 비율(2018년 7월 현재)

훈격	전체 수	비율	여성 유공자 수	전체 여성 유공자 중 비율	여성포상자	3.1운동유공자 중 훈격
대한민국장	30	0.20	1	0.33	宋美齡	0
대통령장	92	0.62	1	0.33	남자현	0
독립장	824	5.54	10	3.35	아래 참고	1(유관순)
애국장	4,275	28.73	37	12.38	생략	7
애족장	5,602	37.65	129	43.14	생략	23
건국포장	1,227	8.25	36	12.04	생략	5
대통령표창	2,829	19.01	85	28.43	생략	59
계	14,879	100.00	299	100.00		95

참고: 여성독립유공자 중 독립장은 권기옥,김마리아,김순애,박차정,방순희,안경신,오광심,유관순,이신애,이애라(가나다순).

<표 8>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1-3등급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		
수형(옥고)	8년 이상	4년 이상	1년 이상	10월 이상	3월 이상
활동기간	8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6월 이상

참고: 1) 위의 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이고 활동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성격, 의의 등에 따라 훈격의 차등이 생길 수 있음. 2) 활동기간은 자료상 독립운동단체 등에 가입하여 실제로 활동한 기간을 뜻함.

VI. 맺음말

이 글은 2018년 8월 현재 정부가 표창한 여성독립운동가 299명 중 3.1운동과 관련된 이를 중심으로 보았다. 3.1운동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연구 과제와 3.1운동 독립유공자 발굴과 관련한 시각을 중심으로 짚어보자.

3.1운동과 관련하여 논의되길 기대한 부분은 첫째 3.1운동에 대한 기간과 운동형태 등과 관련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적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의 중심을 잡아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3.1운동과 같은 민족적 열망을 담은 활동이 필요하였고, 또 3.1운동의 열기에 힘입어 민족 대표기구로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3.1운동 이전 국제적인 독립을 위한 활동과 3.1운동, 3.1운동과 임시정부와 관련된 활동의 경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1운동이 만세시위운동만이 아니라면, 3.1 전후의 조선 독립을 세계만방에 외치고 요구한, 그리고 이것을 준비한 행위만 독립운동을 한 총체를 의미한다면 1919년 3.1일련의 만세시위 과정 혹은 4월 상해 임정 등이 수립된 직후에 각지에 활발하게 진행된 비밀결사활동은 국내항일로 이름붙이는 것은 적절할지 독립운동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접하게 되는 영역에 대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여성독립운동가 연구에 있어 개인적 관계망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비밀결사나 독립운동과 같이 상대가 있는 운동에서 공개된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인적 지역적 학교나 운동 등에서의 관계망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제한적 영역에서 활동한 여성들도 있기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판결문 등 문헌자료는 물론 인물의 주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이글을 준비하면서도 왜? 라는 질문에 각 지자체나 지역신문 등에서 발굴한 정보가 근접한 답을 제공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앞으로도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여성독립운동가와 관련 이야기들을 발굴하게 되길 기대한다. 여기에 앞으로 보완되어지길 기대하는 부분은 특히 가족관계나 여성 스스로가 쓴 자료 발굴이다. 젠더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3.1운동 이후의 여성독립운동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사는 물론 3.1운동유공자들의 3.1운동의 다양한 성향과 새 시대에 대한 기대 등이 이후 삶의 모습을 통해 또다른 창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서이다. 이 시기 자체가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가 매우 크고 3.1운동은 독립운동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사 사상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그 변화,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를 통해 일제 시기라는 시대와 사회조건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였는지 젠더시각으로 접근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좀더 입체적인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지길 기대한다.

네 번째는 3.1운동여성유공자들의 발굴을 민관합동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로 검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의외로 유공자명단에 누락된 경우가 자주 확인되었다. 유공자 신고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관합동의 장을 만들어 계획적 체계적으로 하나씩 점검해 간다면 지금 누락된 독립운동가들을 다수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합토론

중국 상해지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토론문

김 형 목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중국 상해지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토론문

김 형 목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개항 이래 제국주의 열강 침략으로 한민족의 자주적인 문명사회 건설은 좌절되고 말았다. 러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시정개선”이란 구실로 자행된 일제 내정간섭은 대한제국을 ‘국제적인 미아’로 고립시켰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다양한 국권회복운동을 추동시키는 요인이었다. 1907년 2월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전통적인 아낙네과 주모·노파 등은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은 3·1운동 주역으로 여성들이 당당하게 역사무대에 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이글은 3·1운동 이후 상하이에 대한민국의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활약한 김순애, 이후 김마리아, 김원경, 이화숙, 양한나, 정정화, 연미당 등의 활동을 조명했다. 이들은 상하이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는 물론 미주 등지와 소통을 통한 항일운동에 매진한 사실을 정리하였다. 각 개인별 활동 등에 관한 부분은 토론자도 모두 공감한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민족해방운동사에 정당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척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각 인물에 대한 시기별 현실인식이나 정세관 등에 관한 파악이 요청된다. 이들 대부분은 당대 최고의 여성지식인으로 근대교육 수혜를 누린 ‘특권층’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아성찰’과 아울러 사회적인 책무가 무엇인지를 공감하는 선각자적인 계층이었다. 그런 만큼 국제도시 상하이에서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독자적인 독립운동방략을 모색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 운영에 대한 김마리아와 김순애의 개조파와 창조파로 갈등은 바로 이와 같은 정세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둘째로 지나치게 활동상에 중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한국독립운동사 중 대한민국의임시정부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들 여성들에 관한 연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상하이 한인사회 형성과 한국인들 활동 등도 마찬가지이죠.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아울러 역사적인 성격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상하이에서 활동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인생여정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셋째로 전통여인과 신여성의 활동에 대한 비교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이죠. 회고록 등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인식 차이로 행동

반경에 아주 다른 경우를 엿볼 수 있다. 정정화 여사는 군자금 모금을 위하여 국내로 6번이나 왕래하였다. 三從之道를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믿고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난감하다. 정정화는 시아버지 사후 임시정부 요인들을 시아버지처럼 모시는 등 여성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물론 중일전쟁 이후 이러한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로 방향을 전환한다.

넷째로 3·1운동 전후 상하이-일본-국내-연해주 등지로 연결된 인적인 연결망은 정보 교류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이들은 근대교육을 수학한 신여성이자 대부분 개신교도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개신교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族籍인 기반도 마찬가지로이다.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는 대중교의 역할이 상당한 사실과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상하이 지역 여성독립운동가들은 미주지역과는 비교적 활발한 교류에 비하여 연해주와 교류를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이나 텐진과 마찬가지로이다. 교류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나아가 시기별 상하이 지역에 거주한 여성들 통계를 제시하면서 여성단체 조직과 참여 등을 제시한다면 당시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리라 전망된다.

두서 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김숙경지사 생애와 활동—훈춘애국부인회를 중심으로>
토론문

손 염 홍 (건국대학교)

<김숙경지사 생애와 활동—훈춘애국부인회를 중심으로> 토론문

손 염 홍 (건국대학교)

광복절을 앞둔 오늘날 타국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 김숙경의 생애와 항일투쟁 활동을 밝히는 글로써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남편인 독립운동가 황병길에 관한 연구에서 그의 부인으로서 김숙경 지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 김숙경 지사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독립운동 연구에 있어서 역사기록이나 서술이 남성 중심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밝히는 연구가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리광인 교수가 직접 지사의 후손을 만나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쓰신 이 글을 통해, 지사의 애국정신과 항일활동이 사람들에게 더 상세하게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된다.

역사 논문으로서 다음 같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생몰년에 관하여

1995년에 애족장 포상을 받았는데, 국가보훈처의 포상기록에는 1930년 7월 27일로 되어 있다. 이는 수정해야 할 것 같다.

2. 여성 독립운동가인 김숙경 여사의 생애와 활동을 밝히는 역사논문으로서 활동시기를 설정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1. 국내생활과 해외이주
2. 한국독립운동 참여
 - 1) 황병길 후원 및 사상변화
 - 2) 대한독립여자선언서
 - 3) 훈춘애국부인회
3. 활동의 역사적 의미

3. ‘대한독립여자선언서’에 관해서

이 자료는 1983년 안창호의 큰 딸 안수산이 미국 자택에서 발견해 국가에 기증한 것으로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돼 있다. 1,300여 자 모두 순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발표한 것으로 그 역사적인 가치는 또한 상당히 높다.

그러나 작성자인 김인중·김숙경·김옥경·고순경·김숙원·최영자·박봉희·이정숙 등 8명의 이름이 밝혀졌는데 황병길의 부인인 김숙경과 동일 인물인지 더 고증해야 할 것 같다. 나머지 인물에 관한 자료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선언서 작성자, 주도자 및 발표의 배경도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시 훈춘일대 독립운동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

4. 김숙경 지사의 사상에 관해서

선언서에서 나온 김숙경과 발표문 속의 김숙경과 같은 인물임이 확실하다면 선언서 내용을 통해 지사의 사상, 특히 식민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분석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김숙경 지사의 여성평등 의식은 기독교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김숙경 지사의 사상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된다. 그의 남편 및 이동휘 등 주변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의 종교사상 및 정치사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발표문에서 여러 차례 김숙경 여사가 계급의식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지사의 정치사상을 엿볼 수 있다.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사의 자제들이 중국공산당의 항일투쟁에 참여하여 항일유격 근거지와 동북항일연군에서 활약한 것도 그들의 어머니인 김숙경 지사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